

정신증, 조현병은 무엇인가?

일시 : 2019년 12월 14일 토요일 12:30 ~ 18:10

장소 : 아주대학교 다산관 지하1층 대강당

주최 :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아주대 일반대학원 의료인문정신분석전공,
한국정신분석협회, 현대정신분석연구소

목 차

인사말	1
일정	3
발표 1 : “거식증의 원인은 무엇인가 : 정신분석, 신경과학, 텍스트 마이닝의 통합적 연구 (정경훈, 신현정, 방선주 - 아주대)	4
발표 2 : “프로이트의 심급과 라캉의 언어처럼 짜여진 무의식, 그리고 AI의 빅데이터 사이의 대화는 가능한가?” (강응섭)	26
토론 2 : “프로이트의 심급과 라캉의 언어처럼 짜여진 무의식, 그리고 AI의 빅데이터 사이의 대화는 가능한가?”에 관한 토론문 (권택영).....	45
발표 3 : “인문사회의학 관점에서 바라본 조현병” (이영문)	47
토론 3 : “인문사회의학 관점에서 바라본 조현병”에 관한 토론문 (박영진)	65
발표 4 : “우리 사회의 정신증에 대한 라캉의 정신분석 실천” (이수진)	67
토론 4 : “우리 사회의 정신증에 대한 라캉의 정신분석 실천”에 관한 토론문 (김석)	82
발표 5 : “정신증 : 또 다른 진실을 위한 현대정신분석학적 탐구” (이해리)	83
토론 5 : “정신증 : 또 다른 진실을 위한 현대정신분석학적 탐구”에 관한 토론문 (김영일) ..	103
발표 6 : “정신증 내담자의 사례 연구 : 공격성을 중심으로” (차타순)	105
발표 6 : “정신증 내담자의 사례 연구 : 공격성을 중심으로”에 관한 토론문 (이준호)	120
도서 안내	123
아주대학교 의료인문정신분석전공 모집요강	135

2019년 하반기 공동학술대회

<정신증, 조현병은 무엇인가?>

안녕하십니까?

2019년 하반기 공동학술대회에 오신 것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정신분석 연구와 임상을 대표하는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와 한국정신분석협회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는데 이는 정신분석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한 훌륭한 학문적 토론과 배움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내 종합대학 일반대학원 최초의 정신분석전공이 된 아주대학교 의료인문정신분석전공이 함께 학술행사를 주최하게 되어 전 공주임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와 한국정신분석협회는 요즘 한국사회의 큰 화두로 떠오른 조현병/정신증 문제를 하반기 공동학술대회의 특집으로 삼았습니다. 조현병 관련한 일련의 험악한 사건들이 대중매체에 보도되면서 많은 일반인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조현병, 정신증을 학술 주제로 택한 것은 정신분석학 분야의 대표적인 두 단체가 단순히 연구, 임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룸으로써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오늘 정신증, 조현병에 대한 탁월한 연구들이 발표될 것입니다. 토요일 주말에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의 귀한 발걸음이 가실 때는 더욱 배움의 기쁨으로 즐겁고 힘차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조현병 특집 주제에 앞서, 정신분석학이 요즘에 핫한 신경과학, 빅데이터연구와 연관된 혁신적인 연구도 발표될 예정인데, 이 또한 좋은 지적 자극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값진 발표와 토론을 해주시는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토요일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참석자 모든 분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장/
아주대 의료인문정신분석전공 주임교수
정경훈 드림

인사말

금번에 현대정신분석학회, 현대정신분석연구소, 그리고 한국정신분석협회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서로가 독자적으로 활동하던 단체들이 연합하여 이런 학술 행사를 갖게 된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분석은 정신건강을 다루는 분야의 토대로서, 오랫동안 꾸준히 한국 사회의 정신건강과 학문을 위해 노력해 왔고, 국내 정신분석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정신분석 동향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정신분석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여러 단체들 간의 교류와 협력은 계속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번 공동 학술대회가 여러 위치에서 노력해온 각각의 정신분석 단체들을 연합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번에는 발표 주제인 조현병에 대하여 학술적이고, 임상적으로 다양하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참석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술대회를 위해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기꺼이 노고를 마다하지 않고 준비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국 정 신 분 석 협 회 장 /
종로심리치료클리닉
김 주 영 드림

일 정

12월 14일 (토)	
12:30 - 13:00	접수
13:00 - 13:10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장/한국정신분석협회장 인사
□ Session 1 자유주제 발표 / 사회: 윤정혜(Dr. 윤's심리치료 하연)	
13:10 - 13:50	정경훈, 신현정, 방선주(아주대) <거식증의 원인은 무엇인가: 정신 분석, 신경과학, 텍스트 마이닝의 통합적 연구>/ 토론: 정재식(아주대)
13:50 - 14:30	강응섭(예명대학원대) 프로이트의 심급과 라캉의 언어처럼 짜여진 무의식, 그리고 AI의 빅데이터 사이의 대화는 가능한가?/ 토론: 권택영(경희대)
14:30 - 14:40	휴식
□ Session 2 조현병 발표 1 / 사회: 김소연(부산대)	
14:40 - 15:20	이영문(국립정신건강센터) 인문사회의학 관점에서 바라본 조현병 / 토론: 박영진(한국예술종합학교)
15:20 - 16:00	이수진(아주대) 우리 사회의 정신증에 대한 라캉의 정신분석 실천/ 토론: 김석(건국대)
16:00 - 16:10	휴식
□ Session 3부 조현병 발표 2 / 사회: 한동석(현대정신분석연구소)	
16:10 - 16:50	이해리(현대심리치료연구소) '정신증: 또 다른 진실을 위한 현대정신 분석학적 탐구' / 토론: 김영일(레브린 정신분석클리닉)
16:50 - 17:30	차타순(헤세드 정신분석상담센터) 정신증 내담자의 사례 연구 : 공격성을 중심으로/ 토론: 이준호(현대정신분석연구소)
17:30 - 17:40	휴식
□ 종합토론 / 사회: 정진만(영남대)	
17:40 - 18:10	종합토론
18:10	폐회

발표 1

거식증의 원인은 무엇인가 : 정신분석, 신경과학, 텍스트 마이닝의 통합적 연구

정경훈, 신현정, 방선주 (아주대)

거식증의 원인은 무엇인가: 정신분석, 신경과학, 텍스트마이닝의 통합연구

정경훈, 신현정, 방선주(아주대)

서론

지금까지 정신병리 연구는 양자 중의 하나:

- 1) 정신분석 등 심리사회적 연구
- 2) 신경과학 등 신경생물학적 연구

장단점:

- 1) 정신분석은 정신병리의 심리사회적인 요인을 밝히는 데 탁월한 장점이 있지만 주체의 몸/신경계 안에서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 2) 신경과학은 거식증 주체의 신경생물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몸/신경계 안의 심리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뛰어나지만 이것이 심리사회적 요소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신경정신분석 (neuropsychanalysis)

- 정신병리는 심리사회적인 요인, 신경생물학적 요인 어느 한 쪽에 의해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 인간의 정신은 가소성(plasticity)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심리사회적 요소와 신경생물학적 요소는 모두 정신현상에 영향을 미친다.
- 신경정신분석학: 정신분석과 신경과학을 통합하여 정신병리와 심리에 대한 보다 온전한 접근을 연구하려는 시도이나, 아직은 기초적인 발달단계이다.

본 연구

- 본 연구는 심리사회적인 혹은 신경생물학적인 방대한 양의 기존 연구 논문을 텍스트마이닝이란 빅데이터 방법으로 매칭 분석함으로써 심리사회적요인과 신경생물학적 요인이 어떻게 증상에 함께/동시에 작동하는가를 탐구함.
- 양쪽 연구성과의 관계를 훨씬 명료하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신경정신분석 연구에 기존 연구를 잘 활용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보다 정확히 찾아내 의미있는 새 연구를 설계하는데 기여함.
- 신경정신분석에 텍스트마이닝기법을 도입하여 현재 주먹구구식의 신경정신분석 연구를 한 단계 upgrade하여 신경정신분석을 보다 체계적, 통합적, 구체적 연구로 만들 수 있을 것임.

거식증에 대한 본 연구

1. 필자의 기존 연구에 기반

- 1) 『외모문화와 시대욕망: 라캉의 ‘욕망의 그래프’와 외모욕망에 대한 정신분석』:
라캉이론을 통한 외모욕망, 거식증 연구
- 2) 『신경과학과 정신분석 마주쳐 읽기 I: 욕망, 충동, 신경전달물질/호르몬을 중심으로』:
라캉의 정신분석이론에 대한 신경과학적 수정을 가하고,
외모욕망, 거식증에 대한 신경정신분석적 연구 시도

- 현 연구는 논문 검색엔진 PubMed에 있는 거식증에 대한 논문 모두를 수집하여 이들에 대한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통해, 거식증상을 일으키는 심리-사회적 요소와 신경생물학적 요소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분석하여 거식증에 대한 신경정신분석 연구를 보다 광범위하고 치밀하게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함.
- 거식증에 대한 신경정신분석연구는 현재 세계적으로 거의 없는데, 신경정신분석에 텍스트마이닝을 접목하여 신경정신분석 방법을 혁신하려는 본 연구의 시도는 아마도 세계에서 처음일 것. 이 방법의 유효성이 나름대로 입증되면 이것을 우울증 등 다른 정신병리에 대한 연구로 확장할 것임.

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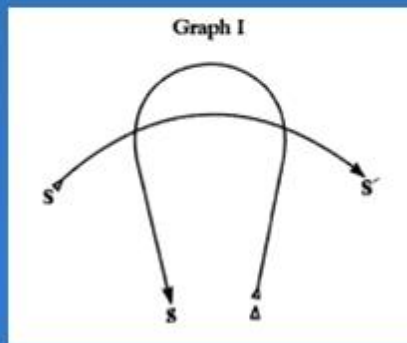
거식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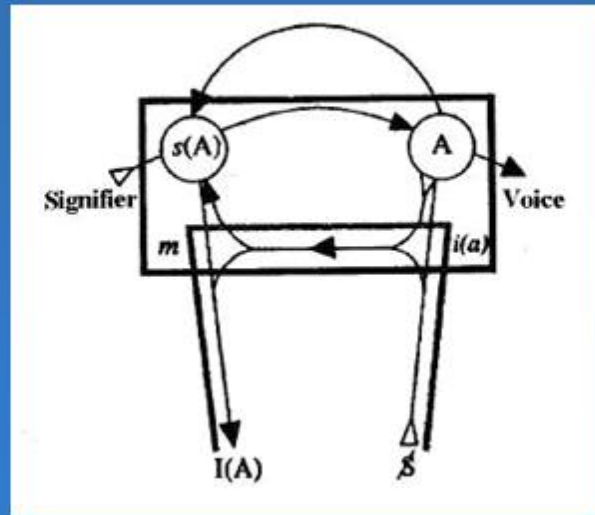
거식증으로 사망한 여성모델 이사벨 카로(Isabelle Caro)
남성모델 제레미 글리처(Jeremy Gillitzer)
거식증 소녀

1. 거식증에 대한 라캉 정신분석적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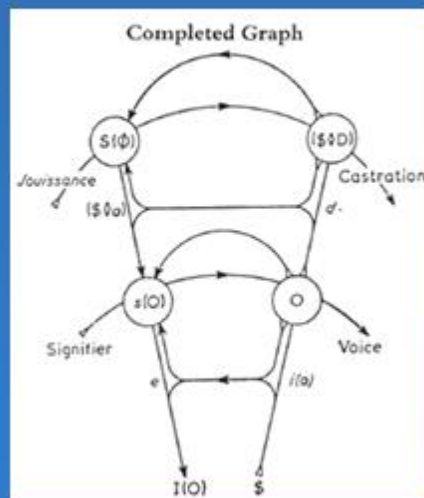
인간은 말하는 존재(parl tre)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다.
욕망의 그래프



상징적/상상적 동일시



동일시 너머 주이상스



날씬한 몸을 향한 욕망

동일시: 상징적 동일시, 상상적 동일시; 자아 형성

자아: 이상자아; 현실자아; 자기평가/자아감; 차이

욕망: 욕망의 환유 운동

충동(죽음 충동): 주이상스

거식증: 거식, 운동; 영양실조, 죽음; 고통

주이상스: 고통 속 향유

거식 치유: 대타자, 자아, 욕망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체의 거식 주이상스(충동의 만족)도 다루어져야 함

Julia Case

"Julia's anorexia first surfaced in high school"(130)

She "struggled to maintain boundaries with her anxious, depressed mother"(130);

Recently, she had become an avid practitioner of Pilates. She felt safer and stronger"(130-31)

"She worried that others would think she was boring if they spent much time with her.... She believed there was 'something disgusting' about her people discovered after a while ... It was her disgustingness that caused the eating disorder in the first place"(131)

"Julia was smart, attractive and well-liked. She was doing well in school and had a bright future ahead of her."(131)

"Julia's mother had struggled with periodic depression and overeating, using food to try to quell her emotions ... her mother explicitly telling her to eat when she felt sad Negative feelings were signs of 'low blood sugar' or hunger ... Julia had difficulty differentiating between bodily and mental states. Later, in adolescence, she coped with burdensome relationships by restricting her food, as though she felt physically stuffed Then, through exercise, she built up a tough muscular armor to help protect herself from further violation. But none of this lessened the inexorable rottenness at her core"(132)

"Unable to exercise, Julia feared gaining weight despite having lost quite a bit after the surgery"(133)

위 분석 보고에 대하여

- 우울증 앓는 엄마의 육아;
- 엄마와의 동일시;
- 엄마의 특성(기분을 음식물로 조절하려 함)을 내면화;
- 엄마처럼 음식섭취 조절로 인간관계 문제점을 조절하려 함(욕망의 환유적 운동)
- 운동과 거식으로 자기 조절 (주이상스)

분석의 문제점:

- 주체가 엄마와 거리를 두려는 측면에 충분한 주의 못 줌
- 부정적인 자기평가의 원인을 못 찾음

Clare Case

Clare, 15 year old.

"From the beginning of treatment, Clare desired to emulate as well as to be better than her mother"(49)

She is the youngest of children; "clingy baby" "cried all the time"; mother "weaning Clare abruptly and then leaving for three weeks when Clare was six month old" Clare and mother "subordinated to father, rather than being contained and supported by him"; mother's "inability to assert herself on her own or Clare's behalf"; Mother "turned to Clare in her husband's absences and Clare slept with her while father was away, until well into adolescence. Clare is highly identified with and idealising of her mother ... has made little differentiation from her"(47)

Her mother was "molested as a child by a parish priest, whom her parents were unwilling to question or to oppose"(48)

mother prepared for a triathlon; Clare's envy that mother made herself skinny; she was able to eat when she could see her mother eating"; her "a lack of differentiation from mother" (49)
"noticing how thin she[mother] was made Clare felt bad about her own body";

"Clare feared sexuality becoming visible in her body"(50); "frequent fears that a man would grab her on the street"(51);

Because Clare feels she cannot regulate food entering her body, she has to remove herself from it. Her expectation that boys cannot be told 'no' is also a projection of her own inability to say 'no.'"(53)
"Clare represents a sub-group of anorexics in whom aggression is less marked"(46)

"the anorexic's wish for, and fear of fusion with her mother"(47)

위 분석 보고에 대하여

- 엄마와의 동일시
- 엄마로부터의 분리 불안
(아마도 정신증적 거식주체)
- 엄마의 특성 중 하나(날씬한 몸) 내면화;
거식으로 몸매 조절 욕망(욕망의 환유적 운동)
- 두려움: 자기 몸의 여성성 발달
- 거식: 자기 몸으로 들어오는 음식=남자에 대한 두려움

2. 거식증에 대한 신경과학적 접근

라깅:

모든 충동은 죽음 충동; 충동은 말하는 존재에게만 있다.

Berridge:

“좋아함(liking)과 원함(wanting)은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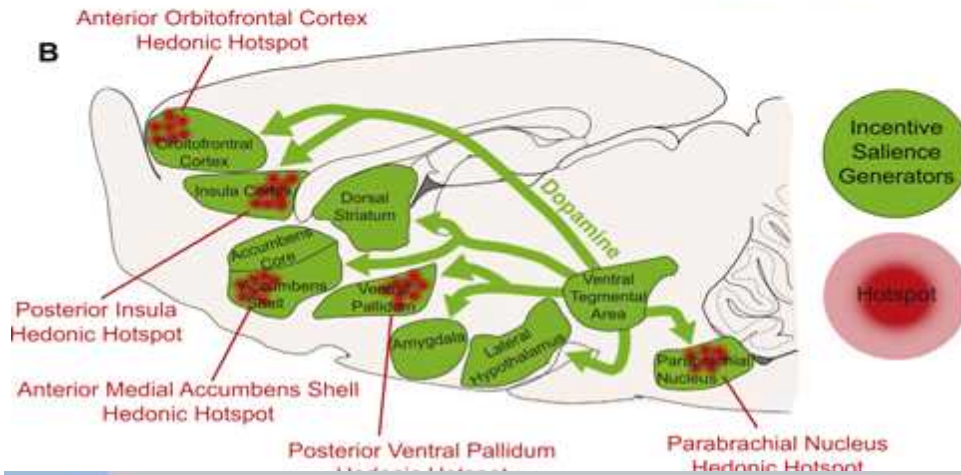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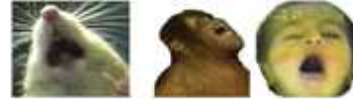
‘좋아함이 없는 원함’ / 갈망(=죽음 충동)이
인간은 물론 다른 동물에게도 있다.

Liking, wanting, dopam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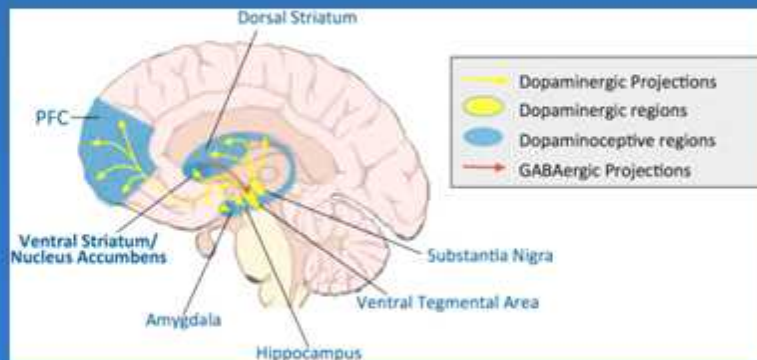
A 'Liking' Reactions to Sweetness



'Disgust' Reactions to Bitterness



도파민 경로



도파민과 거식증상

Dopamine: 도파민 증가는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갈망을 증가시켜 중독과 자기파괴를 동반하는 과잉 갈망을 일으킴.

거식 갈망: 과잉 도파민 작용에 기반; 도파민의 4개 경로 중 복측피개 영역(TVN)에서 유래하여 전전두엽피질(Prefrontal Cortex)에 작용하는 중피질경로(mesocortical pathway), 복측피개영역에서 변연계로 가는 중변연계경로(mesolimbic pathway)가 거식에 중요.

수용체 D2/3: 거식욕망, 과잉 운동을 불러일으키는 dopamine작용은 도파민이 수용체 5개 중 D2, D3와 결합할 때 효과적임.

Reward Contamination Theory

"Reward contamination theory proposes to explain the observation that many patients ultimately experience otherwise rewarding stimuli as punishing, for example food, and vice versa otherwise punishing (or aversive) stimuli as rewarding, for example self-starvation, excessive exercise and emaciated body image"(Keating et al, 568)

AN & Dopamine

"Dopamine has been the most widely studied reward candidate in AN. Increased D2 and D3 receptor binding in the striatum has been revealed in recovered individuals relative to HCs during a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study (Frank et al., 2005) in addition to which, dopaminergic activity (as assessed via eye blink rate, a measure of dopamine function (Karson, 1983)) has been shown to be abnormally elevated in patients relative to HCs (Barbato et al., 2006). Other investigations have shown reduced concentrations of dopamine metabolites (homovanillic acid) in the CSF of recovered individuals relative to HCs (Kaye et al., 1999) in addition to a large study revealing polymorphisms of the D2 receptor in patients with AN relative to controls (Bergen et al., 2005). Taken together these findings provide compelling evidence that the dopamine system contributes to AN." (571)

도파민 설명의 문제점

"It is also plausible that, on face value, the images of thin women are more rewarding for patients with AN, and thus, these images activate the reward system compared to HCs. Regardless, it is not clear how this inappropriate (Zink & Wemberger, 2010) and conflicted (Keating, 2010) desire for starving oneself initially develops and in this context, it remains unknown what enables the disproportionately small number of individuals who diet, to develop full-blown symptoms of AN". (571)

"It is also not yet clear from the evidence whether reward contamination begins as a result of an aversion to food, or increasing social/cognitive goals of thinness. Whether a heritable component of the dopamine system (consistent with findings that there are polymorphic abnormalities linked to the D2 receptor) renders some individuals vulnerable to processing reward associated with particular everyday behaviors such as feeding and exercising and cognitive processes associated with these behaviors, in a manner consistent with inappropriate desire linked to these behaviors, also remains unclear"(572)

AN, ACC, Insula

"A role for the ACC[anterior cingulate cortex], insula and striatum may also be relevant for body image disturbances in AN. In addition to taste-reward processing, body dissatisfaction has also been linked to processing by the ACC"(573)

"Relative to the HCs, patients revealed greater anxiety to the self-other body shape comparison, and were less satisfied with their current body shape. Relative to HCs, patients' self-other body shape comparison was associated with less activation of the rostral ACC, and greater activity of the right insula and premotor cortex. Insula hyperactivation along with ACC hypoactivation was considered potentially critical for altered interoceptive awareness to body self-comparison and/or for altered implicit motivation to thin-idealized body images in AN(Friederich et al., 2010)"(573)

3. 텍스트마이닝 접근

PubMed에 수록된 거식증 관련 논문 수집 후 텍스트마이닝 분석 방법을 통해, DSMV이 제시한 거식증상을 중심으로 거식증의 심리-사회 요인과 신경생물학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찾으려 한다.

DSM V의 Anorexia Nervosa 진단기준

- A. Restriction of energy intake relative to requirements, leading to a significantly low body weight in the context of age, sex, developmental trajectory, and physical health. *Significantly low weight* is defined as a weight that is less than minimally normal or,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less than that minimally expected.
- B. Intense fear of gaining weight or becoming fat, or persistent behavior that interferes with weight gain, even though at a significantly low weight.
- C. Disturbance in the way in which one's body weight or shape is experienced, undue influence of body weight or shape on self-evaluation, or persistent lack of recognition of the seriousness of the current low body weight

RESEARCH GOAL

Theme

Extracting socio-psychological and neurobiological causal factors of Anorexia Nervosa

Overall Process



29

DATA COLLECTION

1. Downloading 'Anorexia' related literatures from PubMed Central (PMC)

62800 (145MB) literatures were found and we downloaded the abstracted information of the literatures as MEDLINE format (.txt)

2. Parsing the abstracts with Python

Extracted abstract (AB) and its PMID (or PMC) from MEDLINE format and split paragraphs into sentences

3. Choosing 'Anorexia' and 'causality' related words

Anorexia and causality terms were used

1. **Disease term**
Anorexia, AN
2. **Symptom terms**
54 symptom names
3. **Causal terms**
the active or passive verbs: 104 (infinitive: 64)

30

DATA COLLECTION

4. Extracting sentences which include the lexicon

1. Disease_Causality_result: **2986 sentences**
2. Symptom_Causality_result: **5380 sentences**
3. Disease_Symptom_Ccausality_result: **175 sentences**

31

DSM 평가기준= symptom subtypes

symptom_sub_1 restriction of energy intake

symptom_sub_2 significantly low weight

symptom_sub_3 Intense fear of gaining weight or of becoming fat

symptom_sub_4 undue influence of body weight or shape on self-evaluation

symptom_sub_5 persistent lack of recognition of the seriousness of
the current low body weight

Socio-psychological Factors causing Anorexia Symptoms

Socio-psy_Factors (44)

1. Addiction	16. Emotional impairments	31. Negative experiences of the body
2. Harm avoidance (HA)	17. Stigma	32. Overvaluation of shape and weight
3. Autonomy/connectedness	18. Exercise	33. Perfectionism
4. Behavioral inhibition	19. External eating	34. Undue influence of weight/shape
5. Body dissatisfaction	20. Family connectedness	35. Purging
6. Body-related social comparison (BRSC)	21. Parents' responsiveness	36. Pursuit of weight loss
7. Care planning	22. Food intake	37. Restrictive eating
8. Cognitive behavioral techniques	23. Narcissism	38. Eating
9. Compulsive exercise	24. Motivation to change	39. Self-weighing
10. Weight control	25. Hyperactivity	40. Social pressure
11. Depression	26. Hypophagia	41. Shape and weight concerns
12. Dieting	27. Self-control problem	42. Weight instability
13. Eating disorder (ED)	28. Internalization	43. Weight loss
14. Drive for thinness	29. Interpersonal stress	44. Weight suppression
15. Dysphoria	30. Media pressure	

33

Neurobiological Factors causing Anorexia Sympto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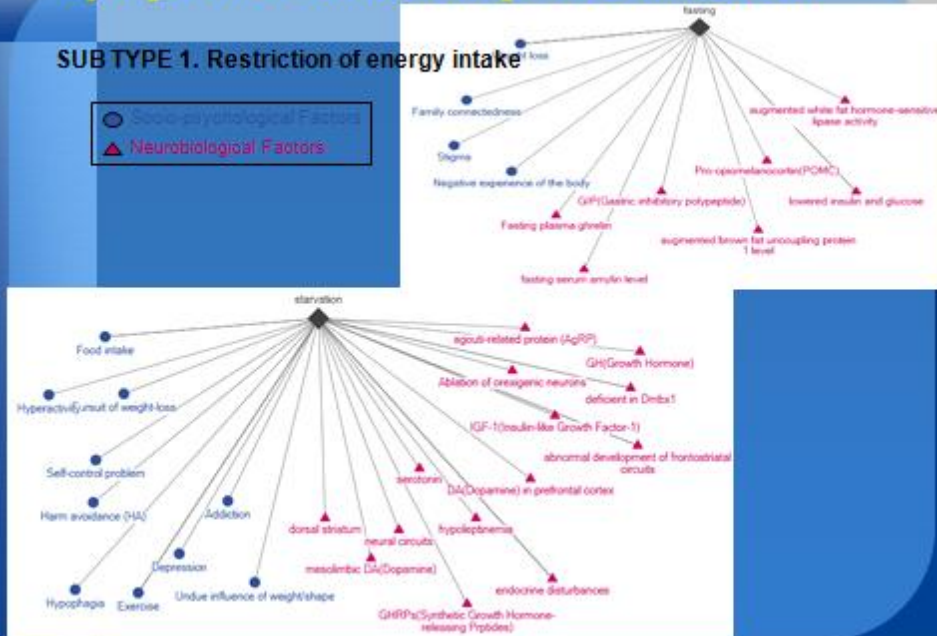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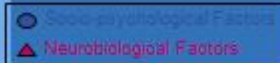
Neurobio_Factors (47)

1. Ablation of oreogenic neurons	17. endocrine dysfunction	33. lowered insulin and glucose
2. abnormal development of frontostriatal circuits	18. Fasting plasma ghrelin	34. medial prefrontal cortex
3. activity in frontostriatal circuits	19. fasting serum amylin level	35. neural circuits for taste
4. agouti-related protein (AgRP)	20. food-induced DA release	36. POMC (proopiomelanocortin)
5. alcohymia	21. GH (Growth Hormone) level	37. posterior cingulate
6. alterations in mesolimbic DA	22. GHRHs (Growth Hormone-Releasing Peptides)	38. posterior insula
7. augmented levels for uncoupling protein 1 level	23. GIP (Gastric inhibitory polypeptide) level	39. precuneus
8. augmented white fat baroreceptor/chemoreceptor activity	24. hyperfunctioning serotonin system	40. right hemisphere (RH)
9. BDNF (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 polymorphism	25. hyperfunctioning decision-making and impulse control system	41. serotonin
10. compensatory neural change	26. hypoleptinemia	42. serotonin (5-HT)
11. DA (Dopamine) in prefrontal cortex	27. IGF-1 (Insulin-like Growth Factor-1) levels	43. T2 dietary restraint level
12. deficits in Dlx5 (diencephalon/mesencephalon homeobox 5)	28. insulin frontal gyr	44. the cingulate
13. dopamine (DA) function	29. insula system	45. the left inferior frontal gyrus
14. dorsal anterior cingulate	30. intracellular PLC-IP3K pathway	46. the Utsu-CRF receptor site
15. dorsal striatum	31. lamina-specific GABAergic inhibition	47. Vach
16. endocrine disturbances	32. lowered fasting insulin and glucose	

34

Symptom-Factors: Graph Visual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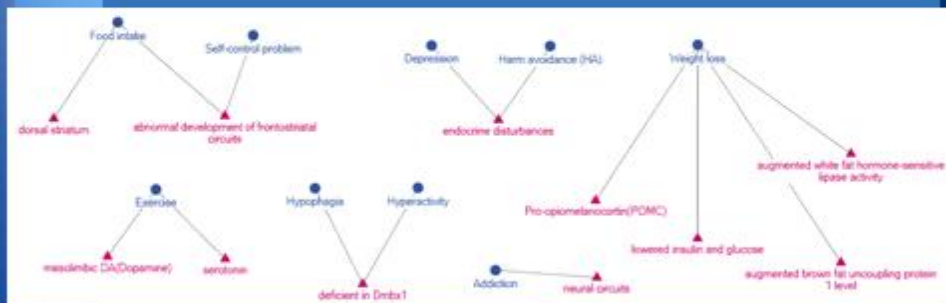
SUB TYPE 1. Restriction of energy intake



35

Factors-Factors: Graph Visual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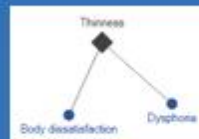
SUB TYPE 1. Restriction of energy intak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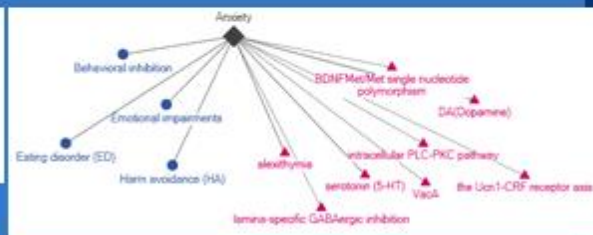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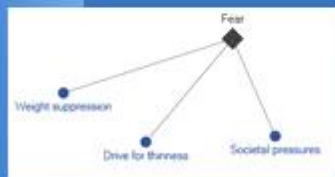
36

Symptom-Factors: Graph Visualization

SUB TYPE 2. Significantly low we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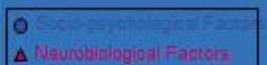
SUB TYPE 3. Intense fear of gaining weight or of becoming fat



37

Factors-Factors: Graph Visualization

SUB TYPE 2. Significantly low weight



SUB TYPE 3. Intense fear of gaining weight or of becoming fat



38

SUB TYPE 4. Undue influence of body weight or shape on self-evaluation



SUBTYPE 4. Undue influence of body weight or shape on self-evaluation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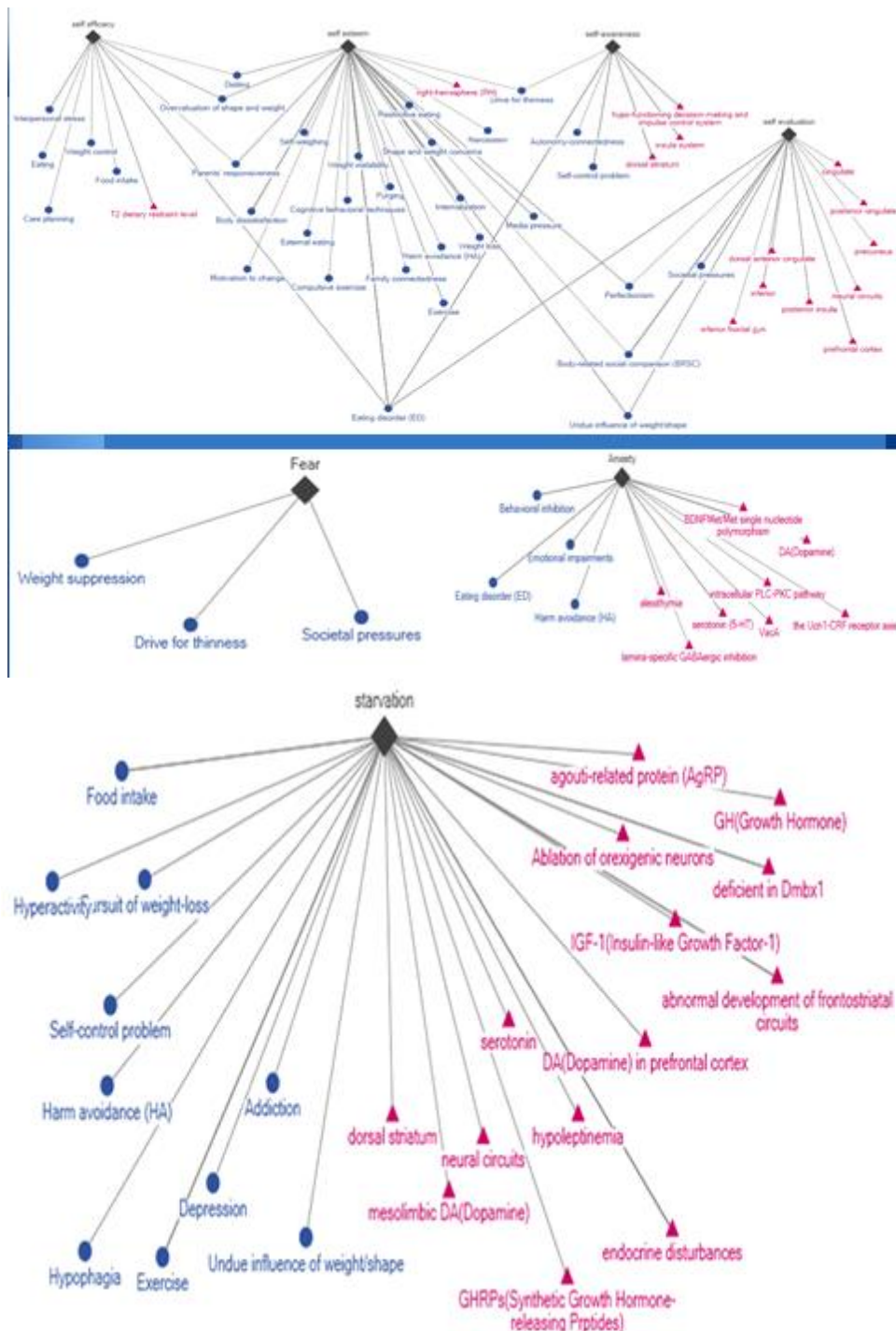
증상 간 인과 관계

1)symptom_sub_4 (undue influence of body weight or shape on self-evaluation) →

2)symptom_sub_3(Intense fear of gaining weight or of becoming fat)→

3)symptom_sub_1(restriction of energy intake) →

4)symptom_sub_2(significantly low weight)



프로이트의 심급과 라캉의 언어처럼 짜인 무의식, 그리고 AI의 빅데이터 사이의 대화는 가능한가?

강응섭 (예명대학원대)

2016년 조선일보 미래기획부에서 기획한 『미래의 미래』에서 제리 케플런(스탠퍼드대학 법 정보학센터 교수이자 인공지능 학자)과 노엘 샤키(세필드대학 인공지능-로봇공학 명예교수)가 ‘AI가 미래다’와 ‘아니다. 인간을 이길 수 없다’는 주장을 각각 했고, 『열두 발자국』(어크로스, 2018)의 정재승 교수와 『생각의 속임수』(글항아리, 2018)의 권택영 교수도 각각 이런 흐름에서 있다. 즉, 정재승 교수는 “인간 뇌를 닮은 인공지능(brain-inspired artificial intelligence)”(정재승 2018: 232) 개발 계획을 제시했고, 권택영 교수는 “인공지능이 따라하지 못할 인문학적 뇌”(권택영 2018: 표지 부제목)를 책의 부제로 주장을 명기했다. 올 해 후자의 책을 서평하면서 필자(강응섭 백승희, 2019)는 4차 산업혁명의 시기라고 불리는 최근의 흐름에서 파생하는 기술과 정신 간의 문제를 고민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에 출간한 『한국에 온 라캉과 4차 산업혁명』도 이런 흐름 속에서 저술한 바 있다. 오늘 필자가 다루는 주제는 학술대회 주제인 정신증(정신병), 조현병(정신분열증)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간접적인 측면에서 보면 연관이 있다고 본다. 인간 정신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 및 작용되는지를 다루었던 프로이트와 라캉의 담론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해석하는 데 어떤 면에서 기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접근하는 본 발표문은 프로이트의 심급이 형성되는 과정과 이 과정이 라캉이 말한 언어처럼 짜인 무의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이 두 과정이 현재 진행 중인 AI의 빅데이터와 대화할 수 있는지를 모색할 것이다. 학술논문이 아닌 만큼 자료인용 및 제시를 중심으로 전개하여, 청중에게 원문 접근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도로 발표에 임하려고 한다.

1. 프로이트에 따른 정신의 위상들

심급(Instanz)은 프로이트가 정신의 구조를 재판의 구조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재판이 1심, 2심, 3심으로 구분되듯, 정신도 이런 절차에 따라 유입된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두고 유물론적 접근이라고 말하면서 유물론자는 무신론적 사고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규제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영혼에 관하여』에서 ψυχή를 능동이성(active nous(vous)), 능동지성(수동이성(passive nous(vous)), 수동지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했는데, 후자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이가 프로이트라고 보는 게 좋을 듯하다. 그가 전자를 부연하지 않는 것은 종교학자가 아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프로이트가 제시한 심급은 유입된 데이터를 어떤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가를 보여준다. 그는 이런 흔적을 생애에 걸쳐 남겼는데, 우선 1차 위상(기억, 무의식, 전의식, 의식)이라 불리는 구조를 ‘과학적 심리학 초고’(1895년), ‘플리스와의 편지 52번’(1896년 12월 6일), ‘꿈의 해석 7장’(1899년)에서 제시했고, 2차 위상(이드, 자아, 초자아)을 ‘나와 그것 2장’(1923년), ‘새로운 정신분석 강의 31장’(1932년) 등에서 제시하였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1) 1차 위상(기억, 무의식, 전의식, 의식): 『과학적 심리학 초고』(1895년), 『플리스와의 편지』 52번(1896년 12월 6일), 『꿈의 해석 7장』(1899년)

(1) Φ , Ψ , w 시스템: ‘과학적 심리학 초고’(1895년) in 『정신분석의 탄생』

2. 두 번째 기본 개념-뉴런의 이론

<양의 이론>과 뉴런의 지식을 결합하려는 생각-최근의 조직학을 통해 도달한-은 우리 이론의 두 번째 밑바탕이다. 최근 발견의 핵심은, 뉴런 체제가 서로 다르지만 유사한 구조로 된 뉴런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이물질(異物質, fremde Masse)을 통해서만 서로 접촉하고, 외국의 식물 조각에서 처럼 하나의 뉴런의 끝이 다른 뉴런의 끝에 포개어져 있다. 그것들이 수상 돌기를 통해 흥분을 받아들여 축색 돌기를 통해 방출한다는 점에서, 거기에는 어떤 전도로가 부설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아주 다양한 직경의 많은 가지들이 있다.

우리가 그러한 뉴런의 설명을 <양의 이론>과 결합시킨다면, 어떤 양으로 채워진, **투여된(besetzt)** 뉴런은 다음 순간에 비워질 수 있다는 개념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관성의 법칙은 세포의 전도로[수상 돌기]에서 축색 돌기로 가는 어떤 흐름의 가설로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개별적인 뉴런은 이분법적인 구조를 가진 전 뉴런 체계의 원형이고, 축색 돌기는 방출 기관이다. 그러나 양의 저장을 필요로 하는 2차적인 기능은, 방출에 반대하는 저항의 개입을 가정할 때 가능해진다. 뉴런의 구조를 생각해 볼 때, 그러한 저항은 **장벽**의 역할을 하는 [뉴런과 뉴런 사이의] **접촉점**에서 일어난다. <접촉 장벽>의 가설은 많은 점에서 유익하다.

3. 접촉 장벽

그러한 가설을 입증하는 첫 번째 증거는, 전도로가 (보통 뉴런 내부에서처럼) 분화된 원형질-아마 전도에 더 적합한-을 통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분화된 원형질을 통해 지나간다는 사실에서 나온다. 그러한 사실은 전도의 수용 능력이 분화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우리는 전도 과정 자체가 원형질 내에서의 분화를 만들고, 결과적으로 다음의 전도를 위한 더 나은 전도의 수용 능력을 만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접촉 장벽 이론에는 또 다른 이점이 있다. 신경 섬유의 주된 특징 중의 하나는 <기억>-요컨대, 단 한 번의 과정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능력-이다. 그것은 파동을 거친 다음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물질의 반응 방식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것이다. 명색이 심리학 이론이라면 기억에 대한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심리학적인 설명이 다음과 같은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사실, 우리는 흥분 이후의 뉴런이 그 이전의 뉴런과 영원히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흥분이 이전의 조건과 똑같은 수용 조건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따라서 뉴런은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변하지 않고 <중립적>이다. 언뜻 보기에, 그렇게 복잡한 기능 장치를 상상하는 것은 불간능하다. 그러한 공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흥분에 의해 영원히 변해 버리는 능력을 가진 어떤 범주의 뉴런과 불변성-항상 새로운 자극[흥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능력-을 가진 **다른 범주**의 뉴런을 가정해야 한다[**지각과 기억의 양립 불가능성을 처음 주목한 이는 브로이어다. 프로이트 편지52, 꿈의해석 7장, 쾌락의 원칙을 넘어서 제4장, 신비스런 글쓰기 판에 대한 소고에서 다루었다**]. <지각 세포>와 <기억 세포>라는 기존의 일반적인 구분이 여기서 나왔지만, 그 구분은 아무 근거가 없음 어디에도 들어맞지 않는다.

접촉 장벽 이론은 그러한 난관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탁한다. 즉, 두 범주의 뉴런이 있다. 하나는 마치 접촉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양을 통과시키는 뉴런으로 흥분이 통과한 뒤에는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의 접촉 장벽이 작용해서 양의 일부를 통과시키거나 어렵게 통과시키는 뉴런이다. 두 번째 범주의 뉴런은 변화를 겪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들은 **기억을 표상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지각에 이바지하는 투과성 뉴런(어떠한 저항도 보이지 않으며 아무것도 붙잡아 두지 않는)과 비투과성 뉴런(저항하고 양을 유지하는)이 있다. 기억(과 아마 일반적인 심리 과정)은 후자에 달려 있다. 이제부터 나는 전자에 속하는 뉴런을 뉴런 ϕ , 후자에 속하는 뉴런을 뉴런 ψ 라고 부를 것이다.

이제 우리는 기억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뉴런 ψ 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다. 논지는 이렇다. 흥분의 흐름은 뉴런을 영원히 변화시킨다. 접촉 장벽 이론을 개입시킨다면, 그러한 장벽이 영원한 변화를 겪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심리적인 경험을 통해 기억에 기초한 점진적인 학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는 접촉 장벽이 덜 비투과적이 되어 ϕ 체계와 좀 더 유사해져, 보다 나은 전도 능력을 갖는 데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한 접촉 장벽의 상태가 바로 <소통 Bahnung>의 정도라고 불린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기억은 **ψ 뉴런들 사이에 있는 소통에 의해 구현된다.**

뉴런 ψ 의 모든 접촉 장벽의 소통 정도가 똑같다면, 또는 (결국 같은 말이지만) 그것들이 모두 똑같은 저항을 나타낸다면, 기억의 특징은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흥분이 통과하는 길과 관련해서 볼 때, 기억은 분명히 그것의 길을 결정하고 그것의 방향을 정하는 힘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만약 소통이 어디나 똑같다면, 왜 어떤 길이 더 선호되는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정확히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할 것이다. 기억은 **ψ 뉴런들 사이에 있는 소통의 차이에 의해 구현된다.**

그렇다면 그 뉴런들[뉴런 ψ] 사이의 소통은 무엇에 달려 있는 것일까? 심리학적인 경험에 의하면, 어떤 경험의 기억(그 경험을 지속시키는 힘)은 인상의 강도라는 요인과, 동일한 인상이 반복되는 빈도에 달려 있다. 우리 관점을 이용하여 번역한다면, 소통은 흥분 과정에서 뉴런을 통과하는 양과 그 과정의 반복 횟수에 달려 있다. 그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양이 바로 작용요인이라는 사실과, 그 양은 <양 더하기 (+) 양에서 유래하는 소통>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뉴런 체계의 1차적인 노력-어떠한 변화를 거치더라도 지속되는-은 양의 과충을 피하거나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양을 감소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생의 절박성의 압력 때문에, 뉴런 체계는 양을 저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은 뉴런의 수를 늘려야만 하고, 그 뉴런들은 비투과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뉴런 체계는 소통을 확립함으로써, 적어도 어느 정도는 양으로 채워지는 것, 다시 말해 투여되는 것을 피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듯이, **소통은 [뉴런 체계의] 1차적 기능에 이바지한다.**

접촉 장벽의 이론에서 기억을 위한 자리를 찾아야 할 필요성은, 또 다른 사실을 불러온다. 즉, 일반적으로 모든 뉴런 ψ 는 다른 뉴런과의 여러 연결 통로-다시 말해 여러 접촉 장벽-를 갖고 있다고 상정해야 한다. 소통에 의해 결정되는, 길의 선택의 가능성은 바로 그러한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접촉 장벽의 소통 상태는, 동일한 ψ 뉴런 내의 다른 모든 접촉 장벽의 소통 상태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선택도-따라서 어떠한 동기도-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로부터 <소통> 상태의 본질에 대한 소극적인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 즉, 우리가 양으로 채워진-다시 말해 투여된-뉴런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양이 뉴런의 모든 지역-그것의 모든 접촉 장벽을 포함해서-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상상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유동적인 양의 경우, 우리는 그것의 뉴런을 통과할 때, 어떤 특정한 하나의 통로만 선택한다고 쉽게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하나의 접촉 장벽만이 유동적인 양의 작용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그것은 그렇게 실현된 소통을 간직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소통도 정체된 투여 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동일한 뉴런의 접촉 장벽들의 소통에 차이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과는 별도로, 소통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것[소통]은 접촉 장벽에 의한 양의 흡수라는 것이다. 아마 우리는 이 문제를 나중에 밝히게 될 것이다. 흡수 뒤에 소통을 남기는 양은, 정확히 투과성을 증가시키는 소통 때문에 분명히 방출된다. 게다가 반드시 양이 통과한 뒤 남는 소통이, 통과하는 동안 남았던 소통만큼 큰 것은 아니다. 아마 그것의 일부분만이 **영원한 소통**의 형태로 남는다. 또한 우리는 아직, 한 번에 통과한 어떤 양이 세 번에 걸쳐 통과한 어떤 양($Q:3\eta$)과 같을 때 효과도 같은지 말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나중에 이 이론을 심리적 사실에 적용할 때 해명될 성질의 것이다.

4. 생물학적 관점

이렇게 ϕ 와 ψ 의 두 뉴런 체계-전자는 투과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후자는 비투과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가 있다는 가설은, 뉴런 체계의 한 특성-[흥분을] 유지하고 수용하는 능력-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모든 심리의 획득은, 접촉 장벽에서의 저항(ϕ 와 ψ 를 구분 짓는)의 제거-부분적이고 장소가 결정된-를 통해 ψ 뉴런의 체계를 조직하는 데 있다. 그러한 조직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뉴런 체계의 수용 능력은 글자 그대로 한계[장벽]를 갖게 된다.

과학적인 가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가설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일치하고 적절해서 그 구성의 자의적인 성격이 완화될 때만,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것이다. 사람들은 접촉 장벽에 대한 우리의 가설이 완전히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두 범주의 뉴런을 가정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러한 구분을 정당화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반박할 것이다. 적어도 형태론적인(다시 말해 조직학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가정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그러한 두 범주를 구분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자연과학자의 눈으로 볼 때,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가능하다면 그 근거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뉴런 체계의 생물학적인 발달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는 그 두 부류의 뉴런이 생물학적으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면 어떤 기제가 투과성과 비투과성의 대립적인 특징을 발달시켰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6. 고통

[...] 질은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 외부 세계 속은 아니다. 왜냐하면 심리학이 빛을 지고 있는 자연 과학의 자료에 따르면, 거기에는 움직이는 덩어리[질량]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ϕ 체계 속인가? 그것은 질이 지각과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과는 일치하지만, 의식이 뉴런 체계의 상위 층에 있다는 정당한 주장에 의해 부인된다. 그렇다면 ψ 체계 속인가? 그러나 그것은 심각한 반대에 부딪힌다. ϕ 체계와 ψ 체계는 지각에서는 협력하지만, 단 하나의 심리 현상-재현 Reproduktion 또는 회상 Erinnerung-만은 오직 ψ 에서만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그 과정에는 질이 없다. 회상은 일반적으로 지각된 질을 특징짓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제3의 뉴런 체계가 존재한다고 과감하게 가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을 <지각 뉴런 ω >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것은 지각 중에서 흥분되지만, 재현 중에는 흥분되지 않는 것으로, 그것의 흥분 상태가 다양한 질-다시 말해 의식적 감각-을 제공하는 뉴런 체계이다.

자연 과학이 양만을 인정하는 반면에, 우리는 의식이 질만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면, 지각 뉴런 ω 의 특징은 마치 복비례(複比例, Regeldetri)에 의한 것처럼 나타난다. 왜냐하면 과학이 우리 감각의 모든 질을 외적인 양으로 환원시키는 역할을 하는 데 반해, 뉴런 체계의 구조는 그 체계의 역할이 외적인 양을 **질**로 변화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양을 벗어 버리려는 본래의 경향이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말초 신경 장치는 막을 구성해서, 외적인 양의 일부분만을 ϕ 에 작용하게 하는 반면에, ϕ 는 대충 양의 방출을 ψ 에 보장한다. ψ 체계는 높은 수준의 양에 대해 이미 보호되어 있으며, 세포 간의 크기에만 관계한다. 그에 따라, 우리는 ω 체계(W)가 훨씬 더 적은 양으로 움직인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질의 특징(다시 말해 의식적 감각)은, 양이 가능한 한 배제되는 곳에서만 나타나는 것 같다. 그렇다고 그것[양]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각 뉴런 ω 도 그것이 벗어 버리려고 하는 양이 투여된 것으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엄청난 난관에 부딪힌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투과성은 양의 작용에 달려 있는데 반해, 뉴런 ψ 는 이미 비투과적이다. 그리고 지각 뉴런 ω 은 훨씬 더 적은 양에 대해 훨씬 더 비투과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의식의 전달 수단(ω)에 부여할 수 없는 특징이다. 그[의식의] 내용의 무상성, 의식의 순간성, 동시에 지각된 질들이 쉽게 결합되는 것, 이 모든 것은 지각 뉴런 ω 의 완벽한 투과성-이전 상태로의 [완전한] 회귀를 동반하는-에 부합한다. 지각 뉴런 ω 은 지각 기관처럼 행동한다. 거기에는 기억을 위한 자리는 없다. 따라서 투과성, 즉 완벽한 소통은 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뉴런의 운동 주기, 시간적 특성]

15. ψ 에서의 1차 과정과 2차 과정

[...]

요컨대, 투여된 자아에 의해 역제가 실행될 때, ω 의 방출의 징후는 일반적으로 현실 징후의 역할을 하며, ψ 는 생물학적인 경험을 통해 그 징후를 이용하는 법을 배운다. 그러한 현실 징후가 나타나 자아가 어떤 욕망의 긴장에 사로잡히면, 방출은 특수 행동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만약 불쾌감의 증가가 현실 징후와 일치하면, ψ 는 적절한 크기의 측면 투여를 이용해 지시된 지점에서 정상적인 강도의 방어를 시작한다. 그러한 것이 전혀 일어나지 않으면 [즉, 현실 징후가 지각될 때 욕망의 상태도 불쾌감의 증가도 없으면] 투여는 소통 상황에 따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진행된다. 온갖 방어를 끌어들이는 불쾌감의 완전한 생산이나 환각에 이르는 욕망의 투여를, 우리는 <1차적 심리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자아의 효과적인 투여에 의해 가능해지고 1차 과정의 절제를 나타내는 과정을 우리는 <2차적 심리 과정>이라고 부를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후자의 전제 조건은 현실 징후의 정확한 내용-자아에 의한 역제가 있을 때만 가능해지는 사용-이다.

16. 인지[판단]와 재현적 사고[희상, 소원, 욕망, 기대, 실용적 사고, 관찰 사고, 이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우리는 자아에 의한 역제가 욕망하는 대상에 대한 투여의 약화를 가져옴으로써 그 대상의 비현실성을 인식케 한다는 가설을 내놓은 바 있다. 우리는 이제 그러한 과정에 대한 분석을 좀 더 밀고 나가려고 한다.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경우: 기억 이미지에 대한 욕망의 투여와 동시에 그것에 대한 지각[다시 말해 기억되는 대상에 대한 지각]이 나타나는 경우. 그렇게 되면, 그 두 투여는 일치한다(생물학적으로 이용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 현실 징후가 ω 로부터 일어나고 그 뒤에, 우리가 보았듯이, 방출이 성공적으로 이어진다. 이 경우는 쉽게 상상이 가는 경우이다.

두 번째 경우: 욕망의 투여가 있고, 그것과 전체적으로 일치하는 지각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지각이 그것에 동반되는 경우. 이 경우는 지각 투여가 결코 고립된 뉴런에 대한 투여가 아니라 뉴런 복합체에 대한 투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특성을 무시해 왔는데, 이제 그것을 고려해야 할 때다. 일반적으로 욕망의 투여는 <뉴런a + 뉴런b>와 관계하고, 지각 투여는 <뉴런a + 뉴런c>에 관계한다고 가정하자. 그것은 동일성의 경우[첫 번째 경우]보다 일반적이고 흔한 경우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고찰을 요구한다. 다시 한 번 생물학적인 경험에 따르면, 현실 징후가 복합체 전체가 아니라 그것의 부분만을 인정할 때 방출을 작동시키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유사성을 완전한 동일성으로 바꾸는 방법을 소유하고 있다. 즉 지각 복합체를 다른 지각 복합체들과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두 부분-전체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는 뉴런a와 거의 항상 변화하는 뉴런b-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한 분석 과정에 대해 언어는 나중에 <판단>이라는 이름을 부여한다. 분석 과정은 한편으로는 자아의 핵과 지각 복합체의 불변 요소 사이에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 속의 변화하는 투표와 지각 복합체의 변이 요소 사이에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언어는 뉴런a를 <사물 Ding>이라고 부르고, 뉴런b를 사물의 활동이나 특성-간단히 말하면 그것의 <속성>-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판단은 자아로부터 오는 역제에 의해서만 가능한 ψ 의 과정이다. 그 과정은 어떤 기억에 대한 욕망의 투여와 그것과 유사한 지각 투여 사이의 차이에 의해서 환기된다. 그러한 사실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그 두 투여 사이의 일치하는 사고 활동을 끝내고 방출의 시각을 허락하는 생물학적인 신호가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그 두 투여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그것들의 일치와 함께 멈췄던 사고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한 과정의 분석을 좀 더 밀고 나가 보자. 그 두 투여[욕망의 투여와 지각 투여]에 있어서 뉴런a는 일치하지만, 뉴런c가 뉴런b 대신에 지각된다면 자아의 활동은 뉴런c의 연줄을 따라 가게 되며, 그러한 연줄을 따라가는 양의 흐름에 의해 새로운 투여가 나타나게 된다. 그것은 행방불명의 뉴런b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된다. 대개 뉴런c와 뉴런b 사이에 삽입되는 것은 운동 이미지다. 일단 그러한 이미지가 실제로 일어나는 운동을 통해 되살아나면, 뉴런b에 대한 지각과 동시에 찾고 있던 동일성이 확립된다. 가령 [어린이가] 욕망하는 기억 이미지가 어머니의 젖가슴과 정면에서 본 그녀의 젖꼭지라고 가정해보자. 그

리고 첫 번째 지각이 동일한 대상의 측면 모습-젓꼭지가 보이지 않는-이었다고 가정하자. 그 아이의 기억 속에는 젓을 빨 때 경험한 우연한 체험-머리를 어떻게 움직이니가 정면의 모습이 측면으로 바뀌는 체험-이 간직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보이는 모습이 측면이라면, 그것은 곧바로 머리 움직임의 이미지로 연결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경험을 통해, 정면을 보기 위해서는 머리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 예에서 판단은 미미한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그 예는 우연한 특수 행동 중의 하나가 투여의 재현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소통된 뉴런을 따라가는 그러한 여정 밑에는 투여된 자아로부터 오는 양이 숨어 있으며, 그러한 여정이 소통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목표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 목표는 무엇일까? 어떻게 거기에 도달하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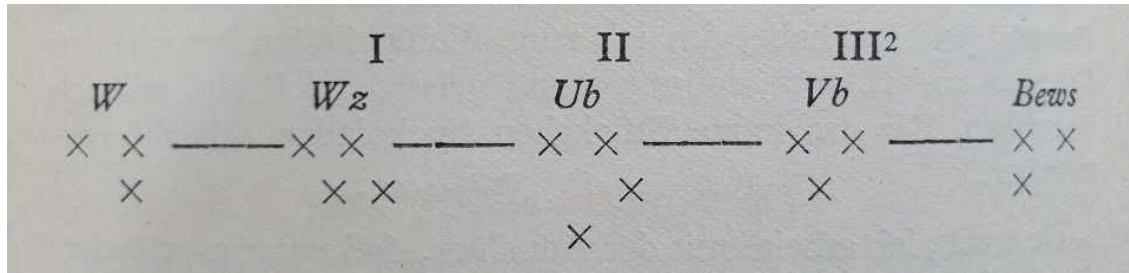
그 목표는 행방불명의 뉴런b로 돌아가서 동일성의 감각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뉴런b에만 투여되고 유동적인 투여가 뉴런b로 통하는 순간이다. 그것이 바로 양이 시험적으로 온갖 방향으로 이동될 때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 현재의 소통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그 소통과 반대로 움직여야 하느냐에 따라, 때로는 보다 크고 때로는 보다 작은 측면 투여에 대한 지출이 필요해진다. 이미 확립된 소통과 변화하는 투여 사이의 그러한 투쟁은, 1차적인 연상의 연쇄와 대조되는 재현적 사고라는 2차적 과정의 특징이다.”

이상에서 프로이트가 제시한 세 시스템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95년 상황에서 보듯, 프로이트를 뇌과학자로 보는 권택영, 캔델 등의 학자들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듯하다. 세미나 2권에서 라깡은 프로이트의 삶을 4 단계로 구분하는데, 이 단계를 첫 번째로 잡을 만큼, ‘과학적 심리학 초고’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Φ시스템	Ψ시스템	W시스템
제1차 기능이다 양(Qn)을 투과시킨다 수용하고 방출시킨다 주어진 것이다	제2차 기능이다. 양을 투과시키지 않으려 한다. 방출을 저지시킨다 만들어진 것이다	제3차 기능이다 Ψ뉴런의 양을 활용하여 질을 생산한다 쾌-불쾌의 생성소멸에 관계된다.
세 개의 뉴런 시스템		

(2) 『과학적 심리학 초고』와 『꿈의 해석』의 가교: ‘플리스와의 편지 52번’(1896년 12월 6일) in 『정신분석의 탄생』

“... 알다시피, 나는 지금 심리 기제가 성층화(成層化, ausfeinander(-)schichtung, vieldeutigkeit, surdétermination) 과정에 의해 확립된다는 가설을 연구하는 중이다. 기억 흔적의 형태로 된 현재의 재료는, 가끔 새로운 상황에 따라 **재배열, 재기록**된다. 나의 이론에서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은, 기억은 한 번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기록된다는 것과, 그것은 여러 종류의 <기호 signes>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나는 전에 실어증에 관한 연구에서, 말초 신경으로부터 시작되는[육체로부터 피질로 가는] 길에 대해 그와 비슷한 재배열의 개념을 가정한 적이 있다) 나는 그러한 기록(Niederschrift, registration)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른다. 그것들은 적어도 셋, 아니면 아마 그 이상이다. 다음 도표(도표7)는 그러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것은 여러 기록들이 운송 수단인 뉴런에 따라 분리된다(반드시 지형학적으로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한 가정이 필수적이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가장 간단하고 잠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도표7>

W(Warnemung)는 지각이 시작되고, 의식이 부착되는 뉴런이다. 그 자체로는 일어난 일의 어떠한 흔적도 갖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의식과 기억은 서로 배타적**이기 때문이다.

Wz(Warnungszeichen, 지각-신호)는 지각에 대한 최초의 기록(die erste Niederschrift der Warnemungen)이다[Nieder(아래로)+schrift(기록)]. 그것은 의식될 수 없으며, 동시성에 의한 연합에 따라 배열된다.

Ub(Unbewußtsein)는 두 번째 기록(die zweite Niederschrift)이다. 그것은 다른 연합-아마도 인과관계-에 따라 배열된다. 무의식의 흔적은 아마 개념적인 기억과 일치한다. 이것도 의식으로 접근할 수 없다.

Vb(Vorbewußtsein)는 언어 표상과 결부된 세 번째 새로운 기록(die dritte Umschrift)으로, 공식적인 자아와 일치한다. 전의식으로부터 나오는 투여는 어떤 법칙에 따라 의식화된다. 시간적으로 좀 더 나중에 나타나는 그러한 2차적인 의식-사고는, 아마 언어-표상의 환각적인 활성화와 결부되어 있다. 그래서 의식 상태의 뉴런은 지각 뉴런이 되는 것이고, 그 자체로는 기억과 무관한 것이다.

내가 지각과 세 가지 기록의 심리학적 특성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나는 새로운 심리학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한 자료는 있지만, 당장 그것을 그러한 목적에 이용할 생각은 없다.

나는 연속적인 기록들이 연속적인 삶의 시기들의 심리적인 생산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두 시기의 경계에서는 심리적인 재료의 번역이 이루어진다. 나는 정신신경증(Psychoneurose)의 특수성을, 어떤 재료들의 번역(die Übersetzung)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것은 어떤 결과는 가져온다. 왜냐하면 나는 질적인 편향균등(qualitative Ausleichung, 질적 편향)을 향한 경향이 있다(Wir halten ja an der Tendenz zur qualitative Ausleichung fest. 한국어본과 붙여본은 <양적인 균등>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항상성의 원리, ϕ -system ψ -system ω -system]. 모든 새로운 기록은 앞선 기록을 방해하고, 그것[앞선 기록]으로부터 흥분 과정을 자기 자신에게로 빼돌린다. 만약 새로운 기록이 생기지 않는다면, 흥분은 앞선 심리 시기를 지배하는 심리 법칙에 따라, 그리고 그 당시에 열려 있던 길을 따라 흐른다. 그리하여 시대착오적인 것이 존속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어떤 지역에서 아직도 푸에로가 존재하고, 과거의 흔적이 살아남아 있는 것과 같다.

번역의 실패를 우리는 임상에서 **억압**이라고 부른다. 그것의 동기는 항상 번역에서 생기는 불쾌감이다. 모든 것은 마치 그 불쾌감이 번역 과정을 방해함으로써 사고를 교란시키는 것처럼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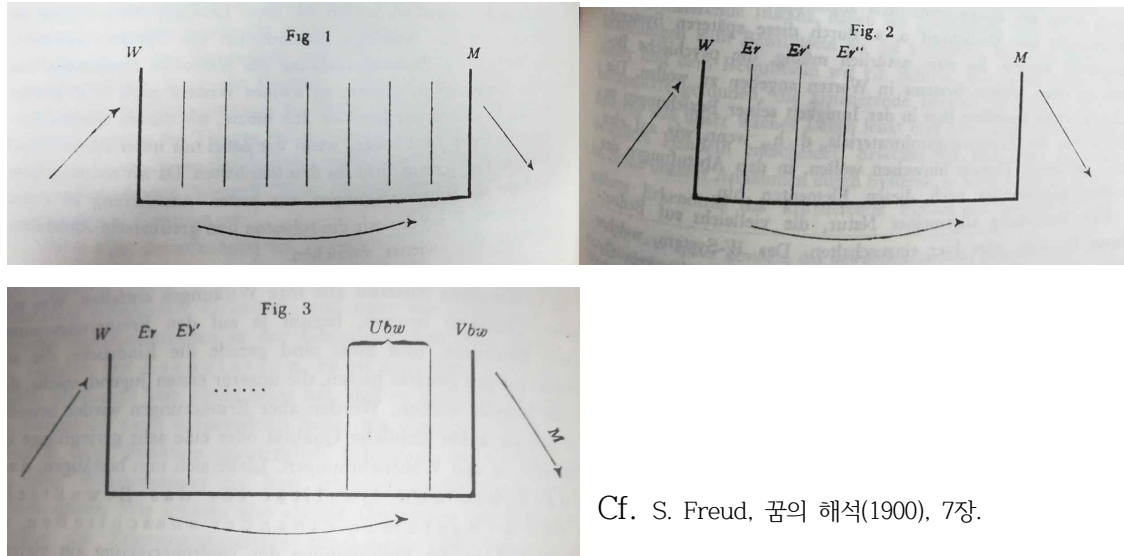
이와 같이 ‘편지 52’는 『과학적 심리학 초고』와 『꿈의 해석』의 가교역할을 하는 주요한 자료이다. 이 편지는 프로이트가 바라본 인간 뇌의 작동원리, 심적 기능을 잘 보여준다.

(3) 제1차 위상(무의식, 전의식, 의식): 『꿈의 해석』(1899.12) 7장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1900년) 제7장 ‘꿈의 심리학’에서 정신기관을 도표로 보여준다. 그 당시까지는 주로 정신기관을 ‘영-혼-육’ 또는 ‘일자-(지성-정신)-질료’의 구도에서 논의하였다면 프로이트는 ‘지각조직-(기억-무의식-전의식-의식)-운동조직’으로 설명한다. 즉, 이 구도는

기억과 세 심급(무의식-전의식-의식, 즉 제1차 위상)이 지각조직과 운동조직과 맺는 관계를 설명하면서 몸과 정신의 관계를 설명한다.

① 프로이트, 『꿈의 해석』(1900), 기표론(論), 제1차 위상(Unbewußt-Vorbewußt-bewußt)



Cf. S. Freud, 꿈의 해석(1900), 7장.

‘조립된 기구로서 정신기관’을 보여주는 이 기관은 심급(Instanz) 또는 조직(System)이라 부르는 구성성분을 갖는데, 지각조직에서 유입된 것이 기억에 저장되고, 그 기억은 ‘무의식-전의식-의식’의 심급의 과정을 거쳐 운동조직으로 표출되는 성분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무의식은 육체와 정신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 프로이트는 다윈이 사용한 missing link(잃어버린 고리)를 사용하여 육과 정신을 잇는 것으로서 무의식을 말한 바 있다.¹⁾ 프로이트는 이 기관을 만들게 된 연유를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심리학적 토대를 고수하면서, 정신활동에 봉사하는 기구를 조립된 현미경이나 사진기,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하라는 요구만을 따를 생각이다. 심리적 소재는 영상이 형성되기 이전의 한 단계가 성사되는 기구 내부의 한 장소에 상응한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현미경이나 망원경에서 이것은 부분적으로 관념적인 장소, (즉) 눈으로 볼 수 있는 기계성분은 전혀 없는 장소이다. 나는 이것이나 이와 유사한 비유들의 불완전함을 양해해 달라고 당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비유들은 심리적 기능을 분해하여 세부적인 기능들을 기관의 세부적인 구성 성분에 할당하면서 기능의 복잡함을 이해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내가 알기로 정신 기구의 구성을 그런 식으로 분해하여 헤아려 보려는 시도를 한 사람은 아직까지 아무도 없다. 그러한 시도는 별다른 위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우리가 냉정한 판단력을 잃지 않고 골조를 (건물로: 필자 추가) 오인하지만 않으면, 자유롭게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프로이트, 『꿈의 해석』(서울: 열린책들, 2004), 623-6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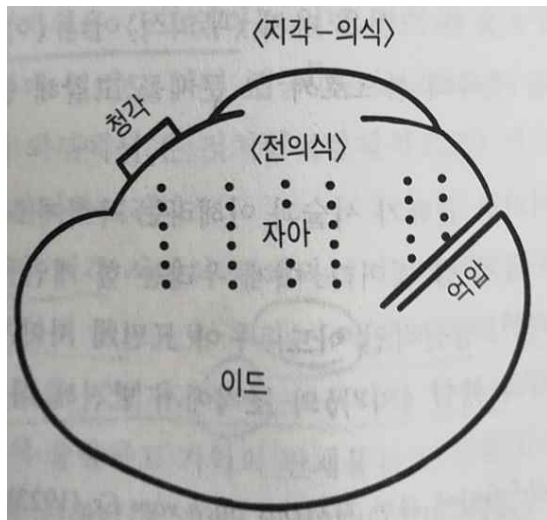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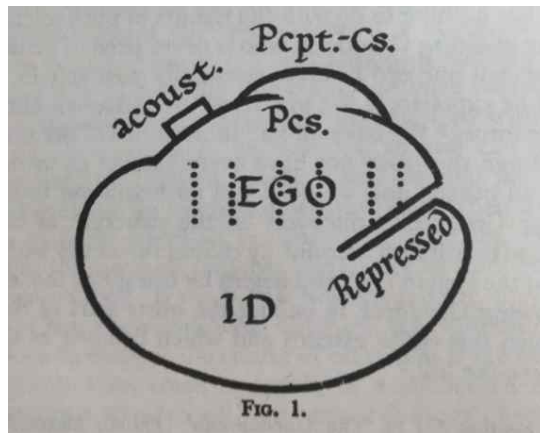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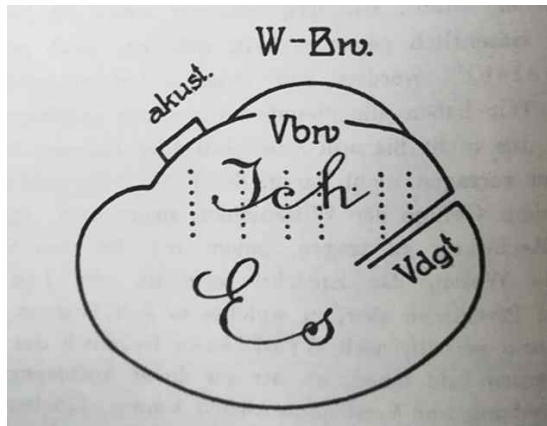
그는 정신기관의 활동에 봉사하는 기구를 ‘기억-무의식-전의식-의식’으로 설정하는데, 이것은 건축시 사용하는 비계(das Gerüste, l'échafaudage, 飛階, 骨組)이고 건물(der Bau, 즉 정신)은 아니라고 말한다. 기억에서 시작된 프로이트의 비계는 스카이어와 캔델에게로 이어진다. 그들은 “기억은 우리의 정신적 삶을 하나로 결합하는 접착제요, 우리의 개인적 역사를 지

1) Georg Groddeck, *Ça et Moi*(Gallimard, 1977), 44. 이 내용은 1917년 5월 27일 그로데크가 프로이트에게 보낸 첫 편지에 질문한 것에 프로이트가 답한 것(1917년 6월 5일 편지)에 나온다. Cf. 르 바게레즈, 강웅섭 옮김, ‘그로데크’, in 장-다비드 나지오, 이유섭 외 옮김, 『프로이트, 페렌치, 그로데크, 클라인, 위니코트, 돌토, 라캉 정신분석 작품과 사상』(한동네, 2019. 11.18)

탱하고 우리가 사는 내내 그 역사가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게 해주는 비계(飛階, scaffolding)다.”(스콰이어와 캔델, 10)라고 말한다. 무의식은 이런 기억에서부터 짝이 났다. 『과학적 심리학 초고』와 ‘편지 52’의 결론부인 『꿈의 해석』은 심적 작용, 뇌의 작용에 관한 프로이트의 견해를 잘 담고 있다.

2) 2차 위상(이드, 자아, 초자아): 「자아와 이드」 2장(1923년), 『새로운 정신분석 강의』 31장(193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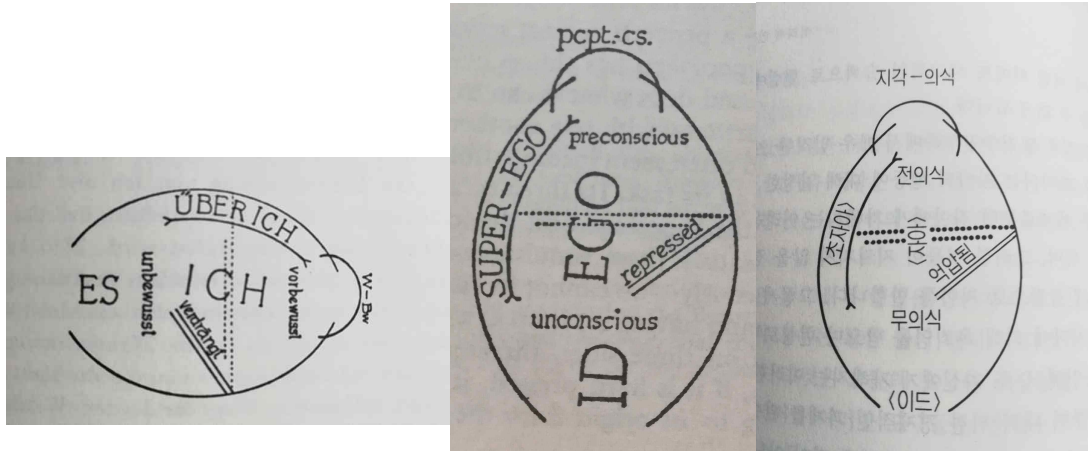
(1) 프로이트, 「자아와 이드」(1923), 제2차 위상(Es Ich Uberich), 1923년 도식에서 Uberich(Superego, 초자아)는 그림에 반영되지 않았다.



Cf. S. Freud, *The Ego and The Id*, 1923, ch.2.

「자아와 이드」(1923)는 제2차 위상의 완전한 형태를 그림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초자아라는 수직구도의 질서를 도입할 필요성을 느낀 프로이트의 과감한 수정이라고 볼 수 있다.

(2) 프로이트, 『새로운 정신분석 강의』(1932), 1932년 도식에서 Überich(Superego, 초자아)는 그림에 반영되었다.



Cf. S. Freud, *New Introductory lectures*, 1932, ch.31.

『새로운 정신분석 강의』(1932)는 제2차 위상의 형태를 그대로 담고 있다. 그런데 제2차 위상의 요소 간의 역할에 대해 해석이 분분해지는 소지를 남겼는데, 이것이 번역본에 그림 변형으로 나타났다. 수평구도와 수직구도를 살리고자 했던 프로이트의 의도가 영어와 한글 번역본에서는 왜곡되고 있다.

2. 라캉이 말한 언어처럼 짜인 무의식

프로이트가 제시한 정신은 전통적 구도인 위에서 아래로의 수직적 구도 또는 아래서 위로의 수직적 구도와는 달리 수평적 구도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데이터와 몸의 상관관계에서 이해하는 유물론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전통적인 구도가 수직적 ‘개방’ 구도를 제시했다면, 프로이트는 대상과의 ‘개방’ 관계를 추구한다. 그가 상징하는 대상은 그 겉이 매우 중층적 의미(vieldeutigkeit, surdétermination)를 지닌다. 그 겉은 수평적 구도로 제한할 수 없을 만큼 펼쳐진다. 프로이트식 Interpersonal은 ‘내담자와 대상’이다. 이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Interpersonal을 상징하는 그룹과는 다르다. 이런 논의는 프로이트가 『집단 심리학과 자아 분석』(1921년) 제7장 ‘Identification’²⁾에서 제시한 정체화의 세 구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체화는 동일시, 동일화, 같아지기 등으로 번역되는데, 뫼의 정체화, 가짐의 정체화, 상호적 정체화라는 상이한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것은 정신의 질서, 정신의 발달을 구조적으로 본 것이다. 처음 두 개의 정체화가 수직적 구도(부모와 아이(나)의 삼각구도, 오이디푸스 구조)라면, 마지막 정체화는 수평적 구도(아이(나)-동기간 등)이다. 이것에 기반하여 라캉은 세미나 9권 『정체화(Identification)』³⁾에서 제1범주의 정체화, 제2범주의 정체화, 제3범주의 정체화로 구분한다. 프로이트와 라캉의 구도는 상징계 전체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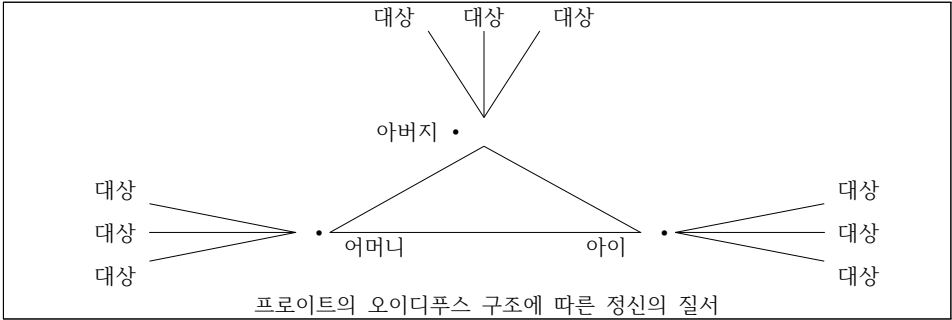
프로이트에게서 수평적 구도는 삼각 구도에서 파생되는 동기간 구조(Sibling Structure)를 취한다.⁴⁾ 프로이트가 제시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아이의 몸(육체)과 정신이 연결되는 과정

2) 프로이트, “집단 심리학과 자아 분석(1921년)”, 『문명 속의 불만』(서울: 열린책들, 2013), 114-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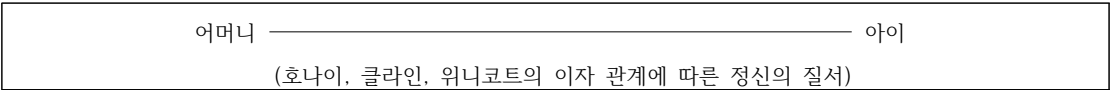
3) 라캉이 1961-1962년 행한 미출판 세미나.

4) Cf. 줄리엣 미첼, 『동기간- 성과 폭력』(서울: 도서출판b, 2015). 티나 로젠버그, 『포레압력은 어떻게 세상을 치유하는가 - 소속감에 대한 열망이 만들어낸 사회 치유의 역사』(서울: 알에이치코리아(RHK),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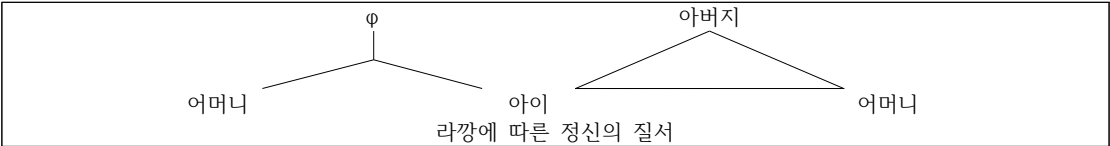
을 설명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증상은 몸과 정신의 불협으로 인한 고통지점이다.



프로이트와 라캉을 잇는 가교적인 위치에 위치하는 카렌 호나이와 멜라니 클라인 그리고 안나 프로이트와 클라인의 논쟁에서 독립적인 노선을 취한 위니코트는 삼각구도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자구도를 제시한다. 어머니의 경험을 갖고 있는 이 두 여성 정신분석가는 어머니와 아이의 2자 관계가 삼각구도를 선행한다고 말하면서 삼각구도 이전의 한 단계를 설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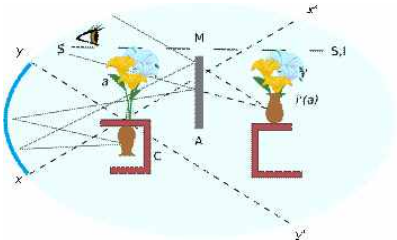


하지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구조를 삼각관계 위에 세운 프로이트의 입장에 대해 라캉은 세미나 4권 『대상관계와 프로이트의 구조들』(1956-57년)에서 2자 관계에도 이미 제3의 요소가 있다고 말하면서 ‘어머니-아이- ϕ ’라는 3자 관계를 제시한다.



라캉이 2자 관계에서 삼각 구도를 찾아내는 것은 아이의 몸과 정신의 관계를 논하는 근본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즉, 방해자 없이 순수한 측면, 상상적 관계에 놓인 관계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라캉은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에서 제시한 정신의 질서인 제1차 위상(무의식-전의식-의식)과 제2차 위상(이드-자아-초자아)을 변형한 형태를 제시한다. 그는 그 형태를 세 짝인 비계 Imaginaire-symbolique-r el로 제시한다. 라캉은 프로이트가 말한 정신의 위상들을 따라가면서 거울도식(그림)으로 정리한다. 아래에 제시된 ‘두 개의 거울로 만든 도식’은 ‘프로이트에 따른 정신의 위상들에 근거하여 만든 ‘뒤집어진 꽃다발 실험’이라는 그림⁵⁾을 변형한 것이다.



두 개의 거울로 만든 도식: 정신의 비계⁶⁾

5) 라캉, 『자크 라캉 세미나 01권-프로이트의 기술론』(새물결, 2016),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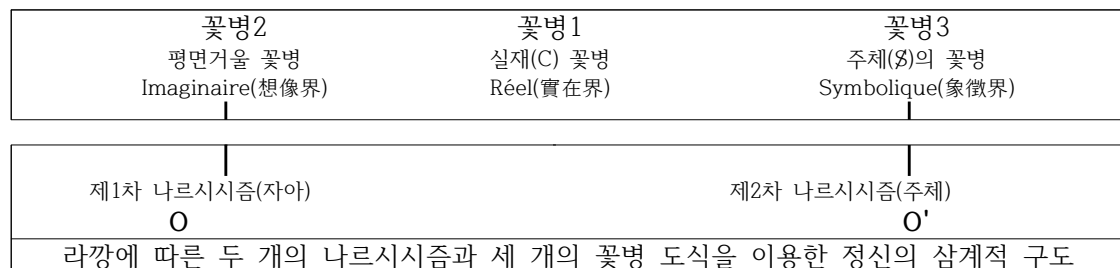
6) 라캉, 『자크 라캉 세미나 01권-프로이트의 기술론』(새물결, 2016), 226.

이 그림을 만드는 과정에서 라캉은 정신분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프로이트를 오인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다시 그림을 제시한다고 말한다. 아래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비계 구조물과 건물 자체를 혼동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마치 충고란 지키지 않기 위해 있는 것인 양 우리가 프로이트 이후 줄곧 비계 구조물을 건물 자체와 혼동해왔다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한 편, 제가 감히 하나의 도식을 만들 어볼 엄두를 내게 된 것은 프로이트가 어떤 미지의 사태에 접근하기 위해 보조적 관계들을 활용 해도 좋다고 우리에게 허락해주었기 때문입니다.(라캉, 『자크 라캉 세미나 01권-프로이트의 기술 론』(서울: 새물결, 2016), 138)

여기서 혼동은 몸(육)과 정신을 동일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라캉은 프로이트가 말한 missing link처럼, 몸과 정신 사이에 있는 잃어버린 고리인 무의식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무의식은 골조(비계)와 건물 자체 사이에 있는 것으로서, 이 둘을 잊지만 그 이름방식을 알기 위해서는 정교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거울그림을 프로이트가 제시한 욕동의 이원성과 연결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세 개의 꽃병은 논리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시간적인 의미에서 각각의 위치를 점하면서 정신기관에 각인된다. 어떻게 각인되었는지 보기 위해 인문과학이나 자연과학은 다양한 도구를 개발하여 진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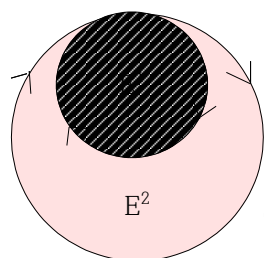
이와 같이 세미나 1권에서 다룬 정신의 삼계적 구조가 ‘인공지능(Cybernétique, 인공두뇌학)’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라캉은 세미나 중에서 유일하게 프로이트와 정신분석에서의 자아 문제를 다룬 세미나 2권(1954-55년)에서 거론한다. 이 세미나에서 M. Hyppolite는 ‘기계’라는 용어의 역사를 다루면서, 인공지능에 이르는 시기까지 그 용어의 의미가 변했는지 질문하고, 라캉은 “기계의 의미가 완전히 변하고 있는 중이다(le sens de la machine est en train de changer complètement)”(S.2, 44)라고 답한다. 그러면서 제기하는 것이 언어(le langage, 언어활동)이다. 인문과학이 ‘언어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면, 정신분석은 ‘언어는 어디서 오는가?’를 질문한다고 말하면서, 언어의 본질(nature, S.2, 339)을 따진다. 즉, 라캉은 “언어는 외부에서 온다(le langage est venu du dehors)”(S.2, 147)고 말한다. 정신분석과 인공지능의 상관축은 언어활동(langage, 339)이 아니라 언어의 본질(la nature du langage, 339)이다. 인문과학을 추측의 학, 인공지능을 정확의 학(또는 결합의 학, S.2, 345)이라고 말하는 라캉은 덧붙여서 통사론의 학, 실재와 통사론의 결합학으로서 인공지능(S.2, 351)을 말한다.

라캉에게서 언어(le langage, 언어활동)는 무의식을 짜는, 구조화하는 본질을 갖는다. 즉, 프로이트가 제기한 missing link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시 말해, 프로이트가 외부와 몸을 잇는 ‘잃어버린 고리’로서 무의식을 상정했다면, 라캉은 이를 더 구체화시켜서 ‘언어활동처럼 구조화된 무의식(l'inconscient structuré comme langage, 세미나 3권, 11권)’을 말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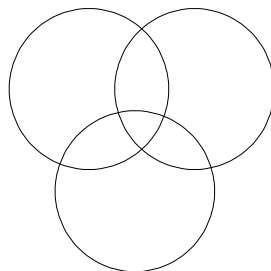
여기서 언어(le langage, 언어활동)는 이중기표에 의해 형성된다. 이것은 기호가 기의와 기표로 구성된다는 전통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기호가 의미를 가지려면 환유적 기표와 은유적 기표의

만남으로 된다고 말한다. 이런 만남을 표현하기 위해 라깡은 함수, 위상기하학 등을 이용하여 설명하고자 했다.

$$f(S...S')S \cong S(-) \cong -\frac{S}{S} \text{ (환유적 기표)} \quad f(-\frac{S'}{S}) \cong S(+) \cong \frac{S}{S} \text{ (은유적 기표)} \quad [\text{이중기표론}]$$



(거꾸로된 8)



(보로메우스 매듭, *Encore*)

이처럼 언어처럼 짜인 무의식은 몸과 정신 사이에서 이 둘을 엮는 역할을 한다. 즉, 무의식은 언어활동(language)에 의해 엮인 몸과 정신의 흔적을 드러낸다. 철저하게 외부에서 유입된 언어활동에 의해 짜이는 구조를 갖는 무의식은 빅데이터는 어디서 오는가 하는 질문과 만나게 된다.

프로이트에게로 돌아가자고 한 라깡은 문자를 이중기표론으로 이해하였고, 이 시도는 무의식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열었다. 특히 이것과 인공지능 간의 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고 볼 수 있다.

3. 프로이트와 라깡, 그리고 AI의 이해

프로이트가 제1, 2차 위상으로 외부와 내부 간의 관계를 설명하려 한 것은 라깡에게서 거울도식에 반영되어 세 개로 구성된 비계로 드러났다. 세미나 2권에서 이폴리트는 ‘기계가 생각하는가’라고 라깡에게 질문하였는데, 라깡에게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공지능(Cybernétique, 인공두뇌학)’은 새로운 기계의 출몰에 대한 당대인들의 고민거리였다. 라깡은 이것을 풀기 위해 ‘언어활동(langage)’이란 키워드를 제시했다. 언어활동(langage)으로 이뤄지는 생각은 언어학에서 말하는 언어활동과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언어활동에서 차이를 만든다. 이 차이에 대해 세미나 2권(1954-55년)에서 라깡은 언어의 본질이 외부에서 오는가, 아닌가의 여부를 거론했다.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사유하는 인간행위를 다루는 것이 정신분석이라면, 외부에서 주어진 것으로 작업하는 인공지능은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정신분석과 동일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제1차 인공지능 연구가 1956년 여름 다트머스대학에서 열린 ‘다트머스 하기 인공지능 연구계획’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데(이광형, 9), 이것과 비교할 때 시기적으로 이른 1954-55년에 행한 세미나 2권에서 언어활동의 본질을 다룬, 1955-56년에 행한 세미나 3권에서 ‘언어처럼 짜인 무의식’을 드러낸 라깡은 인공지능을 어떤 관점에서 보았는지 앞서 잠깐 살펴보았다. 당시 라깡이 인공지능의 개발 흐름을 알았다면, 그 과정은 어떠하였을지, 그 이전 상황을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1920년대부터 나온 인공신경망은 프로이트가 만든 정신분석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캠브리지대학교에서 생화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Henry Murray는 그 해(1927)에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가르친다. 1938년에는 정신분석학과 심리학을 연결하면서 “personality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집필하였는데, 이때 “뇌의 작용”(brain processes)을 말했다(Murray, 191). 이것은 인간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의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는 고전적 인공지능, 소위 인간지능의 특정 기능만을 대체하는 부분적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의 시대였다. 이 당시는 프로이트가 제시한 위상과 심급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Henry Murray(1938)와 John

Dollard(1950) 이후, Matthew Hugh Erdelyi(1985)에게서, 최근에는 Eric R. Kandel(2006, 2008)에게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과 비슷한 객체로서의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이 등장하게 되었다. 인공지능이 성립가능하려면 인간과 같은 유연성을 갖고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기계, 즉 문제해결 시스템, 패턴인해 시스템, 학습 시스템으로 기능하는 기계가 필요하다. 학습(learning)은 기억과 그 기억의 응용을 포함한다. 즉, 타인이 찾아낸 정리나 발견 등의 지식에 대한 기억, 경험이나 노하우의 지식에 대한 기억, 이런 기억들이 새로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귀결되는 것이 바로 학습(시스템)이다.

초기의 인공지능은 선택의 경우의 수에 따른, 탐색 알고리즘에 따른 트리 탐색(search tree) 또는 탐색 가지(search branch)처럼 모색되었다. 가령, 트리 탐색의 인공지능처럼 한 가지 줄기씩 모두 탐색하는 ‘깊이우선탐색(depth-first search, DFS)’과 같은 높이의 노드들을 모두 방문하며 내려가는 ‘너비우선탐색(breadth-first search, BFS)’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 모색되었다. 이런 시도는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최초의 시도로서 의미가 있었지만 간단한 게임과 같은 정형화된 상황에만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이었을 뿐, 인간이 마주하는 현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은 아니었다.

그래서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이 고안되었다. 즉, 많은 양의 지식을 인공지능이 판단하게끔 하는 지식추론 기반이 고안되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결국 미완의 시도로 끝이 났다.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판단은 매우 ‘애매한’ 조건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종합적’ 판단 때문이었다. 이것을 수행하기에 인공지능은 충분하지 못했다.

이처럼 전문가 시스템 기반의 인공지능 한계 한계들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인공지능의 패러다임이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머신 러닝)’이다. 기계학습은 기존의 논리, 추론 위주의 인공지능과는 달리, 경험을 통해 쌓인 데이터로부터 귀납적으로 판단을 내린다. 이는 인간의 학습방법과도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어떠한 규칙에 따라 판단하거나 축적된 경험의 ‘패턴’을 통해 판단하듯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을 시도해보았다.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인 기계학습은 21세기의 새로운 키워드로 떠올랐다. 기계학습은 인간의 사전 지식(prior knowledge)에 의존하기보다는 데이터 그 자체에서 의미 있는 판단을 뽑아내는 데 중점을 둔다. 다시 말해, 기계학습은 경험(experience)을 통해 특정 작업(task)의 성능(performance)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이는 몇 가지 특정한 사건들보다 다수의 사건에 대한 경험을 통해 그들의 추세(패턴)를 학습한 뒤, 이를 기반으로 판단을 내린다. 이것이 ‘패턴인식(Pattern Recognition)’인데, 전통적인 통계학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기계학습은 주어진 훈련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의 패턴을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질문에 대하여 예측(prediction)한다.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과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으로 구분되는 기계학습은 훈련데이터(초기 패턴을 학습할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하게 주어진 데이터)에 조건 X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정답(또는 라벨) Y까지 주어져 있는 지도학습이 중심이 되는데, 이때 주어지는 값에 따라 수행력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 방법 또한 한계를 드러냈다. 다시 말해, 기계학습 이전의 고전 인공지능은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인간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판단하는 논리 기계와 유사했다. 하지만 세상일은 워낙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고 일반적인 규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도 종종 발생하다 보니 실제 문제의 적용에 있어서 고전 인공지능은 무한한 케이스들에 대한 끝없는 수정과 보완을 필요로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케이스들 모두를 대응할 수 없기에 기존의 인공지능은 단순한 문제에만 적용 가능한 불완전한 인공지능일 수밖에 없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딥러닝이다. 딥러닝의 기원에 대해 세즈노스키는 “인공지능을 창출하는 방법

에 관한 두 가지 다른 시각이 경합을 벌이던 1950년대의 인공지능 태동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세즈노스키, 2019, 25)고 말한다. 즉 “하나는 로직과 컴퓨터 프로그램에 기초한 시각으로 수십 년 동안 인공지능 세계를 지배했으며, 다른 하나는 데이터로부터 직접 학습하는 방식에 기초한 시각으로 성숙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세즈노스키, 2019, 25.)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컴퓨터의 성능과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언어 때문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마치 사람의 뇌가 수많은 신경세포들에 의해 움직이듯이 인공지능도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고, 여기서 딥러닝(Deep Learning) 또는 딥뉴럴네트워크(Deep Neural Network)와 같은 기술이 나왔다. 이 기술은 많은 수의 노드들을 연결하여 연결값을 훈련시키면서 데이터를 학습하여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든다. 딥러닝은 이러한 네트워크들을 층층이 쌓은 것이다. 이것은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중층결정’(vieldeutigkeit, surdétermination)과도 비교할 수 있는데, 이런 면에서 빅데이터는 중층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딥러닝은 인간지능이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과 유사한데, 마치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처럼, 모서리, 변, 면 등의 하위 구성 요소부터 시작하여 나중엔 눈, 코, 입과 같이 더 큰 형태로의 계층적 추상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수행하려면 방대한 하드웨어 용량이 필요하다. 그것이 충족되면서 딥러닝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수많은 뉴런과 깊은 신경망을 학습하는 딥러닝은 GPU를 이용한 병렬처리 연산의 발달과 함께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딥러닝은 이미지 인식과 자연어 처리라는 두 가지 문제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한다. 가령, 이미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자막을 자동으로 달아주는 것이다. 즉, 본 것을 말로 표현하는 인간지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딥러닝은 미래 인공지능 기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기술은 이미지 인식 등의 분야에서는 이미 인간의 오차율을 넘어섰으며, 지금까지 불가능하다고 본 일들을 해내고 있다.

이런 기술의 발달과 변화는 빅데이터(정형화된 데이터 및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한다. 빅데이터 분석은 사회과학에서 다루는 방법론들(Methodologies)과 연속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다시 외부로 나가는 것들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가령, Animal testing, Archival research, Behavior epigenetics, Case study, Content analysis, Experiments, Human subject research, Interviews, Neuroimaging, Observation, Psychophysics, Qualitative research, Quantitative research, Self-report inventory, Statistical surveys 등의 방법론은 내부에서 외부로 나간 것들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기술 발달과 사회과학 방법론의 만남으로 빅데이터를 해석하는 방식은 여러 방면에서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는 프로이트 라캉식 정신분석적 방법론이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언어활동처럼 구조화된 관점에서 본다면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외부로 보내 자료들, 즉 빅데이터는 이미 사회과학의 방법론들이 분석해왔다. 빅데이터는 대용량 데이터(정형화된 데이터 및 비정형화된 데이터)의 집합체, 빅데이터 전문가란 대용량 데이터(정형화된 데이터 및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수집, 필요한 데이터를 정제(가공) 및 분석, 통계 내는 일이다. 흩어진 많은 자료를 분석, 통계하여 원하는 것을 끌어낸다. 예전에는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얻었는데, 최근에는 티버즈(Tibbuzz), 텍스트 마이닝 등을 활용한다. 데이터 분석은 인문학적 영역을 통해서도 이루지지만 사회과학 방법론과 인문과학 방법론이 매우 상이하고, 기술영역을 사회과학이 더 가까워서 접근하다 보니 인문과학의 위치가 소외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분석학이 인문과학에 가까운 영역이라고 볼 때, 정신분석학은 기술에 의해 파생된 기술적 데이터나 사회학적 데이터를 해석하는데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프로이트-라캉-A.I.의 만남은 multi-disciplinary, inter-disciplinary, trans-disciplinary 등으로 확대해 가면 여러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이런 사례가 작년과 올해, 한울아카데미 출판사에서 기획한 ‘포스트휴먼 시대의 인공지능 철학 1, 2’ 『인공지능의 존재론』과 『인공지능의 윤리학』을 통해 제시되었다. 물리학, 전자공학, 철학 등을 전공한 학자들이 두 권의 저서를 통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쟁점들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다.

인공지능 연구를 크게 두 개의 축으로 본다면, 데이터를 입력하던 시기와 그 데이터를 끌어내어 사용하는 시기로 나누기도 한다. C언어, C++, 자료구조, JAVA, JSP, Spring, Python, 리눅스빅 운영체제, 오라클, 하둡, R 등 통계분석 프로그래밍과 컴퓨터의 언어는 입력하는 도구이자 입력된 빅데이터를 끌어내어 분석하는 도구이다. 빅데이터는 집단적인, 군중적 성격을 지닌다. 컴퓨터 언어활동처럼(에 의해) 짜인 빅데이터는 언어활동처럼(에 의해) 짜인 무의식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타자에 의해 짜인 무의식은 타자의 언어활동에 의해 짜인다. 언어활동 그 자체의 작동원리를 모른다고 해도 짜이는 것이 있듯이, 컴퓨터 언어활동 그 자체의 작동원리를 모르지만 컴퓨터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행위는 바로 짜이는 것 자체이다. 짜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분석이 요청되는데, 그 분석이 다양할 수 있다. 집단적인 성향을 지닌 빅데이터는 정체화의 제3의 경우와 비교할 수 있다. 정체화의 제3의 경우는 정체화의 제1, 2의 근거 위에 세워진다. 그렇기에 정체화의 제3의 경우에서 제1과 2를 추정할 수 있다. 바렐라는 “정신분석과 인공지능에서 마음을 집합적 사회로 보는 개념이 대상관계이론으로 수렴하는 것은 매우 놀랍다.”(『몸의 인지과학』, 184)고 말하면서 대상관계이론이 제한된 개방적 측면을 갖는다면 “라캉적 분석은 예외가 될 수 있”(186)다고 보았다. 또한 바렐라는 달라드와 밀러의 행태론적 학습이론에 의한 프로이트의 재이론화, 에르델라의 인지론적 정보처리언어로 번역된 프로이트의 이론 등 “이런 작업은 무의식과 같은 프로이트적 개념을 오늘날의 과학적 용어로 번역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96)고 말한다. 그럼에도 라캉의 경우는 이와는 다르다고 이 문장에 바로 이어서 말한다. “하지만 유럽의 많은 현대적 후기프로이트 이론가들, 예를 들어 자크 라캉 같은 이들은 이런 점에 반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공평한 설명이 될 것이다. 이런 과학적 언어로의 번역은 정신분석과 정의 핵심적 정신을 자세히 말해 무의식을 포함해서, 표상들의 모든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을 오히려 살리는 것이 아니다.”(96) 바렐라가 말하는 무의식의 심리과정에 대한 극단적이면서도 독특한 현대 인지론적 입장이 라캉이 말하는 언어처럼 구조화된 무의식인지 잘 알 수 없지만, 라캉의 사유가 인지론적 사유를 배격할 것이라는 바렐라의 견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어쩌면 라캉의 사유는 빅데이터를 해석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며, 인지과학적 입장과도 논의가 가능한 사유가 될 것이다. 라캉의 입장과 인지과학적 입장을 비교하는 것은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을 비교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렇기에 프로이트, 라캉, 인공지능간의 대화를 모색한다는 것은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을 비교하는 관점과는 다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바렐라가 프로이트와 관련된 연구자들을 소개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은 전체에서 볼 때는 지협적인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처럼 프로이트와 라캉이 언급하는 정신의 지도가 인간지능의 지도로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서도 현실에서 쟁점이 되고 있듯이, 프로이트와 라캉이 제시하는 정신의 작동과정이 인공지능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지 그 가능성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프로이트, 라캉, AI간의 대화는 가능한가

프로이트와 라캉이 말하는 인간지능의 형성과정과 프로그래머들이 설계한 인공지능의 형성과정이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지능이 포함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데이터가 포함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따져봐야 된다. 데이터는 단순히 데이터인가, 아니면 그 데이터에서 희노애락이 나오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면 그것은 인간지능과 인공지

능 간의 윤리 문제로 확대된다. 인간 윤리의 대상이 되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가령, 악플 댓글 사건을 본다면, 악플을 쓴 이는 사람인데, 그 데이터를 검색하는 이는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은 검색하는 이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단순히 검색만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인공지능이 단지 그렇게만 검색을 할까 하는 문제도 제기될 수도 있다. 인공지능이 선악을 분별하여 검색을 해 준다면 인간지능에 가까운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인간지능 또한 선악이라는 판단 기준에 의해 검색하지는 않을 것이다. 입력된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검색하는 것 간의 관계는 인간지능을 닮은 인공지능을 개발하고자 하는 이의 의도일 텐데, 과연 그 의도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프로이트식 구조의 인간정신 모델처럼 인공지능이 작동한다면 어떻게? 지금은 다행이라면 다행으로 ‘비인간적인’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있다. 즉, 파괴가 아닌 생산 위주의 인공지능, 휴식이 아닌 24시간 작업하는 인공지능이다. 어쩌면 선을 추구하는 듯한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다. 인간이 에너지를 끊지 않는 이상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일한다. 인간지능의 통제 하에서(프로그래머의 작업 하에서, 작업 지시자와 프로그래머와의 계약 하에서) 인공지능은 작용한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 작업이 계약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상징체계 안에서 자본을 매개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 추구되는 것도 산업혁명 이후 자동화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사용자와 작업자 간의 계약에 의해 실행된다. 자본이 흘러가는 쪽으로 기술은 발전하는데, 자본을 역행하는 쪽으로 기술이 발전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을 실행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공지능(기술)을 통제하는 것은 계약, 즉 자본이다. 프로이트는 인간지능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억압’이라 불렀다. 이 기제가 작동하는 정도에 따라 증상이 발생되기도 한다. 프로이트에게서 억압은 A.I.에게서는 프로그래머에 의한 설계에 해당한다. 즉, 인간지능을 닮은 인공지능을 개발인 것이다. 와이즈만이 ‘기술은 이미 성별화되어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Wajcman, 1991/2004). 인공지능도, 인간지능이 성별화된 기술에 의해 제품을 만들 듯, 성별화된 기술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프로이트가 제시하는 많은 기제가 있는데, 이것과 A.I.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라캉의 경우는 어떠한가? 라캉식 담론과 A.I. 담론은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의 해석 문제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다. 라캉식 이중기표론 등의 이론은 A.I.가 제시한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문자’에 대한 이런 식의 사유가 있다면, A.I.가 검색해주는 데이터 분석을 다른 각도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유를 배우면 악플이나 무분별한 데이터를 접했을 때 그것을 읽고 이해하는 힘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사유가 우선 A.I.를 설계하는 이에게, 그리고 데이터를 해석하여 글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이에게, 그리고 악플 등에 노출된 이에게 섭렵되어 공유된다면, 인간지능이 인공지능과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1950년대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외면 받아 왔던 기술인 딥러닝(정형화된 데이터 분석에서 비정형화된 데이터 분석으로의 이행으로서 딥러닝)은 미래의 인공지능의 주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딥러닝이 이끄는 인공지능의 미래가 인간지능과 어떤 구도에서 진행될 것인지, 정신분석가인 프로이트와 라캉이 말하는 인간지능의 심급과 위상과는 어떤 면에서 공유되면서도 비공유되는지도 함께 고려해 보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기술의 언어, 사회과학의 언어, 정신분석의 언어가 다르게 규정되는 상황에서 서로가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고 간격을 좁혀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 기회를 통해 필자가 알지 못하는 언어활동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대화의 기회가 주어진에 감사드리면서 이 글을 맺는다.

참고문헌

- 강응섭, 『한국에 온 라캉과 4차 산업혁명』, 세창, 2018.
- 강응섭-백승희, ‘인공지능이 따라하지 못할 인문학적 뇌와 인간의 양면성(창조성과 한계)에 도전하는 인공지능’ in 『현대정신분석』, vol. 21-2.
- 고인석, 목광수, 박충식, 신상규, 이상옥, 이영의, 이종원, 정재현, 천현득, 『인공지능의 존재론』(포스트휴먼 시대의 인공지능 철학 1), 한울(한울아카데미), 2018.
- 고인석, 목광수, 박충식, 신상규, 이상옥, 이영의, 이종원, 정재현, 천현득, 『인공지능의 윤리학』(포스트휴먼 시대의 인공지능 철학 2), 한울(한울아카데미), 2019.
- 권택영, 『생각의 속임수: 인공지능이 따라하지 못할 인문학적 뇌』, 글항아리, 2018.
- 장-다비드 나지오, 이유섭 외 옮김, 『프로이트, 페렌치, 그로데크, 클라인, 위니코트, 돌토, 라캉 정신분석 작품과 사상』, 한동네, 2019.
- 라캉, 『자크 라캉 세미나 01권-프로이트의 기술론』, 새물결, 2016.
- 티나 로젠버그, 『포래압력은 어떻게 세상을 치유하는가 - 소속감에 대한 열망이 만들어낸 사회 치유의 역사』, 알에이치코리아(RHK), 2012.
- 르 바게레즈, 강응섭 옮김, ‘그로데크’, in 장-다비드 나지오, 이유섭 외 옮김, 『프로이트, 페렌치, 그로데크, 클라인, 위니코트, 돌토, 라캉 정신분석 작품과 사상』, 한동네, 2019.
- 줄리엣 미첼, 이성민 옮김, 『동기간- 성과 폭력』, 도서출판b, 2015.
- 프란시스코 바벨라 외, 석봉래 옮김, 『몸의 인지과학』, 김영사, 2013(1991).
- 송길영, 『여기에 당신의 욕망이 보인다, 빅 데이터가 찾아낸 70억 욕망의 지도』, 쌤앤파커스, 2014.
- 테런스 J. 셰즈노스키, 안진환 옮김, 권정민 감수, 『딥러닝 레볼루션: AI시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2019.
- 스펠버그, 스티븐 (2001). <A.I.(에이 아이, Artificial Intelligence)>.
- 아리스토텔레스, 유재원 옮김, 『영혼에 관하여』, 공리, 2001./ 아카넷, 2018.
- 이광형 이병래, 『인공지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9.
- 정재승, 『열두 발자국: 생각의 모험으로 지성의 숲으로 지도 밖의 세계로 이끄는 열두 번의 강의』, 어크로스, 2018.
- M. 존슨, 노양진 옮김, 『마음 속의 몸, 의미 상상력 이성의 신체적 근거』, 철학과 현실사, 2000(1987).
- 조선일보 미래기획부, 『미래의 미래』, 흐름출판, 2016.
- 에릭 캔델, 전대호 옮김, 『기억을 찾아서, 뇌과학자의 살아있는 역사 에릭 캔델 자서전』(2006), 알에이치코리아(RHK), 2014.
- 래리 스퀴이어, 에릭 캔델, 전대호 옮김, 『기억의 비밀-정신부터 분자까지』(2008), 해나무, 2016.
- 프로이트, 임진수 옮김, 『정신분석의 탄생』, 열린책들, 2004.
- 프로이트, 김인순 옮김, 『꿈의 해석』(1900), 열린책들, 2004.
- 프로이트, 김석희 옮김, ‘집단 심리학과 자아 분석’(1921), 『문명 속의 불만』, 열린책들, 2013.
- 프로이트, 박찬부 옮김, ‘자아와 이드’(1923),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열린책들, 2004.
- 프로이트, 임홍빈, 홍혜경 옮김, 『새로운 정신분석 강의』(1933), 열린책들, 2004.
- John Dollard, *Personality and Psychotherapy, An Analysis in Terms of Learning, Thinking, and Culture*, New York Toronto London: McGraw-Hill Book Company, Inc., 1950.
- Mattew Hugh Erdelyi, *Psychoanalysis, Freud's cognitive Psychology*, New York: W.H. Freeman and Company, 1985.
- Sigmund Freud, ‘Briefe 52’, ‘Anhang I. Entwurf einer Psychologie’, *Aus den Anfängen*

- der Psychoanalyse*, Imago Publishing, 1950.
- Sigmund Freud, 'Lettre 52', 'Esquisse d'une psychologie scientifique', *La naissance de la psychanalyse*, PUF, 1956(New York, 1950.)
- Sigmund Freud, 'Extracts From The Fliess Papers(1950 [1892-1899])', 'Project For a Scientific Psychology(1950 [1895])'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Translated fro the German under the General Editorship of James Strachey, In Colloboration with Anna Freud, Assisted by Alix Strachey and Alan Tyson, Editorial Assistant: Angela Richars, Volume I (1886-1899) Pre-Psycho-Analytic Publications and unpublished Drafts, London: The Hogarth Press and The Institute of Psycho-Analysis, 1966.
- Jacques Lacan, *Séminaire 1, Les écrits techniques de Freud*, Paris: Seuil, 1975.
- Jacques Lacan, *Séminaire 2, Le moi dans la théorie de Freud et dans la technique de la psychanalyse*, Paris: Seuil, 1978.
- Jacques Lacan, *Séminaire 4, La relation d'objet et les structures Freudiennes*, Paris: Seuil., 1994.
- Jacques Lacan, *Séminaire 20, Encore*, Paris: Seuil, 1975.
- Henry Murray, "Some proposals about personality" in Hendrik M. Ruitenbeek(Ed), *Varieties of Personality Theory*, New York: E. P. Dutton & Co., Inc., 1964.
- Henry Alexander Murray, *Explorations in Personality*(193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Judy Wajcman, *Feminism Confronts Technology*, Pennsylvania: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1.
- Judy Wajcman, *TechnoFeminism*, United Kingdom: Polity Press, 2004.

정신분석과 빅데이터와의 대화 가능성 :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토론문

권택영 (경희대)

강교수님의 발표문은 도전적이고 탐색을 향해가는 문제제기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저의 이해를 넘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요약하면 인간 정신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 및 작용되는지를 다루었던 프로이트와 라캉의 담론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해석하는데 어떤 면에서 기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접근하기 위해 발표문은 프로이트의 심급이 형성되는 과정과 이 과정이 라캉이 말한 언어처럼 짜인 무의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이 두 과정이 현재 진행 중인 AI의 빅데이터와 대화할 수 있는지를 모색합니다.

그는 우선 프로이트의 1차 위상(기억, 무의식, 전의식, 의식)을 ‘과학적 심리학 초고’(1895년)와 ‘플리스와의 편지 52번’(1896년))를 중심으로 풀어냅니다 그리고 2차 위상(이드, 자아, 초자아)을 ‘Ego and Id’ (1923년),에 나타난 유명한 도식으로 설명합니다. ‘과학적 심리학의 초고’는 원래 프로이트 자신은 발표하지 않았던 글입니다. 뇌과학자로서 프로이트가 야망을 가지고 초기 글이지요. 1950년대에 이르러 에른스트 크리스에 의해 출판되고 2000년 이후 학계에서 중요한 글로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에릭 칸델의 말처럼 아주 난해한 글입니다. 이 글과 플리스에게 보낸 편지를 자세히 도식과 함께 서술한 부분에서 난해함을 파고든 강교수의 학문적 열정이 돋보입니다.

질문 1 : 프로이트는 지각에 이바지하는 투과성 뉴런(어떠한 저항도 보이지 않으며 아무것도 붙잡아 두지 않는)과 비투과성 뉴런(저항하고 양을 유지하는)이 있다고 분류합니다. 이 두가지 뉴런은 프로이트가 평생 연구하고 실천한 기억에 관한 이론의 초고로 보입니다. 1925년에 출판된 <신비한 글쓰기 패드에 대한 소고> 에서 어떻게 초기의 핵심사상이 반복되는지 간략히 설명해주십시오. 오늘 날 많은 심리학자와 뇌과학자들의 기억과 인지에 관한 이론들은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질문 2 : 두 부분-전체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는 뉴런a와 거의 항상 변화하는 뉴런b-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한 분석 과정에 대해 언어는 나중에 <판단>이라는 이름을 부여한다. 분석 과정은 한편으로는 자아의 핵과 지각 복합체의 불변 요소 사이에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 속의 변화하는 투표와 지각 복합체의 변이 요소 사이에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언어는 뉴런a를 <사물 Ding>이라고 부르고, 뉴런b를 사물의 활동이나 특성-간단히 말하면 그것의 <속성>으로 본다.

이 부분에서 마지막 줄 “언어는 뉴런a를 <사물 Ding>이라고 부르고, 뉴런b를 사물의 활동이나 특성-간단히 말하면 그것의 <속성>으로 본다.”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해주십시오, 이것과 라캉의 언어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빅데이터와 연결해 볼 수는 없는지요?

질문 3 : 프로이트의 1차 위상은 무의식- 전의식- 의식이고 2차 위상은 이드-이고-수퍼입니다. 왜 프로이트는 이렇게 수정하는가요, 이 차이는 무엇인가요? 혹시 자신의 가설을 삼분법으로 오해받지 않으려했던 것은 아닌가요? 이드가 전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수퍼이고는 이드의 변형이고 위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수퍼이고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드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빅데이터는 이드가 변형된 수퍼이고가 되는 것인가요?

질문 4 : 라캉의 세미나 2에서 M. Hyppolite는 ‘기계’라는 용어의 역사를 다루면서, 인공지능에 이르는 시기까지 그 용어의 의미가 변했는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라캉은 “기계의 의미가 완전히 변하고 있는 중이다(S.2, 44)라고 답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어활동에 관해 말합니다. 인문과학이 ‘언어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면, 정신분석은 ‘언어는 어디서 오는가?’라고 질문한다고 말하면서, “언어는 외부에서 온다”고 답합니다. 실재와 통사론의 결합학으로서 인공지능이란 무엇인지요?. 이 부분 쉽게 설명해주세요. 강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처럼 짜인 무의식은 몸과 정신 사이에서 이 둘을 엮는 역할을 한다. 즉, 무의식은 언어활동(language)에 의해 엮인 몸과 정신의 흔적을 드러낸다. 철저하게 외부에서 유입된 언어활동에 의해 짜이는 구조를 갖는 무의식은 빅데이터는 어디서 오는가 하는 질문과 만나게 된다.”

즉“외부에서 주어진 것으로 작업하는 인공지능은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정신분석과 동일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인지요? 현실원칙, 혹은 상상계를 말씀하시는 것 인지요?

질문 5 : 기술 발달과 사회과학 방법론의 만남으로 빅데이터를 해석하는 방식은 여러 방면에서 전개되고 있다. 라캉의 사유는 빅데이터를 해석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며, **인지과학적 입장과도** 논의가 가능한 사유가 될 것이다. 라캉의 입장과 인지과학적 입장을 비교하는 것은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을 비교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렇기에 프로이트, 라캉, 인공지능간의 대화를 모색한다는 것은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을 비교하는 관점과는 다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다르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요? 혹시 대안이 있으시다면 듣고 싶습니다.

질문 6 : 인간지능의 통제(프로그래머의 작업) 하에서 인공지능은 작용한다. 프로이트는 인간지능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억압’이라 불렀다. 이 기제가 작동하는 정도에 따라 증상이 발생되기도 한다. 프로이트에게서 억압은 A.I.에게서는 프로그래머에 의한 설계에 해당한다. 즉, 인간지능을 닮은 인공지능을 개발인 것이다. 그렇다면 AI 의 무의식은 자료들인가요?

질문 7 : 인공지능의 발전과정에서 딥러닝은 기존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했다고 보시는지요? 실제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모호성, 결정과정의 종합성, 우연성, 유연성의 문제를 딥러닝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네트워크들을 층층이 쌓은 것이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중층결정’과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좀 더 설명해주시시오. 최근 인지 심리학이나 뇌과학에서는 감정이 인지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 논문의 중요한 결론은 “기술의 언어, 사회과학의 언어, 정신분석의 언어가 다르게 규정되는 상황에서 서로가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고 간격을 좁혀가는 노력” 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AI 가 정신분석의 언어를 구현할 수 있을 때 인간과 가장 닮게 되지 않을까요?

인문사회의학 관점에서 바라본 조현병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시간, 사건 그리고 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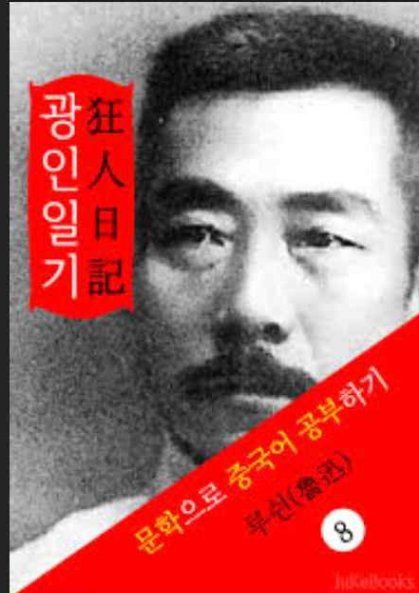
- 세상은 시공간 속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공간만 본다. 눈이 공간을 보기 때문이다. 시간을 보는 눈을 얻은 자가 있다면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시간 속에 무엇이 있는가? 사건이 있다. 사건으로 보는 관점을 얻어야 한다. 세상은 존재가 아니라 사건이다.



루쉰(노신)

광인일기

- 아침에 조심해서 집을 나서니 고귀영감의 눈길이 이상하였다. 나를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없애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7,8명이 소근소근 귓속말을 하며 나를 욕하는 자들이 있었다... (중략)
- 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소름이 오싹하였다. 놈들이 완전히 차비를 갖추었구나, 생각하였다.



MADNESS OF HUMAN BE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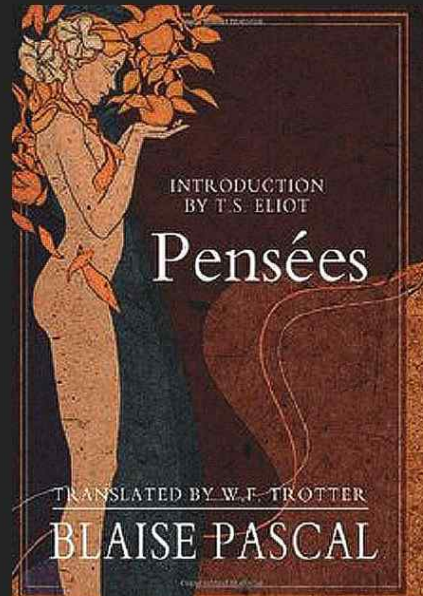
- ▶ 나는 별들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 ▶ Issac Newton(1642-1727)
- ▶ 17세기 주식 투자 광기
 - ▶ 네덜란드 튜립
 - ▶ 영국 남해회사
 - ▶ 프랑스 루이지애나 개발
- ▶ 1876년 : 마크 트웨인의 광기와 파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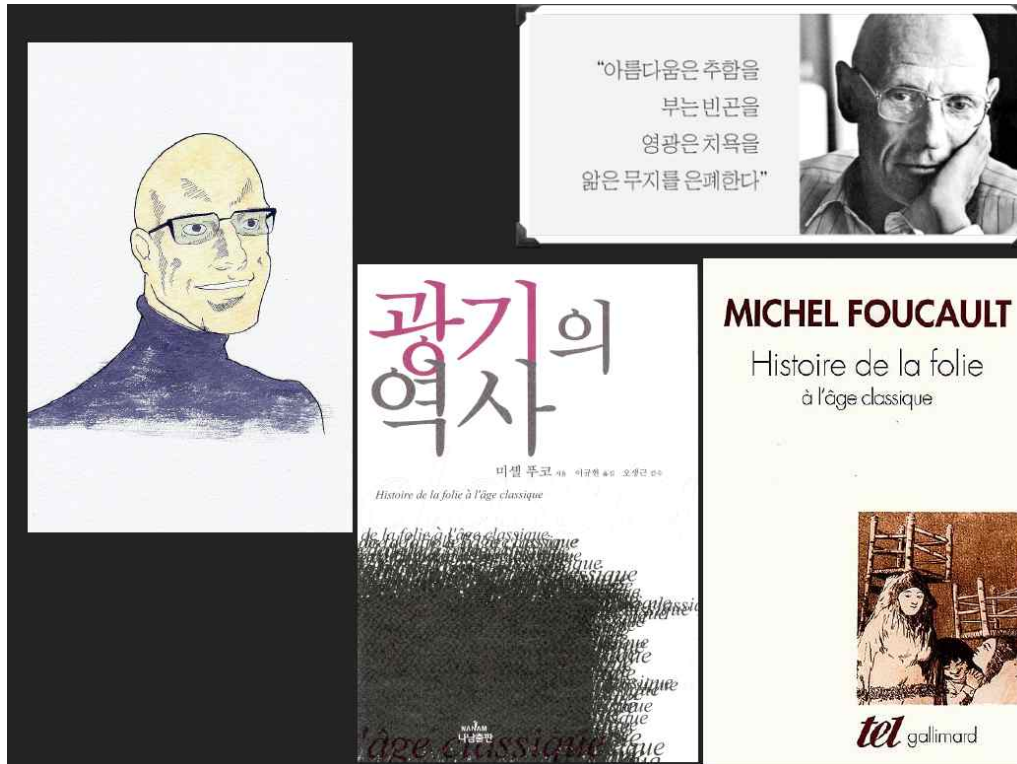
광인은 인간이 아니다?

- 나는 손과 다리, 머리가 없는 인간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고가 불가능한 인간은 결코 상상할 수 없다.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 돌맹이거나 야수이기 때문이다

파스칼, “팡세”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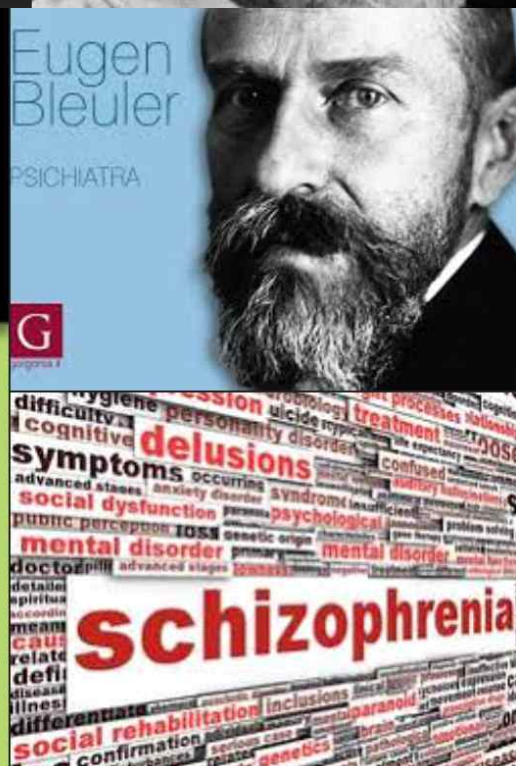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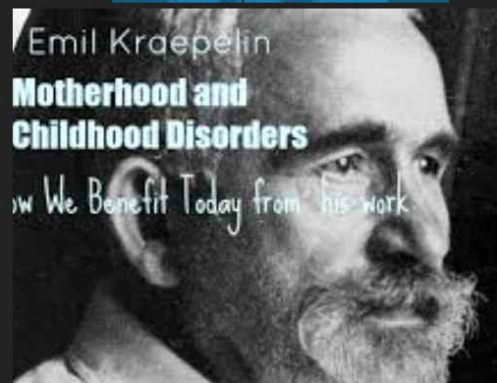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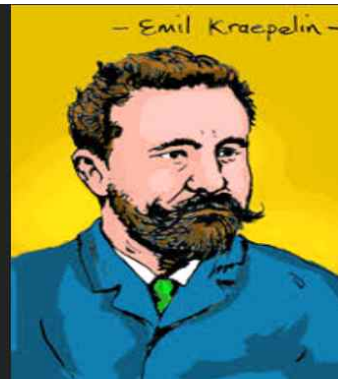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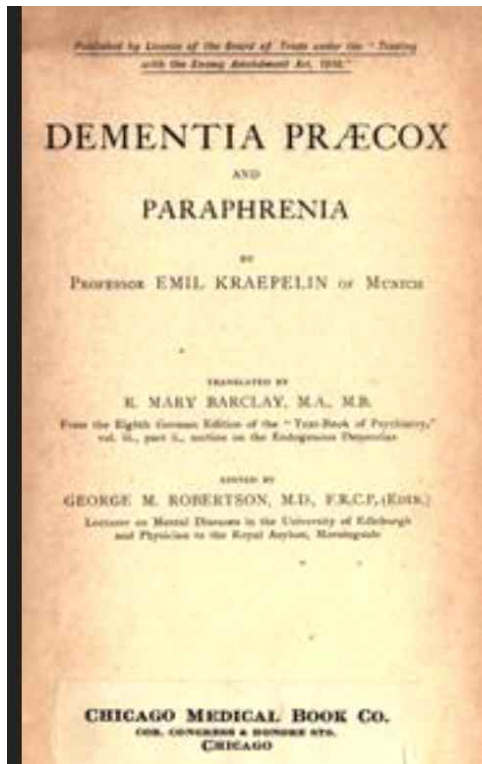


WHAT IS THE DEFINITION OF SCHIZOPHRENIC REACTION?



미셸 푸코의 개념

- 감금의 시대
- 광인의 감금을 시대적 양심의 종말
- 임상의학의 출현 : 근대국가로서의 통제
- 질병을 가진 사람과 이를 통제하는 사람
- 나환자 수용소의 부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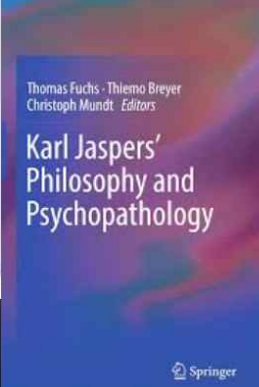
Adolf Meyer
 He is the founder of psychobiology. According to him, Schizophrenia and other mental disorders are reactions to life stresses and called the syndrome as schizophrenic reaction.

Kurt Schneider

- First Rank Symptoms
- *Clinical Psychopathology*
- Based on his study of the *Schwabing cohort*
- Identified a group of symptoms characteristic to schizophrenia
- Based on clinical experience



1887-1967



Thomas Fuchs · Thilo Breyer
Christoph Mundt · Editors

Karl Jaspers' Philosophy and Psychopathology

Sprin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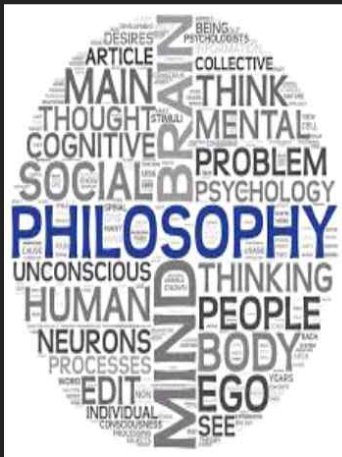


Symptoms of Schizophrenia

- ◆ Schizo(split, 분열)
- + Phrenia(황경막, 인간의 마음)
- ◆ 현실과 지각의 분열을 경험
- ◆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의 혼돈
- ◆ 판단력, 지각력의 현저한 손상
- ◆ 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

Schneider's first rank symptoms

- Hearing thoughts spoken aloud
- Third person hallucination
- Commentary hallucination
- Thought withdrawal or insertion
- Thought broadcasting
- Delusional perception
- Passivity experiences : experience of the mind or body being under the influence or control by external power



생각할 주제

존재와 사유

과학 VS. 인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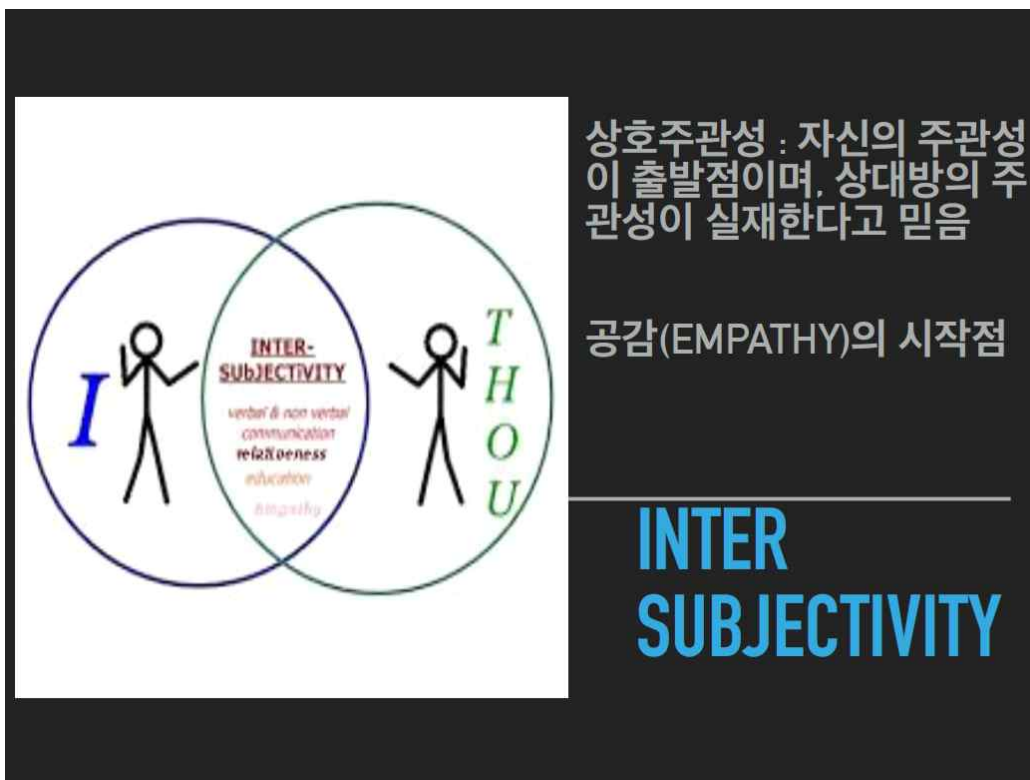
- ▶ 과학은 그리스 로마시대의 metaphysics로 출발 사물의 본질을 추구해가는 학문
- ▶ 17세기 산업혁명 이후는 science로 구체화
- ▶ 근거중심, 보편성, 설명가능, 원인을 추구해 가는 환원적 접근
- ▶ 과학과 인문학의 근본적인 차이는 '은유'의 존재
- ▶ Science는 literal, 문자 그대로의 힘을 상징

철학의 대전제 : 존재와 사유의 관계성

- ▶ 서양의 근대철학은 존재와 사유의 일치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
- ▶ 존재는 객관성, objectivity 혹은 reality
- ▶ 어떤 사람이나 나무나 그 사물 자체, 인간에 의해서 채색되지 않은 그 사물, 그 자체를 의미 : thing in itself
- ▶ 사유는 주관성, subjectivity, 주체성, 정신을 의미
- ▶ 사유는 그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 ▶ 근대철학을 지탱하는 힘 : 존재와 사유의 일치 - God only Know

근대 철학의 시작 : 인식론, 경험론의 등장

- ▶ 데카르트 : cogito, ergo sum - 생각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
- ▶ 존재와 사유의 일치를 와해시킨 것 : 경험론
- ▶ 우리가 직접적인 경험을 넘어서 세계에 대해 얘기하는 것들, 특히 형이상학적인 믿음들은 모두 경험을 넘어서는 것들
- ▶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것, 만져지지 않는 것, 느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사유는 의미가 없다 : 경험철학의 대두
- ▶ E. Kant 인간의 인식론 대두 : recognition - 다시 생각한다는 의미



Ipseity

(ip-se-ity)

(n) Selfhood; Individual
Identity, Individu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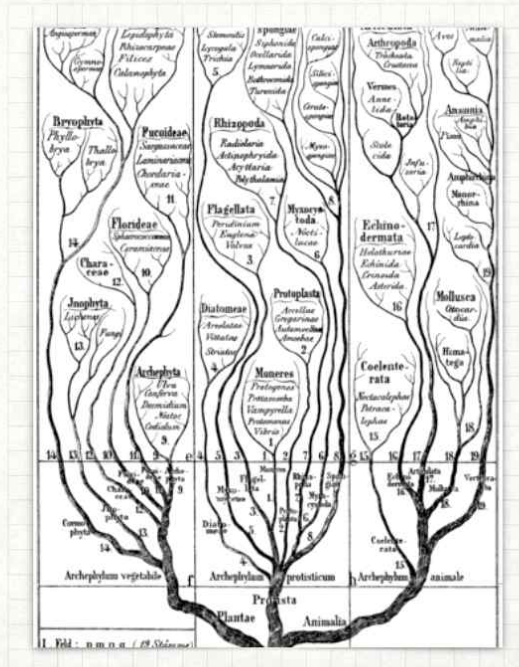
LaWhimsy/Word Nerd

직접적이고, 암묵적인
자아존재감, 무의식적 인식

환자의 경험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수목형 구조

동일성을
전제로 하는
세상



기존 시스템 내부에서 사유하는 방식

- 수목형으로 사물을 구별하고 정의하는 방식은 우리 삶에 매우 익숙한 구조이다
- 현대 과학의 방법론은 수목형 구조를 따른다
- 가설을 전제로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기각하느냐의 방법
- 그러나 이런 방식은 이 세상에 실제하는 중요한 많은 현상들을 포섭하지 못한다
- 시스템 혹은 기존 질서에 맞지 않는 창조적 공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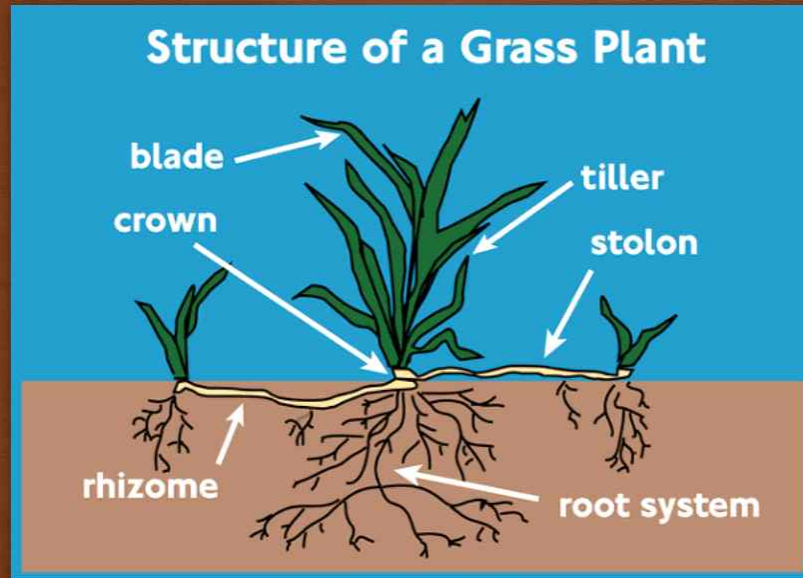


동일성에 사로잡힌 차이

- 세상은 결코 동일성이 전제로 된 세상이 아니다
- 이분법에 따른 관념들로 설명할 수 없다
- Mental Health 본질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때이다
- 정신건강은 진보, 보수 개념으로 나눌 수 없다
- 정상과 비정상의 개념은 더욱 아니다



리좀 개념에 따른 세상



정신건강 개념과 순수차이

- 리좀 개념의 세상은 원래 존재하는 것이다
- 통제의 방식에 익숙하다면, 우리는 카테고리를 정한다. 더 이상 새롭지 않다. 따라서 정신분열병의 증상이 카테고리화될 필요는 없다.
- 각 리좀의 차이는 '순수 차이'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창조적인 기능만을 이끌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예를 들어, 통합되지 못하는 리좀이 수없이 존재할 때 인간 마음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정신분열병의 증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의 분화는 일반적인 카테고리로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 망상과 환각의 두 요소를 다 나타낼 수도 있고, 수동성과 능동성 사이에 걸친 행동도 많다. 따라서 증상의 개별성을 이해하는데 리좀구조는 유용할 수 있다
- 리좀의 이해는 동일성에 사로잡힌 차이를 구분하는데 유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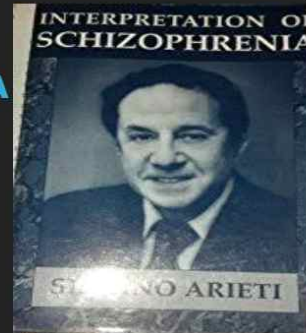
SILVANO ARIETI(1914-1981) : INTERPRETATION OF SCHIZOPHRENIA

◆ Teleologic Regression

- 모든 정신병의 증상은 목적이 있다
- 증상은 동전의 양면이다
- 아픔과 동시에 방어

◆ Von Dornmarus Rule

- 주어끼리의 동일시가 아닌 술부끼리의 동일시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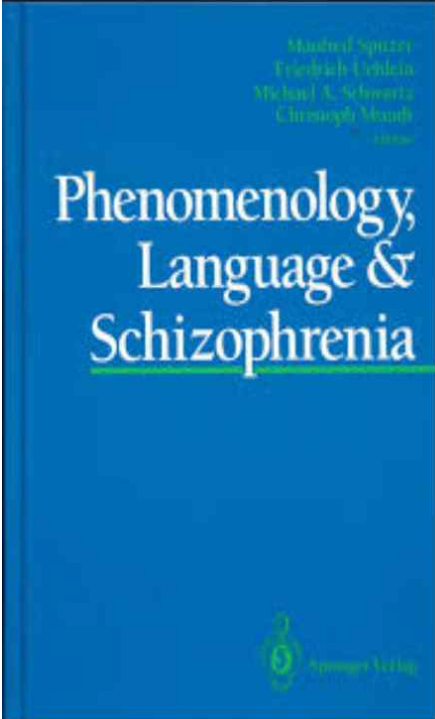
문화인류학 관점

◆ 정신분열병, 원시인, 어린애, 꿈, 무의식

◆ Because 에 대한 해석

- 정신분열병
: for the purpose of
- common sense
: on account of





▶ **CONNOTATION**

- 함의적 언어가 줄어들

▶ **DENOTATION**

- 외연적 언어가 증가

▶ **VERBAL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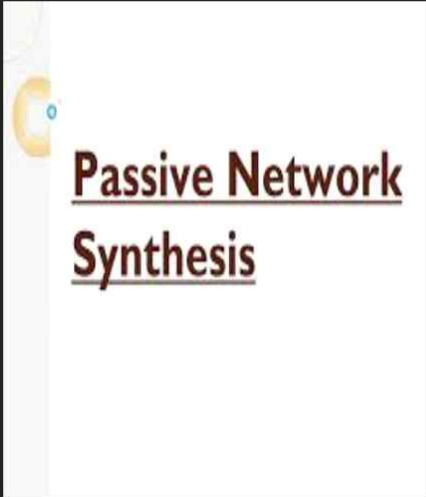
- 음운현상의 증가

LANGUAGE OF SCHIZOPHRENIA

텍스트

PASSIVITY PHENOMENA

- 사고, 감정, 의지에 대한 조정기능 상실
- 모든 지각이 자기와 관련이 있다는 느낌
- 망상적 기분 Delusional Mood
- 망상적 지각 Delusional perception



UNDERSTANDING OF SCHIZOPHRENIC REACTION 1

- ▶ state 개념으로 인식, not trait
- ▶ 정신분열병의 증상은 실존적 절망(existential despair) : 존재의 문제가 위협 받지 않는다면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
- ▶ 존재 불안(ontological insecurity) 상태는 사회통합(환경의 조정), 자극의 조절 등을 통해 교정될 수 있다. 또한 증상발현을 상징적 죽음으로 이해해야 한다.
- ▶ 판단중지와 같은 현상학적 환원에 의한 순수 경험이 필수적
- ▶ 상호주관성의 이해 : ego의 손상이 심한 상태에서도 상호주관성은 나타나고, 표현 양식이 낮은 수준이라도 환자들이 지닌 의식은 치료자를 대상으로 '지향성'을 지닌다

UNDERSTANDING OF SCHIZOPHRENIC REACTION 2

- ▶ 순수차이로 환자들의 증상을 판단해야 한다. 동일성에 사로잡힌 차이는 편견을 낳는다. 환자의 상황을 기준으로 순수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 ▶ 모든 증상의 발현은 환자들의 의식을 기준으로 본다면, 본질적인 사건이다. 이는 환자들이 겪는 세계의 변화가 있음을 암시한다.
- ▶ 환자들의 미세지각을 섬세하게 다루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미세지각은 작은 소리, 시그널과 사인, 언어표현 모두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 상호주관성의 결여가 일시적임을 인지하고, 감소된 무의식적 자아개념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은 단순한 인문학적 은유가 아니고 실존적 주체에 대한 존중이 될 수 있다)

자기 안에 갇힌 사람

- 짐승은 몸이 성하고 배가 부르면 행복하다
-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
- 주변 사람 모두 고민을 안고 산다
- 사람들에게서 불안감, 지나친 긴장감, 소화불량, 경쟁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무관심, 무력감, 주변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 등을 보게 될 것이다

정신의학의 합리성과 치료

- 무엇을 치료로 정의할 것인가?
- 이것은 의철학과 의료문화사의 오랜 담론
- 의학의 역사는 생리학, 해부학, 병리학, 약리학의 역사와 궤적을 같이 한다. 여기서 생명과학 개념을 분리하자면, **의학적 합리성**이 존재해야 한다
- 일반적인 과학의 역사에 치료의 개념은 중요하지 않다. 달리 말하자면, 어떤 과학적 발견(혹은 패러다임)은 이전의 이론체계를 포괄적으로 흡수하면서 이루어진다
: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 치료의 연속성이 확립되지 않은 정신의학에서 우리는 치료의 정의를 사회적 합의로 산출해야 한다.
 - 프로이트가 히스테리아의 치료, 강박증의 치료 등을 언급하고, 정신분석의 치료요인을 설명했을 때, 유럽의학계가 보였던 반응은 대체로 냉소적이었다.
 - 이후 신경과학의 발전이 뇌와 마음의 결합으로 나타나고 클로르프로마진, 디아제팜(바륨)과 같은 향정신성 약물이 개발되면서, 정신의학의 치료 개념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 그러나 지나치게 생물학적 기전으로만 치료현상이 쏠리고 있는 것은 치료효과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
- 병적인 불안을 치료한다는 것은 불안증을 앓는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것이다.
 - 정신과 치료에 대한 대중적 요구는 치료적 요구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중들은 분명하게 정신적 문제와 신체적 문제를 구분하고, 때로는 신체와 정신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신의 질병모형을 설명한다.
 - 자신의 불안을 고민해왔으며 어떤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것을 미리 짐작하고 있다.
 - 일단 치료를 받겠다고 생각할 때 각 개인은 준비된 나름의 이성체계를 가지고 온다. 우리의 역할은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CONCLUDING REMARKS

- 칼레파 타 칼라 : kalepa ta kala
- 좋은 일은 실현되기 어렵다 : 그리스 격언
- 세상의 수 많은 일들이 좋은 뜻으로 시작하지만 초기의 열정이 시들어가면서 편리성으로 변해간다는 진리를 담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 아름다움은 아름다운 것이다 / 아름다움은 어려운 것이다 / 아름다움은 고결한 것이다
- 한강의 소설 : 희랍어 시간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한 법입니다
觀察보다는 愛情이, 愛情보다는
실천적 連帶가, 실천적 연대보다는
立場의 동일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立場의 동일함, 그것은 관계의 최강태입니다.
강북로복리의 사색 중에서 최지

인문사회의학 관점에서 바라본 조현병에 관한 토론문

박영진 (한국예술종합학교)

1. 조현병이란

라캉에게 조현병은 생물학적, 유기적 결함이 아니라 사회심리적, 언어적 발달의 실패이다. 조현병자는 담론 바깥에 있고⁷⁾, 아버지의 이름의 폐제(아이가 상상적 팔루스에 고착, 어머니가 아버지의 말을 가치절하, 아버지가 질서의 대리인이 아니라 위선적인 권력자로 출현)로 인해 정신병적 “구조”를 지닌 상태에서 “한 남자”(주체에게 있어 상징적 위치에 놓인 인물)와의 만남으로 인해 “발병”에 이르고, 마침내 “망상적 은유”를 통해 병리적인 자기 안정화에 도달한다.

조현병자의 구멍 난 상징계는 물리적 유기체가 오이디푸스 드라마와 상징계의 문턱을 통과하여 말하는 동물로 거듭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상징적 질서의 정착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늘 매혹적으로 상상화되는 존재 너머에서 사건을 바라보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조현병자는 시간을 보는 눈을 습득할 기회를 잃은 자다.

2. 환자의 주체성으로

발표문은 환자의 주체성(자아의 손상이 심해도 지향성을 보임)에 대한 현상학적 태도를 강조한다. 정신의학은 조현병자에게서 음성 증상(negative symptom), 가령 무언어증(alogia)이 있음을 보고한다. 그러나 무언어증은 단순히 언어능력의 기능 저하가 아니다. 무언어증의 배후에는 경험적 고유성이 있다. 극작가 아르토(Antonin Artaud)는 자신이 “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에 관해 이렇게 설명한다. “누군가 내게 왜 춤다고 말할 수 없는지 물어본다면, 나는 내 내면의 감정이 내가 말해야 하는 말에 대응되지 않는다고 답변할 것이다. 나에게서는 생리학적 감각과 그에 대한 감정적, 지적 반응 간의 대응관계가 결여되어 있다.”⁸⁾ 다른 이들에게 춤다는 감각과 그에 관한 발화는 연속적이지만, 아르토에게 그 둘은 불연속적이다.

또 정신의학은 조현병자의 빈약한 현실 검증과 유아적 상태(일차 사고)로의 퇴행을 지적한다. 그러나 조현병자의 현실은 빈약한 것이 아니라 이중화되어 있으며, 그의 사고 기능은 유치하기보다는 과활성화되어 있다. 한 조현병자는 이렇게 말한다. “저의 세계에서 저는 전능합니다. 당신의 세계에서 저는 사교성을 발휘합니다.” 그는 자기가 두 가지 세계에 참여하고 있음을 인지한다. 프로이트가 분석한 슈레버를 보자. 그는 자신이 새로운 인류를 낳기 위해 신의 여자가 된다는 망상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망상에 부합하기 위해 늘 자신의 콧수염을 면도하곤 했다. 슈레버 역시 본인이 망상적 세계(여기서 그는 여자)와 현실 세계(여기서 그는 콧수염

7) Lacan, “L’étourdit,” in *Autres écrits*, p. 474.

8) Artaud, *Selected Writings*, pp. 294-295.

있는 남자) 모두에 관여한다는 사실에 대한 메타-인지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망상적 확실성을 견지하면서도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살아갈 수 있었다.

3. 순수 차이의 문제

발표문은 수목적 구조와 리즘적 구조를 대비시키면서 **동일성으로 포착되지 않는 순수 차이**의 관점에서 환자의 증상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관건은 상징계다. 자크-알랭 밀레의 지적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폐제된 경우 타자성, 즉 순수 차이가 정립되지 않는다.⁹⁾ 그래서 조현병자는 자기 동일적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동시에 발표문은 리즘적 구조가 **파괴적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통합 기능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여기서 관건은 상상계다. 조현병자의 경우 아버지의 이름이 폐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욕체 이미지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라캉의 거울 단계의 두 번째 판본에서 오목 거울은 꽃병 바깥에 있는 꽃(=욕체 자체)이 마치 꽃병 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즉, 인간에게 욕체 이미지(꽃병에 담긴 꽃)란 욕구, 충동, 감정, 고통을 담아냄으로써 욕체 자체의 파편적 실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가 최소한의 통합에 이를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조현병자의 실패는 상징적인 동시에 상상적이다. 무의식과 욕체 이미지 양자 모두에 균열이 나 있다. 그렇다면 리즘적 구조의 양가성에 따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조현병 임상의 관건은 어떻게 환자의 주체적 경험에 내재된 순수 차이를 통해 환자를 바라볼 것인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동일성에 사로잡힌 자를 순수 차이의 영역으로 인도하면서도 순수 차이의 파괴성에 맞서 그가 최소한의 안정적 동일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가이다.

4. 조현병자의 언어

발표문은 조현병자에게는 **함의적 언어가 줄어든다**고 지적한다. 조현병자의 언어는 현실을 의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대체한다. 그래서 말과 사물 간의 거리가 부재한다. 그의 언어는 즉물적이다. 그는 대명사, 속담, 은유를 파악하지 못한다. 은유 형성의 실패가 잘 드러나는 사례를 보자. 한 아버지가 조현병을 가진 딸에게 “너는 정신 장애가 있어(gehandikapt/handicapped(kapt는 kappen자르다의 과거분사))”라고 말하자, 딸은 자신이 실제로 손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5. 조현병에 대한 정신분석적 치료

발표문은 **생물학적 기전**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경계하면서 **상호주관적** 치료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 정신과 의사는 정신분석가 윌프리드 베어 에게(Wilfried Ver Eecke)에게 “정신의학은 조현병자를 교정하지만, 당신의 방법은 환자의 상태를 향상시킨다”고 말한다. 실제로 캐나다의 388센터는 망상이라는 상상적 형성물에 꿈이라는 상징적 형성물을 통해 개입하는 치료 방식으로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80% 이상을 직장 및 학업으로 복귀시킬 수 있었다. 연쇄적으로 흘러가고 구조적으로 미완결적인 상징적 지식(savoir)과 총체적이고 폐쇄적이고 자기 완결적인 상상적 앎(connaissance)에 대한 라캉의 이론적 구분이 임상 실제에서 잘 드러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6. 발표문은 “**무엇이 치료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치료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정의된다고** 말한다. 다른 곳에서¹⁰⁾ 탈수용화, 장기 입원 및 정신요양원 문제, 지역 사회와 병원 간의 균형적 치료, 의사-환자-가족 간의 수평적 모델, 정신보건 시스템 제고 등에 대해 지적해 주셨는데 조현병 치료를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9) Miller, “Extimite,” *Lacanian Theory of Discourse*, p. 79.

10) <http://www.psychiatric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151>

우리 사회의 정신증에 대한 라캉의 정신분석 실천: 정신증적 주체의 연안 지대를 만드는 길

이수진 (아주대)

1. 부권적 기능이 사라진 우리 사회

*인간 존재는 광기를 무시하곤 이해될 수 없다.
게다가 자신의 자유의 한계인 광기를 자기 안에 갖지 않는 자는 인간 존재일 수 없다
(Lacan, 1966/2019: 680-1).*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정신증에 대한 이해로는 사회에 대한 부적응, 중대한 증상의 심각성, 의사소통 능력의 혼란, 병적인 상태에 대한 인식의 부재, 현실과의 접촉 상실, 기질적 요인과 심인성 요인에 의한 결정, 그리고 회복될 수 없는 자아의 변질 등이 있다. 이러한 정신증은 정신의학에서도 단일한 원형(prototype)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정신병적 증상(망상과 환청), 와해(사고 장애와 기괴한 행동), 음상 증상(감정, 동기, 사고, 대인관계의 부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Frances 2013/2014: 144) 정신 상태로 본다.

이처럼 정신과 임상은 물론 정신분석 실천에서도 정신증(psychosis)은 “기관-발생적인 것(예컨대, 진행성 마비)이든지, 아니면 궁극적인 병인이 수수께끼로 남아 있는 것(예컨대, 정신분열증)이든지 간에 모든 범주의 정신 질환을 포괄할 정도로 아주 광범위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Laplanche & Pontalis 1967/2005: 413). 따라서 정신분석 연구자와 임상가는 정신의학적 접근과 일별하는 정신증에 대한 정신분석적 이해를 토대로 임상 실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주지하지시피 정신분석은 정신질환에 대한 분류 체계(DSM-5)의 범주적 한계를 넘어서 인간의 정신 구조를 정신증, 도착증, 신경증으로 구분하는 ‘구조적 접근법’으로 임상 실천을 해 나가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구조적 접근법을 채택하는 정신분석은 주체의 증상뿐만 아니라 증상 기저에 존재하는 정신 구조를 중심으로 무의식을 탐구함으로써 분석주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실존적이고도 주체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

정신분석학에서 정신증은 주체의 “현실과 리비도적 관계의 근본적인 혼란(상태로), 겉으로 드러난 대부분의 증상(특히 망상 구조)은 대상과의 끈을 복구하려는 2차적인 시도”(앞의 책, 413)로 이해한다. 즉 정신분석은 정신증을 1차 시기에 “자아와 현실 사이의 단절이 일어난 후, 2차 시기에 자아는 이드의 욕망에 일치하는 새로운 현실을 재구성”(앞의 책, 415)하는 주체의 작업으로 개념화한다. 이처럼 정신분석은 정신증의 주요 병리 현상인 망상을 현실을 재구성하는 실존적인 방식으로 보는 것이 정신의학과 다른 점이다.

지그문트 프로이트(Freud, S.)는 초기 논문인 「방어 신경-정신증(The Neuro-Psychoses of Defence)」에서 “방어 정신증이 히스테리 또는 복합 신경증 과정을 뚫고 나아가는 것은 삽화적으로 드문 일이 아니다”(Freud 1962: 60)고 기록함으로써, 성(性)에 대한 방어 갈등인 신

경증에 연결하여 정신증을 설명한다. 이후 그는 「방어 신경-정신증의 추가적 언급(Further Remarks on the Neuro-Psychoses of Defence)」에서 “자아의 변질의 극단에서의 해석적 망상”(Freud 1962: 185)을 기록하면서 신경증과 정신증의 대립이 이드와 현실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자아와 관련이 있음을 설명한다. 또한 이 논문에서 편집증의 주요 메커니즘인 “투사”(앞의 책, 184)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이러한 프로이트의 정신증에 대한 논의는 1911년의 슈레버 분석인 「편집증 사례에 대한 자전적 기록의 정신분석」(Freud 1911)에서 표면화된다. 더 나아가 「신경증과 정신증」(Freud 1924a)과 「신경증과 정신증에서의 현실감의 상실」(Freud 1924b) 논문을 통해 그는 신경증과 정신증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기제로서 “현실감의 상실(the loss of reality)”(Freud 1961: 183)을 밝힌다.

프로이트의 정신증에 대한 설명에 이어 현대 정신분석에서 정신증은 더욱 확장되어 탐구된다. 현대 정신분석은 복잡하고 다양하여 응집성 있는 하나의 체계라기보다는 상이한 이론과 지식들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공존하는 복합체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현대 정신분석학파 간의 이견은 있지만, 그들의 공통된 합의점은 대인 상호 관계적 측면에 대한 관심으로 분석의 방향이 “피분석자의 사회적 압력들과 자신 안에 내면화된 중요한 타자들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진실한 개인적 목소리를 내는 것”(Mitchell & Black 1995: 214)과 관련된다.

이러한 관점은 정신증에 대한 이해와 연결된다. 대상관계 임상가인 그레고리 해밀턴(Hamilton, G.)은 『자기와 타자(*Self and Others*)』에서 “분리-개별화의 단계에 따라 배열된 정신 병리의 연속체”(Hamilton 1990: 124)의 맥락에서 정신증을 설명한다. 그는 마가렛 말러 등(Mahler, M., Pine, F., & Bergman, A.)의 분리-개별화의 발달적 문제에 연결하여 정신증적 조직화가 발생함을 설명한다. 즉 정신증을 “대상관계 연속체 발달에서의 공생적 수준(the symbiotic level)에 위치한”(앞의 책, 140) 미분화 상태로 본다. 이러한 관점은 정신증적 조직화(psychotic organization)를 경계선적 조직화(borderline organization)와 신경증적 조직화(neurotic organization)를 이루지 못한 상태로 바라봄으로써, 정신증을 경계선이나 신경증으로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견해를 내포하여 정신증을 주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치료적인 접근을 하는 데에서 적지 않은 한계를 내포한다.

자크 라캉(Lacan, J.)의 정신분석은 정신증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의 출발이 신경증인데 비해, 라캉의 정신분석의 출발은 정신증이다. 라캉은 1932년 「인격과 관련된 편집증적 정신병에 대하여(De la psychose paranoïaque dans ses rapports avec la personnalité)」의 의학박사 연구를 통해 정신분석을 시작한다. 그는 주체의 정신 구조를 언어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함으로써 프로이트의 견해에서 진일보하여 정신증을 주체의 한 가지 정신 구조로서 설명한다.

또한 라캉은 망상(delusion)과 환각(hallucination)의 정신증적 현상(phenomena)과 정신증적 구조(structure)를 구분한다. 그에 따르면 정신증이 발병한 정신병은 “두 가지 조건”(Evans 1996/1998: 354)을 필요로 한다. 첫째, 주체의 정신증적 구조가 기초되어야 한다. 둘째, 어머니의 욕망을 대체하는 아버지의 이름의 폐지에 따른 망상과 환각의 현상으로서 “주체와 상징적 대립”(Lacan 1966/2019: 683)의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처럼 구조에서 현상이 발병한 정신병과 구조에서 현상이 발병하지 않은 “평범한 정신증(ordinary psychosis)”(Olive 2019b: 7)¹¹⁾이 우리 사회에서는 병존한다. 따라서 정신증적 구조와 정신증

11) 자크 알랭 밀레(Miller, J.-A.)는 아버지의 이름과 생통에 관한 라캉의 후기 개념적 자원을 활용하여 ‘정신병(extraordinary psychosis)’과 ‘평범한 정신증(ordinary psychosis)’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평범한 정신증은 1996-99년 프로이트 대의 학파(Ecole de la Cause Freudienne: ECF)에서 신경증

적 현상에 대한 구분을 토대로 임상적 측면에서 정신병과 평범한 정신증을 구분하는 라캉의 정신분석은 여타 현대 정신분석학파와는 차이점을 갖는다.

라캉은 어머니의 욕망을 대체하는 ‘아버지의 이름의 은유’에 따라 주체의 존재 방식인 정신 구조를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신경증은 아버지의 이름의 억압(repression), 도착증은 아버지의 이름의 부인(disavowal), 정신증은 아버지의 이름의 폐제 foreclosure)에 따른 정신 구조로서 이러한 각각의 구조는 독자적인 주체적 실현이 가능하다. 라캉의 정신분석은 주체의 정신 구조를 “불연속적 범주 분류 체계”(Evans 1996/1998: 73)로 이해함에 따라 결정적 기간이 지난 뒤에는 주체의 구조가 변할 수 없고, 따라서 정신증자를 신경증자로 변화시킬 수 없다. 이러한 관점은 정신증을 보다 주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한다.

정신증은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의 기능의 결여로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기능 부전에서 유래”(앞의 책, 353)한다. 아버지의 이름의 기능은 주체에게 어머니의 욕망을 대체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작동하는 요소를 말하는데, 정신증은 아버지의 이름의 기능이 폐제됨으로써 상징계에 구멍을 갖는 주체다. 19세기에 비해 20, 21세기의 현대 사회는 신경증적 주체보다는 점차 정신증적 주체 또는 도착증적 주체를 양산하고 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부재하는 혹은 결여된 아버지의 기능과 연결해 볼 수 있다. 현대 사회는 “가족 구조의 변화와 성역할의 이데올로기 변화로 가족과 사회 내에서 남성과 아버지의 상징적 역할의 중요성이 광범위하게 도전”(Fink 1997/2002: 192)받고 있다. 또한 물질문명의 발달과 정보 과잉에 반비례한 현대인의 고립과 의사소통의 단절은 대타자에 대한 다소간의 혼란을 가져옴으로써 주체로 하여금 아버지의 기능으로 작동하는 상징계는 점점 더 위협받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상징적 가치와 대의는 점차 무너지고 있다. 이는 현대 정신분석으로 하여금 전오이디푸스 단계에 대한 관심과 우리 사회의 정신증적 주체에 대한 관심으로 이끈다.

이처럼 부권적 기능이 사라지는 현대 사회에서 정신증적 주체를 초점화 하여 라캉 정신분석의 임상 이론을 궁구하는 작업은 반드시 요청되는 작업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정신증에 대한 라캉의 정신분석 실천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중심적 논의는 네 가지의 축으로 전개한다. 첫째, 프로이트의 슈레버 분석을 통해 정신증의 이해와 정신분석 치료의 함의를 밝힌다. 이는 본 논의의 사전 작업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둘째, 라캉의 정신증에 대한 이론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이는 라캉의 정신증의 메커니즘 이해에 대한 논의다. 셋째, 라캉의 정신증에 대한 임상 이론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이는 라캉학파의 정신증에 대한 분석의 목표와 방법에 대한 논의다. 넷째, 정신증의 주체적 실현의 의미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석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본 연구 작업은 우리 사회의 정신증에 대한 라캉의 정신분석 실천을 탐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정신증의 주체적 실현을 향한 논의가 될 것이다. 그 논의에서 정신증의 연안 지대는 그들의 주체적 실현의 토대이자 과정의 이름이 될 것이다.

2. 프로이트의 슈레버 분석을 통해 본 정신증의 이해와 치료적 함의

프로이트의 「편집증 사례에 대한 자전적 기록의 정신분석(Psycho-Analytic Notes on an Autobiographical Account of a Case of Paranoia)」(Freud 1911)은 그가 슈레버의 자서전을 통해 편집증 환자의 무의식적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정신증에 대한 정신분석적 이해를 밝

-정신증의 고전적 이분법의 한계에 봉착하면서 밀레가 착안한 개념이다. 엄밀히 평범한 정신증은 하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라캉의 정신분석 임상에서 인식론적 기능을 가진 용어로 사용된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IV장의 라캉의 정신증의 임상 부분에서 이루어진다.

힌 논문이다.

이 논문의 중심적 자료가 된 다니엘 파울 슈레버(Schreber, D. P., 1842-1911)의 『한 신경병자의 회상록(*Denkwürdigkeiten eines Nervenkranken*)』은 그의 세 번의 발병 가운데 두 번째 발병 시기에 존넨슈타인 정신병원에서 쓴 자전적 기록이다. 이 자서전은 슈레버가 자신의 퇴원을 위한 법 절차, 즉 금치산 선고 철회 청구를 위해 자신의 “육체와 개인적 운명에 대해 전문가의 관찰이 이루어지는 것은 학문과 종교적 진리 인식에 중요한 가치를 지닐 것이라고 생각”(Schreber 1903/2010: 11)하여 쓴 글이다. 자서전은 구체적으로 슈레버가 첫 번째 주치의 파울 에밀 플렉지히(Flechsig, F. E.) 교수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서설로 하여 1900년 2월부터 9월까지, 그리고 1901년 6월부터 1902년 11월까지의 자신의 종교적 관념과 병적 경과를 스물세 권의 노트에 기록한 것으로 구성된다. 슈레버는 이 자서전을 통해 1902년 드레스덴 왕립고등법원의 금치산 선고 철회 판결을 받고 재산의 자유처분권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7월 재판부의 결정으로 12월 퇴원을 하게 된다.

슈레버의 개인력은 다음과 같다. 슈레버는 1842년 라이프지히 대학 정형외과 의사인 다니엘 고틀로프 모리츠 슈레버(Schreber, D. G. M.)의 부친과 파울리네 슈레버(Schreber, P.)의 이남삼녀 중 차남으로 태어난다. 그는 부친의 엄격한 교육을 통해 자기규율이 큰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법학을 전공한 후 판사로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 나간다. 그가 서른다섯 살이 되던 해 세 살 위인 형이 작센 지방법원 판사로 발령을 받은 지 몇 주 만에 권총으로 자살을 한다. 그다음 해에 슈레버는 자신보다 스물다섯 살이 어린 자비네 베어(Behr, S.)와 결혼을 한다. 자신과 신분상의 차이가 있는 어린 아내를 맞은 슈레버의 선택에는 형의 사망 후 “자식을 얻어야 한다는 압박이 크게 작용”(앞의 책, 485)한 것으로 보인다.

슈레버는 일생 동안 세 번의 정신병의 병력을 나타내는데, 첫 번째 발병은 그가 독일 제국 회의 후보자로 임명되어 선거에 출마하고 낙선한 지 두 달이 지난 1884년 12월이다(42세). 슈레버는 당시 ‘건강염려증’의 진단을 받고 플렉지히 박사가 있는 라이프지히 대학 정신과에 입원하여 6개월의 치료 후 회복된다. 두 번째 발병은 그가 드레스덴 고등법원 판사회의 의장에 임명된 1893년 10월에 나타난다(51세). 이에 대한 슈레버의 기록이다.

첫 번째 병에서 회복되고 팔 년간 나는 아이를 가지려는 희망이 여러 번 좌절될 때마나 우울했던 것 말고는 전반적으로 행복했고, 외적인 명예에서도 만족스러운 시간을 아내와 함께 보냈다. 1893년 6월 나는 드레스덴 고등법원 판사회 의장에 임명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이 시기에 나는 여러 편의 꿈을 꾸었다. [...] 어느 날 아침에 어떤 느낌을 받았는데 그것은 성행위에 종속된 입장인 여자가 되는 건 정말 즐거우리라는 생각이었다. [...] 드레스덴 고등법원 판사회 의장 일의 부담은 매우 컸다. 나는 동료와 관계자들에게 신망을 얻으려고 분투했다. 이로 인해 불과 몇 주 후부터 정신적 과부하에 걸리고 말았다. 전체적인 불면 상태, 일종의 자살 기도, 그 다음날 벌써 심각해진 정신 파열 상태가 이어졌다. 나는 곧 병원으로 이동했다(Schreber 1903/2010: 51-54).

아내의 반복된 유산이 이어진 가운데 슈레버가 고등법원 판사회 의장으로서의 책무에 과중한 부담을 느낀 것이 그의 두 번째 발병의 원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두 번째 발병 시기에 라이프지히 병원에서 존넨슈타인 요양소로 옮기고, 1900년부터 1902년까지 자전적 기록을 한 슈레버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팔 년간의 치료 후 1902년 12월에 퇴원을 하고, 1903년 자서전을 출간한다. 세 번째 발병은 “모친이 노환으로 사망하고 부인 자비네 역시 뇌경색으로 일시적 실어증을 겪게 되는 1907년”(앞의 책, 389) 슈레버에게 이전의 증상들이 재발하여 나타

난다(65세). 무력증, 섬망, 불안 등을 보이던 그는 사 년간의 병원생활 끝에 프로이트가 논문을 발표하던 1911년 호흡곤란과 심장마비 증세를 보이면서 사망한다.

이러한 슈레버에 대한 프로이트의 분석은 크게 두 가지 각도에서 이루어지는데, “편집증의 병력 이해와 정신생활의 콤플렉스 동기를 밝히려는 시도”(Freud 1911/1996: 137)이다. 프로이트는 슈레버의 ‘세상을 구원하여 잃어버렸던 천국의 행복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사명’에 대해 자신이 우선 여자로 변형되어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망상을 분석한다. 슈레버가 “여자로 변형되는 것과 신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것”(앞의 책, 135)은 발병 이전에는 회의론자이자 금욕주의자인 그의 모습에서 변화한 결과이다. 프로이트는 여자로 변한다는 생각이 구원자 망상보다 먼저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성적 피해망상이 나중에 종교적인 과대망상으로 바뀌었”(앞의 책, 118)음을 설명한다. 또한 프로이트는 슈레버가 “영혼을 죽이는 자(soul murder)”(앞의 책, 113)로 불렸던 의사 플렉지히는 다름 아닌 “전이의 대행자”(앞의 책, 151)로서 그의 망상 속의 “신은 아버지, 플렉지히는 형”(앞의 책, 155)의 대리자라는 분석에 이른다. 프로이트는 아버지의 거세 위협은 슈레버가 여자로 변형되고자 하는 소망으로 가득 찬 환상을 제공하고, 그가 처음에는 저항했으나 나중에는 받아들여지게 된 “아버지 콤플렉스(the father complex)”(앞의 책, 161)에 의해 슈레버의 편집증적 증상이 발생함을 설명한다. 프로이트는 다음과 같은 슈레버에 대한 분석과 치료적 함의를 밝힌다.

편집증 환자는 그의 세계를 다시 짓는다. [...] 그는 자신의 망상으로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다. 우리는 망상의 형성을 병적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회복하려는 노력인 것이다. 즉 재건축의 과정인 것이다. 재난 후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재건축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체를 재건축할 수는 없다(Freud 1911/1996: 180).

또한 프로이트는 편집증의 메커니즘과 관련해 ‘투사’를 강조하면서 “내부적으로 없었던 것이 외부로부터 돌아오는 것”(앞의 책, 180)을 설명한다. 더 나아가 그는 정신증의 주요한 두 증상인 편집증(paranoia)과 조발성 치매(dementia praecox, 조현병)를 구분한다. 편집증은 투사를 주요 메커니즘으로 한 자기에 단계까지 퇴행한 이후 재건축이 나타나는 정신증적 상태다. 이에 비해 조발성 치매는 환각을 주요 메커니즘으로 한 대상-사랑을 완전히 내버린 유아기의 자가 성애로 퇴행한 이후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정신증적 상태다. 프로이트는 “편집증으로부터 시작하여 조발성 치매로 발전”(앞의 책, 187)할 수 있고, 또는 두 증상이 어떤 비율로 섞여 나타날 수 있음을 피력한다.

이 논문에서 프로이트가 밝힌 정신증에 대한 이해와 정신분석의 치료적 함의는 중요하다. 그는 정신증의 주요한 증상으로 편집증과 조현병을 구분하면서도 두 증상의 혼재 가능성을 설명한다. 또한 슈레버 분석을 통해서 망상이 편집증, 좀 더 확장적으로는 정신증의 세계를 건설하는 회복의 노력임을 피력한다.

이러한 프로이트의 견해는 후기의 1937년 논문인 「정신분석에서의 구성(Constructions in Analysis)」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망상이 정신증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피분석자의 “역사적 진실의 단편(a fragment of historical truth)”(Freud 1964: 267)임을 밝힌다. 또한 그는 피분석자의 “망상은 분석적 치료의 과정에서 분석가가 만드는 구성에 상응하는 것”(앞의 책, 268)으로 설명함으로써 망상이 ‘증상(현상)’인 동시에 ‘삶의 회복을 위한 재구성의 노력’임을 밝힌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로이트가 1938년에 쓴 미완성 논문인 『방어 과정에서 나타난 자아의 분열』도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자아가 어려운 상황에서 취하는 행위인 부인에 대해 설명

하면서 자아 분열의 개념을 절편음란증 너머 정신증의 적용에 까지 확장시킨다.

이처럼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정신증, 도착증, 신경증은 엄밀히 피분석자의 자아가 세계를 마주하는 방식과 태도에서 차이가 있을 뿐 그들간의 질적인 차이는 없다. 이는 그가 「종결할 수 있는 분석과 종결할 수 없는 분석」에서 설명한 분석 치료의 과업을 피분석자의 “정신적 외상의 영향, 충동의 체질적 강도, 그리고 자아의 변화”(Freud 1964: 224) 사이에서 “자아의 기능의 최선의 심리적 조건을 세우는 것(the business of analysis is to secure the best possible psychological conditions for the functions of the ego)”(앞의 책, 250)으로 주장한 점과도 연결할 수 있다. 즉 정신분석의 치료적 과업은 피분석자의 특수한 최선의 심리적 조건을 세우는 것의 다름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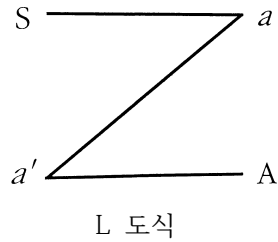
3. 라캉의 정신증의 메커니즘 이해

라캉의 정신증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는 1955-56년의 『세미나 3권: 정신증(*The Psychoses*)』과 『에크리(*Écrits*)』의 「정신증의 모든 가능한 치료에 전제가 되는 한 가지 문제에 대해(On a Question Prior to Any Possible Treatment of Psychosis)」에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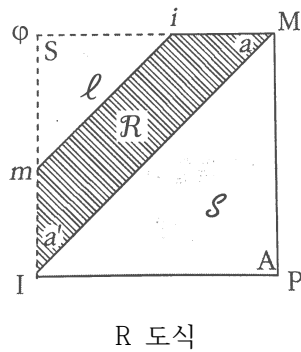
그는 『세미나 3권』(Lacan 1993)에서 정신증의 질문을 위한 도입, 정신증적 현상의 주제와 구조, 기표와 기의, 그리고 구멍의 주변을 설명한다. 라캉은 첫 번째 장에서 정신증의 질문의 도입을 시도한 후, 두 번째 장에서 정신증적 현상과 그것의 메커니즘을 밝히면서 정신증적 구조를 설명한다. 세 번째 장에서는 기표와 기의의 은유(metaphor)와 환유(metonymy)를 통해 신경증적 구조와 정신증적 구조의 차이를 설명한다. 네 번째 장에서는 프로이트를 따라 슈레버를 분석하는 가운데 고정점(the quilting point)의 의미와 정신증의 발병에 대해 설명한다.

『에크리』에 수록된 1957년 12월부터 1958년 1월까지 라캉의 사유를 담은 정신증의 논문은 “프로이트를 향해, 프로이트 이후, 프로이트와 함께, 슈레버 쪽에서, 후기”(Lacan 1966/2019: 635-689)의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이 논문에서 라캉은 『세미나 3권』의 논의를 이어 정신증의 메커니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그는 프로이트의 정신증에 관한 설명을 이으면서 정신증을 L 도식, R 도식 I 도식에 적용하여 설명함으로써 ‘아버지의 이름의 폐제’라는 정신증의 근본 메커니즘을 기표의 효과와 연결하는 라캉 정신분석의 독자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그의 상세한 논의 고찰을 통해 정신증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

라캉은 주체에게 자신의 고유한 성을 담당시키는 규범적 한계인 “개인사를 구성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현존이 필연적으로 만든 아버지의 살해 신화, 그리고 *last but not*……, 항상 유일한 것으로 되찾아지는 대상의 반복적 층위가 만들어낸 애정적 삶의 분열 효과”(앞의 책, 648)에 주목한다. 그는 프로이트가 무의식의 장소로 명명한 ‘또 다른 무대(ein anderer Schauplatz)’ 개념을 인용하면서 정신증의 “욕망, 권태, 칩거, 반항, 기도, 깨어 있음 그리고 마침내 광란 등은 바로 이 다른 곳의 차원을 우리에게 증언하려고 존재하는 것(앞의 책, 652)으로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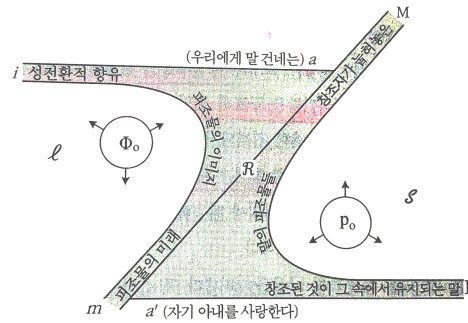


이를 “L 도식”(Lacan 1966/2019: 653)이 잘 보여주는데, L 도식은 주체의 S의 조건(신경증 또는 정신증)이 대타자 A에서 전개되는 것에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주체의 실존인 S, 주체의 대상들인 a, 그 형태가 주체의 대상들 속에서 반영되는 주체의 자아인 a’, 그리고 실존의 문제가 주체에게 제기되는 장소인 A”(앞의 책, 654)가 주체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주체는 담화에 관계하게 된다. L 도식은 주체를 실존 속에서 질문에 부치는 시니피앙, 즉 기표 자체다. 이처럼 주체를 조건 짓는 L 도식에서 a와 a’의 나르시시즘적 환영은 R 도식의 도입으로 “이중적 삼원성의 개념적 가시화”(앞의 책, 658)를 함으로써 정신증의 현실의 장을 구획한다. 라캉은 “R 도식”(Lacan 1966/2019: 658)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설명한다.



상징적 삼각형의 세 꼭짓점 가운데 I는 자아의 이상형, M은 원초적 대상의 시니피앙, P는 A에 위치한 아버지의 이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체 S의 의미와 남근의 시니피앙 사이의 상동성 확립이 Mimi의 사각형에 의해 구획된 현실의 장에 지탱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포착할 수 있다. 이 사각형의 다른 두 꼭짓점인 i와 m은 나르시시즘적 관계의 두 상상적 항, 자아와 반영적 이미지를 표상한다. [...] 이 도식은 오이디푸스로부터의 소급을 통해 파악되는 전생식기적 단계들의 관계들을 드러낼 수 있게 해준다(Lacan 1966/2019: 658-659).

여기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부재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인 기표 자체의 결핍에 대응하는 주체의 위치, 즉 정신증적 주체를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기표의 현존은 정신증자에게 달려 있는 현존이다. 정신증자에게서 그 현존은 끊임없이 “반복강박”(앞의 책, 663)에 의해 스스로를 표상하려고 노력한다. 이 지점에서 라캉은 아버지의 이름의 “시니피앙의 폐쇄”(앞의 책, 663)를 설명하는데, 정신증은 아버지의 이름이 호명되는 지점에서 “대타자 속의 순수하고 단순한 구멍 하나가 대응하게 된다. 이 구멍은 은유적 효과의 결여로 인해 남근적 의미의 자리에서 다른 하나의 구멍을 만들어 낸다”(앞의 책, 663). 이 구멍과 관련해 라캉은 “I 도식”(Lacan 1966/2019: 677)을 도입하고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I 도식

아버지의 폐제를 통해서 어머니의 원초적 상징화 M을 구성시킨 부재가 드러난다. 아버지의 이름의 폐제에 따라 시니피앙 장에 파인 구멍을 뚫는다. 시니피앙 사슬의 지지물이 주체에게 걸여되면서 생긴 이 구멍,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말해지지 않아도 경악스러운 이 구멍 주위에서 주체가 재구성되는 모든 투쟁이 벌어진다. [...] 주체에겐 상징적 은유의 부재에 따라 벌어진 틈, 오직 남성성 제거의 완성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 벌어진 틈이 상상적인 것의 장 속에 열려 있었던 것이다. [...] 환자가 여자가 되도록 운명 지어진 것은 페니스를 제거해서가 아니라 남근이 되어야 하기 때문임을 말이다(Lacan 1966/2019: 669-675).

라캉은 I 도식을 “정신증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위치한 주체의 구조”(앞의 책, 677)로 설명한다. 이는 정신증의 마지막 상태가 혼란이 아닌 “우아한 해결”(앞의 책, 678)임을 보여준다. 즉 정신증의 언어는 상상적 해체에 상이한 기표의 효과의 대응들이다. 이처럼 정신증에서의 R장의 배치는 그들의 항상성을 통해 견고해진 일종의 ‘섬’으로서 현실을 표상한다. 또한 R장은 정신증적 주체가 “거주할 만한 것으로 만들면서도 또 뒤틀어지게 하는 것, 즉 현실을 그 둘의 괴리의 장으로 만드는 상상적인 것 ℓ 과 상징적인 것 S 의 탈중심적 재조직과 연결”(앞의 책, 679)된다. 이른바 I 도식은 정신증적 주체가 환각과 망상을 토대로 재구조화한 그들만의 정신 구조를 가시화하여 보여주는 것의 다름 아니다.

라캉은 이러한 정신증적 구조가 가능하게 되는, 즉 아버지의 이름의 폐제라는 원리에 가 닿는 실제적인 모습에 대한 설명도 놓치지 않는다. 이 원리에 가 닿으려면 “시니피앙 법칙을 구성하는 상징적 삼원성의 시니피앙 자체를 아버지의 이름이 대타자의 자리에서 반복시킨다는 것을 인정”(앞의 책, 684)해야 한다. 예컨대 좌절시키는 어머니와 너무 많이 채워주는 어머니 사이에서 고통스럽게 방황하는 아버지의 모습들, 즉 아버지의 결핍은 ‘고함치는 아버지, 유순한 아버지, 전능한 아버지, 모독 받은 아버지, 몰골사나운 아버지, 보잘 것 없는 아버지, 집안 일을 하는 아버지, 산책 중인 아버지 등’으로 다양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버지의 결핍 이전에 정신증적 구조를 위해서는 “어머니가 법을 만들려고 아버지의 말을, 권위를, 달리 말해 아버지의 이름에 부여한 위치를 사용한”(앞의 책, 685) 전사(前史)가 있음에 우리는 더욱 주목해야 한다.

$$\frac{S}{s'} \cdot \frac{s'}{x} \rightarrow S\left(\frac{1}{s}\right) \qquad \frac{\text{아버지-의-이름}}{\text{어머니의 욕망}} \cdot \frac{\text{어머니의 욕망}}{\text{주체에게 의미된 것}} \rightarrow \text{아버지-의-이름} \left(\frac{A}{\text{남근}} \right)$$

은유의 공식 아버지의 이름의 은유

이제 아버지의 이름의 은유와 관련하여 정신증에서 아버지의 이름의 폐제로써 발생하는 주요 현상인 환각과 망상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라캉은 『세미나 3권』에서 폐제(Verwerfung)를 정신증의 주요 메커니즘으로 밝히는데, 폐제는 “상징적 구조 밖에서 회귀된 주체의 구조”(Lacan 1993: 47)와 연관된다. 라캉은 이 세미나에서 프로이트가 ‘현실감의 상실’이라고 본 것을 ‘상징계의 작용’과 연결하여, 오이디푸스와 관련된 아버지의 이름의 은유에 대한 인정과 인정하지 않음이라는 논리적 해명을 통해 신경증과 정신증을 구분한다. 아버지의 이름은 상징계의 고정점의 기능을 한다. 정신증은 아버지의 이름을 폐제함으로써 I 도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은유적 효과의 결손으로 상징계의 구멍을 만든다. 이로써 발생한 정신증의 언어의 연쇄의 풀린 매듭은 환각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른바 정신증의 환각과 망상은 아버지의 이름의 은유적 효과의 결함을 증언한다. 라캉은 “정신분석 장에서 나타나는 (정신증의) 모든 현상은 언어적 구조를 갖고 있다”(Lacan 1993: 167)고 말한다. 이를 통해 현대 라캉학과 분석가 다니엘 올리브(Olive, D.)는 “망상과 환각이 언어적 구조를 갖고 있다”(Olive 2019a: 3)는 라캉의 견해에 주목한다. 라캉에 따르면, 환각은 “대상 없는 지각”(Lacan 1966/2019: 636)으로서 “기표와 기의의 의미화의 분절”(Olive 2019a: 3)을 보여준다. 라캉이 강조한 것처럼 “환각의 본성은 청각적”(Lacan 1966/2019: 637)인 것이 아니고, 기표의 연쇄가 깨어져 “목소리의 형태로 (출현하는) 실재”(Guivarch 2019: 16)다. 이 때문에 정신증은 환각과 관련해 “상징계부터 실재로 이행”(Olive 2019a: 3)하여 몸에서의 주이상스 현상들, 침입감의 경험을 겪는다. 이에 비해 망상은 의미화의 분절에서 “새로운 의미를 생산”(앞의 책, 3)하는 작업이다. 망상은 “의미의 공백이 말하기 원하는 바를 생산”(Guivarch 2019: 18)한다. 환각과 망상이 모두 언어적 구조를 갖고 있지만, “환각은 확신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고 주체가 수동적이라는 점, 반면에 망상은 주체의 해석이고 주체가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 다”(앞의 책, 19).

라캉은 정신병의 촉발에 대해 “대타자의 위치에 결코 도달하지 못한 아버지의 이름이 주체와 상징적으로 대립되도록 호출되어야 한다”(Lacan 1966/2019: 683)고 말한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이름의 결핍은 기의 속에 구멍을 뚫으면서 기표를 재조직하는 통로를 만들고, 그것으로부터 상상적인 것의 점증하는 파국이 펼쳐짐에 따라 기표와 기의가 “망상적 은유 속에서 안정화”(앞의 책, 683)의 수준에 이른다고 설명한다. 그럼으로써 정신증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대신해서 호출되는 것은 다름 아닌 “실재적 아버지”(앞의 책, 683)이다.

이처럼 라캉은 『세미나 3권』과 「정신증의 모든 가능한 치료에 전제가 되는 한 가지 문제에 대해」의 논문을 통해 정신증의 메커니즘을 밝히면서, 원초적 폐제가 정신증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따라서 라캉은 아버지의 이름에 구멍이 뚫린 뒤 기표를 실재 속에서 분출시키는 정신증에 대해 “모든 가능한 치료에 전제가 되는 문제(전이)를 내려놓는다”(앞의 책, 689)고 말하면서 임상적 견해를 암시한다.

4. 라캉학파의 정신증 임상적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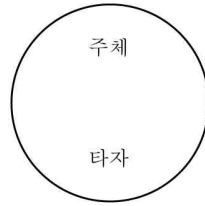
라캉학파의 정신증의 임상적 이해는 라캉의 정신증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다. 라캉학파의 정신증적 주체에 대한 정신분석 실천은 브루스 핑크(Fink, B.)의 『라캉 정신분석의 임상적 소개(*A Clinical Introduction to Lacanian Psychoanalysis: Theory & Technique*)』(Fink 1997)와 『정신분석 테크닉의 근본원리(*Fundamentals of Psychoanalytic Technique*)』(Fink 2007)를 중심 텍스트로 하여 논의한다.

정신분석 실천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정신증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핑크는 라캉의 논의를 이어서 아버지의 이름의 폐제가 정신증을 진단하는 데 가장 확실한 준거임을 밝힌다. 아버지의 이름의 기능은 상징적인 기능, 즉 아버지가 어머니의 담론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 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체가 어머니의 욕망에 삼켜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핑크는 아버지의 이름의 기능은 주체의 현실에서의 “아버지의 부재와 현존”(Fink 1997/2002: 143)과는 무관함을 강조한다. 즉 아버지의 이름의 기능은 주체의 아버지가 확실히 존재하는 경우에도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아버지가 부재하는 경우에도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다. 아버지의 이름의 기능은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로서 라캉 정신분석은 정신증적 “구조를 바꿀 수 없(고 다만…) 정신병적 증세를 제거할 수는 있다”(앞의 책, 144). 따라서 라캉의 정신분석이 목표로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분석주체의 ‘주체적 실현’이다. 라캉의 정신분석에서 실제적 초점이 되는 것은 신경증, 도착증, 정신증의 “임상적 구조이지 증상이 아니다. 따라서 분석의 종료는 증상을 치료한다는 측면보다는 구조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져야”(Evans 1996/1998: 378)한다.

정신증의 현상¹²⁾으로 좀 더 들어가서, 일차 과정 사고의 전형적인 형태인 환각은 엄밀히 정신증적 구조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정신분석 실천에서 관찰되는 정신증자의 환각은 다른 아닌 “확실성”(앞의 책, 148)에 있다. 정신증자는 환각과 연관된 자신, 메시지의 수신인, 그리고 메시지 자체를 확신하고, 그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확신한다. 이는 신경증자가 메시지를 ‘의심’하는 것과 구별된다. 환각은 “폐제된 것이 외부로부터 돌아온 것”(앞의 책, 152)이다. 이처럼 정신증자에게 환각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이름의 은유가 발생하지 않음, 즉 상상계를 상징계로 덧쓰는 것의 실패 때문이다. 따라서 “정신증”(Fink 1997/2002: 337)의 구조는 자신과 타자(어머니)가 하나의 원환에 함께 존재한다. 이는 타자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존재 전체와 육체를 바치고 있음, 다른 말로 어머니가 그를 완전히 삼킨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신증은 “해체된 언어와 신조어”(앞의 책, 166)를 사용한다. 그들에게 해체된 언어는 환각으로, 신조어는 망상으로 경험된다. 정신증자에게 들리는 “단속적인 목소리들은 말의 사슬을 끊으며 그것을 외떨어진 단위들이나 사물들로 해체시켜 버린다”(앞의 책, 167). 따라서 그들은 해체된 언어의 간극을 메우고자 “신조어(neologism)”(Lacan 1993: 34)를 만든다. 정신증적 주체에게 “망상적 직관은 수수께끼에 대한 해결책”(앞의 책, 33)이 되기 때문이다.

12) 라캉의 작업에서 증상이라는 용어는 보통 신경증적 증상을 가리킨다. 증상은 신경증이 지각 가능하도록 나타난 것으로 다른 임상 구조의 표현이 아니다. 따라서 “환각이나 망상과 같은 정신병의 표현은 대개 증상이 아니라 현상(phenomena)이라고 부르며, 도착증은 행위(acts)로 나타난다”(Evans 1996/1998: 378). 라캉 학파의 분석의 목표는 엄밀히 신경증적 증상이 사라질 때 이는 단지 다른 증상으로 대체될 뿐이라고 보기 때문에 증상의 제거에 두지 않고 구조적으로 접근한다. 이러한 점이 다른 정신분석 치료와 라캉의 정신분석이 갖는 중요한 차이점이다.



정신증적 주체의 구조

정신증자에게 환각으로 파생되는 것은 “단어를 사물과 동일시”(Fink 1997/2002: 168)하는 것이다. 예컨대 ‘살을 에는 듯한 추위’에서 추위라는 기표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살을 에는 고통과 동일시된다. 따라서 정신증자가 경험하는 외부의 강압적인 침입이나 공격은 “주이상스(Jouissance)”(앞의 책, 171)의 침입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신증자가 경험하는 “통제되지 않는 충동들”(앞의 책, 172)은 행위의 직접적인 표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함, 여성화, 질문의 부재 등으로 나타난다. 죄의식을 느끼지 못함은 정신증자에게는 아무것도 억압되지 않음에 따라 수치심은 있을 수 있지만, 죄의식은 없음을 말해준다. 여성화는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정신증자의 생물학적 성의 조건과는 무관하다. 또한 정신증자에게서의 질문의 부재는 욕망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증자에 대한 라캉의 정신분석 실천은 그들의 주체적 실현으로서 이는 “아버지의 이름을 결여한 상징계는 구조적으로 복구될 수 없(으므로…), 다른 질서에 의해 지탱되거나 보충(supplementation)될 수 있”(앞의 책, 178; Fink 2007: 254)을 뿐이다. 핑크는 이에 대해 “분석의 목표는 상상계를 복구함으로써 정신병의 발작 이전에 존재했던 안정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다”(앞의 책, 179)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정신증자에게 부재하는 아버지의 자리를 보충하기 위해 상상계를 가능한 견고하게 만드는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분석가는 정신증적 주체가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발견하고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의미의 세계를 구축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앞의 책, 189). 의미 세계의 구축은 자아의 구축이기도 하다.

분석가는 정신분석 실천에서 분석주체의 억압된 자료에 대한 방어의 징후들이 없을 때 정신증의 진단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정신증적 주체의 분석에서는 “카우치 사용을 피해야”(Fink 2007: 250) 한다. 또한 분석가는 “전이 관계의 종류를 고려하면서 신경증과 정신증을 구분하는 방법”(앞의 책, 243)을 배울 수 있다. 정신증적 주체의 분석 작업에서 전이가 없다고 말하기보다는 신경증적 주체와의 분석 작업에서처럼 상상적, 상징적, 실재적 수준이 아닌 “상상적 수준과 실재적 수준에서만 전이가 발생한다”(앞의 책, 247). 이처럼 정신증적 주체에게는 상징적 수준이 빠져있기 때문에 분석가는 그들에게 “타자이지 대타자가 아니다(he is an other, not an Other)”(앞의 책, 246). 오히려 분석가는 잔혹하고 착취적인 “주이상스적 대타자”(앞의 책, 248)가 된다. 분석가는 정신증적 주체에게 부모자녀 관계로 경험되기보다는 형제에 가까운 유사자(semblables)로 경험된다.

정신증적 주체를 위한 정신분석 실천 테크닉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다음과 같다. 정신증적 주체에게 구두점 찍기(Punctuating)와 운율에 맞춰 분석을 마치는 작업(Scandering)은 유용하지 않다. 이러한 기법들은 신경증적 주체의 무의식을 탐구하는 방법으로서 정신증적 주체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분석가는 정신증적 주체의 분석에서 “담론의 내용(the content of discourse)보다는 그 형식(form)”(앞의 책, 238)에 주의를 기울인 채 “가능한 한 명확하게

사물에 대해 말하고 (… 무엇보다), 피분석자의 어휘 내에서 작업”(앞의 책, 237)을 해야 한다.

최근 정신증의 임상과 관련해 프로이트 대의 학파(ECF)는 신경증과 정신증 진단의 고전적 이분법의 한계에 봉착하면서 ‘평범한 정신증’의 개념을 도입한다. 이것은 자크 알랭 밀레(Miller, J.-A.)가 아버지의 이름과 생통(sinthome)에 관한 라캉의 후기 이론의 자원을 활용하여 착안한 임상의 인식론적 용어다. 이를 통해 라캉 정신분석 임상에서 정신증을 “정신병(extraordinary psychosis)과 평범한 정신증(ordinary psychosis)”(Olive 2019b: 7)으로 하위 구분하여 진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신경증이 하나의 명확한 구조로서 증명되어야 함에 따라, 만일 신경증적 구조가 보이지 않는다면 ‘숨겨진 정신증’으로서 이는 평범한 정신증으로 볼 수 있다는 전제를 내포한다. 정신증적 구조에서 정신증적 현상을 나타냄으로써 발병하는 정신병과 정신증적 구조이지만 정신증적 현상을 가지적으로 나타내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나타냄으로써 정신병으로 확정되지 않는 범주를 평범한 정신증으로 보는 것이다. 평범한 정신증은 “정신증이 명백하지 않지만, 환자의 증상에서 신경증의 안정성, 그것의 주된 특성이 없을 때, 그리고 특별한 정신증의 징후들 역시 없을 때의 정신증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다”(앞의 책, 8).¹³⁾ 이러한 관점은 현재의 우리 사회에서 정신증을 이해하는 세밀한 견해를 제시한다. 따라서 라캉학파의 정신분석 임상에 임하는 분석가로 하여금 정신증적 주체를 좀 더 면밀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토대로 좀 더 유용한 분석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이상의 정신분석 실천에서 발견되는 정신증적 주체의 구조와 현상, 분석의 목표, 전이와 관련한 분석가의 입장, 분석의 테크닉,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발견되는 정신병과 평범한 정신증에 대한 논의는 라캉학파의 정신증의 임상의 이해에 대한 논의다. 이는 정신증의 주체적 실현을 위한 분석가의 역할로서 가능해진다.

5. 정신증의 주체적 실현을 위한 분석가의 역할

정신증의 주체적 실현을 위한 분석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는 정신증의 메커니즘을 이해함으로써 “오이디푸스적인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의미를 만들어내고, 또 의미와 주이상스를 분절할 수 있”(Olive 2019b: 7)음을 배우게 된다. 현대 사회는 아버지의 이름의 지위가 변화함에 따라 상징계는 주이상스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사실도 이해하게 된다.

라캉의 이론에서 1970년대 후기의 가르침은 생통을 통해 주체의 증상 개념을 확장한다. 『세미나 23권: 생통(*The Sinthome*)』에서 등장하는 생통은 “상징계, 상상계, 실재를 함께 묶을 뿐만 아니라, 다른 두 가지의 고리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매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Lacan 2016: 77). 이와 같은 생통의 개념은 “전통적인 아버지의 이름에 연결된 증상들과 아버지의 이름의 기능을 하는 것과 연결된 증상들을 포괄”(Olive 2019b: 10)한다. 따라서 현대 정신분석가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분석주체의 증상의 이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경

13) 평범한 정신증은 “주체에게 생의 감각의 가장 내밀한 연결 지점에서의 혼란”(Olive 2019b: 8)이라고 부르는 것을 찾으려 한다. 그들은 “몸, 사회, 주체라는 세 가지의 외부성에 따라 생의 감각의 혼란”(앞의 책, 8)을 겪는다. 첫째, 몸의 감각의 혼란은 몸이 해체와 관련하여 몸을 다시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한 인위적인 연결들을 보이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패션, 문신, 피어싱 등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대신”(앞의 책, 9)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사회에 대한 감각의 혼란은 “주체가 사회적 기능을 획득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울 때, 특히 분리와 단절이 있을 때, 주체가 자신의 사회적 동일시와 부정적으로 관계 맺는 것은 하나의 지표”(앞의 책, 8)가 되는 것과 연관된다. 이들에게 일은 각인되고 불리어지는 방식으로 아버지의 이름의 역할을 한다. 셋째, 주체의 감각의 혼란은 “공백과 허무의 경험에 처해 있고, 변증법이지 않으며, 특별한 고정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언어와 근본적인 관계를 맺어, 되새김으로 압도당하”는 것과 연관된다.

증, 도착증, 정신증을 주체가 세계 내에서 존재하는 실존적인 태도이자 향유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이들을 동등하게 존중해야 한다. 또한 분석가는 각각의 분석주체가 그 자신의 주체적 실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고유한 보로메오 “매듭의 양식과 매듭의 복원작업”(앞의 책, 10)에 대해 탐구하고 참여해야 한다. 삶의 진실은 바로 분석주체에게 있기 때문이다.

현대 정신분석가 아르멜 기바슈(Guivarch, A.)는 「조현병과 편집증의 치료」에서 분석적 개입과 관련해 “연안 지대”(Guivarch 2019: 19-21)의 용어를 사용한다. 연안 지대(沿岸 地帶)는 ‘강이나 호수, 바다를 잇달아 있는 육지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한정된) 일정 구역’이다. 기바슈는 한 정신증적 주체의 사례에서 환각과 망상에 기초한 시적인 글쓰기를 ‘연안 지대’로 표현한다. 이러한 연안 지대는 정신증적 주체에게 아버지의 목소리와 자신의 시(詩)가 함께 만들어내는 공존 지대이기도 하고, 자신의 목소리인 시가 아버지의 목소리와 외부의 침입을 막는 접경지대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안 지대는 통합의 의미보다는 공존의 의미를 담고 있다.

프로이트와 라캉을 통해 정신증적 주체가 환각과 망상으로 자신의 삶의 구조를 새롭게 세우고 우아한 해결(I 도식)에 이름을 고찰한 바 있다. 이는 정신증적 주체가 자신의 삶을 “거주할 만한 것으로 만들면서도 또 뒤틀어지게 하는 것, (… 중국에는 자신의 삶에서 실재를 통한 상상계와 상징계의) 탈중심적 재조직화”(Lacan 1966/2019: 679)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다른 말로 ‘증상과의 동일화’로서 “주체가 증상의 실재 속에서 자기 존재의 유일한 지탱물을 인정하는 것, 병리적 특수성 속에서 존재의 일관성을 부여하는 어떤 요소를 인정하는 것”(이수진 2018: 75)이다.

정신증적 주체의 삶의 재조직화 작업에서 분석가는 그가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발견하고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의미의 세계를 구축하도록”(Fink 1997/2002: 189)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가의 역할은 정신증적 주체의 연안 지대를 발견하고 만드는 작업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신증적 주체의 네 번째 고리인 보로메오 매듭의 강약을 이해하고 매듭의 복원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그 자신만의 연안 지대를 만들고 주체적 실현을 해 가도록 언어적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분석가의 역할이다. 이는 정신증적 주체가 스스로 발견해 낸 자기 해결책으로 주체적인 삶의 길을 가도록 돕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분석에서 분석가의 역할은 정신증적 주체가 발견한 보완물을 지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닐 수 있다.

물론 신경증적 주체에게는 무의식의 형성물이 있듯이, 정신증적 주체에게는 환각과 망상의 기초 현상이 있다. 정신증적 주체는 망상을 촉발하게 하는 기표가 갑자기 나타나는 순간에 분석가를 찾아올 수 있다. 밀레에 따르면 “수수끼끼를 만드는 시니피앙으로부터는 무의식의 연쇄가 나타나게 할 수 없고, 알고 있다고 가정된 주체는 편집증에 기여해서 내게 해를 끼치거나 나를 향유하기를 원한다고 상정된 주체의 가치를 갖게 된다”(Guivarch 2019: 19). 즉 신경증적 주체에게는 ‘안다고 가정된 주체’가 있듯이, 정신증적 주체에게는 ‘향유한다고 가정된 주이상스적 주체’가 상정된다. 이는 정신증적 주체의 상상적 전이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그들은 분석가에 대한 전이에서 “자신과 닮은 타자로서 열정적인 사랑 혹은 열정적인 증오를 포함”(Fink 2007: 247)한다. 신경증적 주체의 전이는 지식과 열정을 포함하는데 비해, 정신증적 주체의 전이는 주로 열정만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신경증적 주체에게 욕망이 있듯이 정신증적 주체에게 충동이 있는 것과 연결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분석가는 정신증적 주체의 분석에 임해야 한다.¹⁴⁾

14)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정신증에 대한 라캉의 정신분석 실천을 탐구하는 논의다. 본 연구는 라캉의 정신증의 메커니즘 이해를 토대로 핑크를 중심으로 한 라캉학파의 정신증의 임상, 그리고 분석가의

한 세미나에서 “이야기 할 곳이 필요하다”고 분석가에 말하면서 분석을 시작한 정신증적 주체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 정신증적 주체는 그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 없이 한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이야기할 수 있는 타자가 필요한 것이다. 지난(至難)하지만 긴 비관계의 관계의 분석의 여정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진실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 ‘그들이 자신의 연안 지대에서 스스로의 삶을 재건축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석가의 믿음이 전제한다면 말이다.

프로이트가 정신적 외상의 영향, 충동의 체질적 강도, 그리고 자아의 변화 사이에서 “자아의 기능의 최선의 심리적 조건을 세우는 것”(Freud 1964: 250)으로 기록한 정신분석의 목표의 의미를 라캉의 상상계와 상상계와 실재를 재결합시키는 생통에 관련지어 확대 해석해 보고자 한다. 주체의 최선의 심리적 조건을 세우는 것은 생통을 통해 “그것이 있는 곳에서 내가 주체가 되어야 하”(Lacan 1966/2019: 1022)¹⁵⁾는 것과 연결된다. 이처럼 우리는 증상·현상·행위를 통해 광기에 가득찰 수도 있고, 생통을 통해 삶을 새롭게 복원함으로써 자유롭게 주체적인 길을 갈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주체적 실현을 위해 증상(현상, 행위)을 어떻게 바라보고, 마주하며, 삶을 다시금 구성해 나가는가에 있다. 그러한 점에서 정신증적 요소는 우리 안에, 우리의 옆에, 우리와 함께 있는 존재다. 이에 연안 지대를 만드는 길로서 우리 사회의 정신증에 대한 라캉의 정신분석 실천을 논의한 본 연구 작업이 정신증적 주체를 한 층 더 이해하고 그들의 주체적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신명아 (1999). 「프로이트와 라캉의 쉬레버 박사의 정신병 사례 비교: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 『현대정신분석』. 1(1), 18-38.
- 이수진 (2018). 「히스테리 분석의 종결의 의미: 분석가와의 분리와 자신과의 분리」. 『현대정신분석』. 20(2), 47-91.
- 정경훈 (2010). 「“Kill Dick”: 조승희의 희곡작품 분석을 통한 그의 정신 구조와 범행 동기 연구」. 『현대정신분석』. 12(1), 49-72.

역할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에서 정신증은 편집증과 조현병을 포함하고, 밀레의 관점을 수용해 정신병과 평범한 정신증에 대한 논의도 포함한다. 다만 라캉학파의 정신분석 실천에서는 편집증의 분석과 조현병의 분석이 구분되어야 한다. 이는 편집증과 조현병의 구조적 차이에서 비롯된다. 편집증은 투사를 주요 메커니즘으로 한 자기에 단계까지 퇴행한 이후 망상을 통해 재건축이 나타난 정신증적 상태다. 이에 비해 조현병은 환각을 주요 메커니즘으로 한 대상애를 완전히 포기한 유아기의 자가성애로 퇴행한 이후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신증적 상태다. 이러한 편집증과 조현병의 구분은 쉬레버와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차이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 쉬레버는 편집증적 주체로서 “상상적 동일화를 통해 상징적 정체성을 구성”(홍준기 2013: 227) 또는 보충한 존재라면, 조이스는 조현병적 주체로서 “차이 혹은 파편화된 실재와 동일화(를 통해) 타자성을 포함한 자아”(앞의 논문, 227)를 구성하여 매듭을 수선한 존재다. 이러한 조이스의 매듭은 라캉의 『세미나 20권: 앙코르』와 『세미나 23권: 생통』을 통해 여성성의 논의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논의 범위를 넘어서는 바, 본 연구자는 정신증에 대한 라캉의 정신분석 실천에서 편집증의 분석과 조현병의 분석이 엄밀히 세분화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피력하고자 한다. 프로이트와 라캉의 쉬레버 분석 비교에 관한 연구는 「프로이트와 라캉의 쉬레버 박사의 정신병 사례 비교: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신명아 1999: 18-38)을 통해, 라캉적 관점에서의 정신증적 구조(편집증적 주체)에 대한 텍스트 분석 사례로는 「“Kill Dick”: 조승희의 희곡작품 분석을 통한 그의 정신 구조와 범행 동기 연구」(정경훈 2010: 49-72)를 통해 잘 이해할 수 있다.

- 15) “그것이 있던 곳에 우리는 주체로 나타나야 한다”(Lacan 1966/2019: 1022)를 필자는 “그것이 있는 곳에서 내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로 옮긴다.

- 홍준기 (2013). 「조이스의 증상(sinthome): 라캉의 정신병 임상과 조이스 증상의 윤리성」. 『현대정신분석』. 15(1). 211-238.
- Evans, D. (1996). *An Introductory Dictionary of Lacanian Psychoanalysis*. 김종주 옮김 (1998). 『라캉 정신분석 사전』. 인간사랑.
- Fink, B. (1997). *A Clinical Introduction to Lacanian Psychoanalysis: Theory and Technique*. 맹정현 옮김 (2002). 『라캉과 정신의학』. 민음사.
- (2007). *Fundamentals of Psychoanalytic Technique: A Lacanian Approach for Practitioner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Inc.
- Frances, A. (2013). *Essentials of Psychiatric Diagnosis: Responding to the Challenge of DSM-5*. 박원명 외 5인 옮김 (2014). 『정신의학적 진단의 핵심: DSM-5의 변화와 쟁점에 대한 대응』. 쏠시그마프레스.
- Freud, S. (1894). "The Neuro-Psychoses of Defence". *SE*, Vol. 3. In J. Strachey (Ed. & Trans.) (1962). London: Vintage Books.
- (1896). "Further Remarks on the Neuro-Psychoses of Defence". *SE*, Vol. 3. In J. Strachey (Ed. & Trans.) (1962). London: Vintage Books.
- (1911). "Psycho-Analytic Notes on an Autobiographical Account of a Case of Paranoia(Dementia Paranoides)". *SE*, Vol. 12. 김명희 옮김 (1996). 「편집증 사례에 대한 자전적 기록의 정신분석」. 『늑대 인간』. 열린책들.
- (1924a). "Neurosis and Psychosis". *SE*, Vol. 19. In J. Strachey (Ed. & Trans.) (1961). London: Vintage Books.
- (1924b). "The Loss of Reality in Neurosis and Psychosis". *SE*, Vol. 19. In J. Strachey (Ed. & Trans.) (1961). London: Vintage Books.
- (1937a). "Analysis Terminable and Interminable". *SE*, Vol. 23. In J. Strachey (Ed. & Trans.) (1964). London: Vintage Books.
- (1937b). "Constructions in Analysis". *SE*, Vol. 23. In J. Strachey (Ed. & Trans.) (1964). London: Vintage Books.
- Guivarch, A. (2019). 「조현병과 편집증의 치료」. 『2019년 한-불 자끄 라캉 정신분석 학술대회 자료집: 현대 정신증에 관한 라캉주의 정신분석 치료의 방향과 실제』. 13-21.
- Hamilton, N. G. (1990). *Self and others: Object Relations Theories in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Book.
- Lacan, J. (1966). *Écrits*. 홍준기 외 3인 옮김 (2019). 『에크리』. 새물결.
- (1981).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III: The Psychoses, 1955-1956*. Ed. J.-A. Miller. Trans. R. Grigg (1993). NY: W. W. Norton & Company.
- (2005).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XXIII: The Sinthome, 1975-1976*. Ed. J.-A. Miller. Trans. A. R. Price (2016). MA: Polity Press.
- Laplanche, J. & Pontalis, J.-B. (1967). *Vocabulaire de la psychanalyse*. 임진수 옮김 (2005). 『정신분석사전』. 열린책들.
- Mitchell, S. A., & Black, M. J. (1995). *Freud and Beyond*. New York: Basic Books.
- Olive, D. (2019a). 「정신증의 정신분석적 치료는 어떻게 가능해지나?」. 『2019년 한-불 자끄 라캉 정신분석 학술대회 자료집: 현대 정신증에 관한 라캉주의 정신분석 치료의 방향과 실제』. 1-3.
- (2019b). 「라캉 정신분석의 현대 정신병 임상의 특징」. 『2019년 한-불 자끄 라캉 정신분석 학술대회 자료집: 현대 정신증에 관한 라캉주의 정신분석 치료의 방향과 실제』. 7-12.
- Schreber, D. P. (1903). *Denkwürdigkeiten eines Nervenkranken*. 김남시 옮김 (2010). 『한 신경병자의 회상록』. 자음과모음.

“우리 사회의 정신증에 대한 라캉의 정신분석 실천: 정신증적 주체의 연안 지대를 만드는 길”에 관한 토론문

김석 (건국대)

정신증 진단에 대한 라캉의 가장 큰 기여는 부성은유 부재로 인한 상징계 구축 실패를 통해 정신증 구조를 정의하면서 신경증(거세와 분리)과 정신증(거세 실패)의 차이를 명확히 한 점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폐제(foreclosure)됨에 따라 어머니의 원초적 욕망에 대한 상징적 대체(팔루스)가 불가능해지고, 시니피앙 연쇄의 부재가 구멍처럼 벌어지면서 이 틈을 메우기 위해 망상적인 것이 동원되는 것이 정신병 구조다. 라캉 이론은 부권기능을 중심으로 정신증을 설명하기 때문에 임상 뿐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정신증이 만연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긍정성이 있다. 현대 사회는 한 마디로 정신증적 현상이 만연한 사회다. 이를 통해 임상적 차원의 정신병 증상(환각, 망상, 기능저하 등)은 물론 현대사회에서 벌어지는 극단적 개인주의, 다양한 폭력과 범죄, 병리적 아노미와 일탈 확산을 아버지의 이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생기는 사회정신병적 구조로 설명하면서 사회심리적 차원에도 이론적 지침을 줄 수 있다. 그런데 부권기능의 부재로 정신병과 신경증을 나누면 결국 치료의 관점에서 정신증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쉽지 않다. 왜냐하면 폐제된 아버지의 이름은 차후에 복원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정신병을 임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역설적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런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라캉의 부성은유 - 핑크의 소외와 분리의 실패를 통해 정신증 메커니즘을 진단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정신증적 주체의 연안지대를 만드는 것을 통해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원론적 진단에 그치는 점이 좀 아쉽다. 다음 질문과 토론을 통해 후속 작업에 대한 실마리를 더 풍부하게 하며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다.

질문

- 망상과 환각의 차이점을 언급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것이 편집증과 정신분열증에 고유한 특징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보충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 핑크를 인용해 상징계의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상계를 복구함으로써 정신병 발작 이전에 존재했던 안정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상상계는 곧잘 망상과 통하는데 과연 이것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핑크의 대안은 다소 순진하게 보이는데? 핑크의 분석보다는 연안지대의 근거와 방안을 좀 더 확장하는 게 좋지 않을까?
- 기바슈의 글에 근거해 제시한 ‘연안지대’ 개념은 실천적 대안으로 흥미롭다. 그런데 연안지대를 만든다는 것은 실천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증상과의 동일시’를 통한 주체화적 방안인가? 생통을 통한 네 번째 매듭의 도입인가? 향후 임상적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탐구가 필요할 것 같다.
-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증은 특히 뇌기능 장애와 관련되어 있다는 정신의학의 진단에 대해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정신증: 또 다른 진실을 위한 현대정신분석학적 탐구¹⁶⁾

이해리(현대심리치료연구소)

우리의 내적 삶은 외상(外傷)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타격을 입은 내면이 발달시킨 정신증¹⁷⁾은 질식되고 묻혀버린, 그리고 생명과 관련된, 진실을 향한 절박한 추구이다. 치료자는 자기 안에 잠재된 광증의 요소와 함께, 내담자의 고통과 두려움의 신호들을 만나면서 이 긴장되고 비틀린 과정에 참여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내담자와 소통할 길을 찾을 수 없으며 그의 진실에 접촉할 지점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신증적 역동과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전제로 한 여정이다. 본 연구는 정신증적 과정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탐구로서, 이 탐구가 왜 필요한가, 정신증적 역동과 과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것이 내담자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존재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1. 피하고 싶은 내담자, 두려운 경험

교인들에게 악령에게 붙들렸다고 오해를 받은 소년을 만난 적이 있다. 소년은 조현병이라는 자신의 장애뿐 아니라 그 오해로 인하여 외상을 입었다. 사람들의 눈이 시커먼 탁구공으로 보이는 내담자나, 자신이 마시던 음료를 치료자에게 먹이려고 애쓴 내담자 사례를 들은 적이 있다. 그 내담자들은 충분히 깊이 이해 받을 시간을 갖지 못했다. 또 내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전달된 살인 메시지를 접촉할 수 없었던 치료자와, 내담자가 환청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치료적 개입을 포기했던 치료자의 좌절도 목격하였다.

정신증적 내담자, 그리고 그들과의 경험은 치료자 편에 당혹스러움과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긴장과 두려움, 때로 혐오를 촉발한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그들에 대한 지식의 한계와 우리 자신 안의 광증에 대한 두려움, 정신증은 심리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편견, 그리고 심리장애를 치료하는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과 갈등을 빚고 싶지 않은 회피가 있다. 이러한 역전이들과 거리 두기는 정신증에 대한 오해를 지속시킬 뿐 아니라, 임상 현장에서의 무력감과 방어적 자세를 빚어낸다.

그러나 일상의 언어들 가운데에는 광증에 대한 은유적 표현들이 많고, 심각한 정신적 손상에 대한 두려움과 그에 대한 암묵적이지만 보편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이는 우리 자신의 본성 안에도, 정신의 가장 깊은 곳에 정신증적 요소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또한 이 기본적인 광증이야말로 인류 역사에 영향을 미친 인간사의 저변에 흐르는 특징이기도 하다.¹⁸⁾ 본

16) 본고는 2015년 학술지 '목회와 상담'에 게재한 논문을 토대로 한 것임.

17) 정신증은 기질적 원인이 분명한 정신증과 유전적, 생물학적 영향도 있지만 주로 심리사회적 원인과 관련된 정신증으로 분류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관심은 개인적 경험과 심리적 반응이 정신증의 발달과 증상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능적 정신증에 제한된다. DSM-5 상으로는 정신분열 스펙트럼과 편집증, 그리고 정신증적 수준의 우울 및 양극성 장애가 이에 포함된다. 그리고 다양한 신경증적 증상으로 정신증적 핵을 숨기고 있으면서 스트레스 하에서 간헐적으로 정신증적 붕괴를 나타내는 심각한 인격장애나 경계선 내담자들이 있는데, 본 고에서는 이들을 배제하지 않고 정신증적 과정을 탐구하고자 한다.

18) 일례로 히틀러의 광증은 물론이고 그의 광증에 참여하고 협력한 수많은 '평범한' 지성인들을 기억해

연구의 목적은 임상 현장에서 종종 부딪치지만 오해되고 기피되어온 정신증에 대한 정당한 관심을 촉구하고, 이해와 치료의 대상으로서 정신증을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정신증을 증상별로 ‘분류’하는 진단적, 통계적 접근을 탈피하여 심층심리학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애써 온 정신분석학 내의 흐름을 고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이 내담자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본성과 내적 삶을 이해하는데 빛을 비춰줄 수 있을지 탐색할 것이다. 이어서 정신증적 자기(psychotic self)의 주요한 역동과 과정을 현대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의 사례들을 간략히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탐색이 내담자와 치료자 자신에게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영역을 탐구하고 직면하는 것은 분명 영적 순례이기도 하거니와, 이 과정이 편견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내담자들을 치유로 이끌 수 있도록 도우리라 기대한다.

2. 정신증에의 탐구: ‘자기애적 퇴행’으로부터 ‘진실의 추구’까지

정신증이란 무엇일까? Freud는 정신증에 대하여 양가적인 생각을 가졌다. 초기에는 환자의 리비도가 대상으로부터 철수하여 자기애적으로 퇴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에 필요한 전이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 대상에게 충분한 관심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정신증 내담자를 치료한 적이 없었지만 정신증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은 적도 없었다. 그는 판사 Daniel Paul Schreber의 회고록을 흥미롭게 읽고 분석했으며, 그 결과 편집증이 내면의 견딜 수 없는 나쁜 면을 외부로 투사한 결과라는 초기의 생각을 보완해서 억압된 동성애적 갈등에 대한 방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¹⁹⁾ 그러나 그의 분석이 개인적으로 만난 적 없는 환자의 기록에 기초한 것이며, 신경증 연구에서 파생된 이론을 가지고 정신증 사례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다. 특히 리비도의 자기애적 철회나 동성애적 소망의 투사를 강조하고 공격성과 적대감의 역할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²⁰⁾

Freud와 대상관계이론의 교량역할을 한 M. Klein은 정신분석학에서 정신증적 역동들을 증언하는 초기 목소리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다. 그녀는 유아의 심리발달과정에서 편집-분열 기제에 관심을 갖고 관찰하면서 ‘투사적 동일시’ 개념을 만들었다. 그녀에게 투사적 동일시는 유아가 고통스런 느낌이나 자기 안의 원치 않는 부분들을 타자에게 보냄으로써 그것들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환상이다. 그녀의 이론이 정신병리적 발달과정과 정상적 발달과정을 뒤섞어서 일반화한다는 비판과, 유아가 겪는 고통을 공격성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증오와 파괴적 욕망, 그리고 가학증과 동등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그녀는 모든 유아가 ‘정신증적(psychotic-like)’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녀의 분열, 투사와 내사의 순환, 부인, 전능성, 그리고 투사적 동일시 개념들은 심각한 병리를 이해하고 치료적으로 접근하는데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기초를 놓았다. 그녀가 이렇게 런던 정신분석학과 안에 정신증의 위치를 분명히 함으로써 영국 정신분석학의 방향이 바뀌었고, 이는 후에 현대 정신분석학의 기초를 놓았다. 특히 정신증의 이해에 핵심이 된 투사적 동일시 개념은 그녀의 제자이자 동료들이었던 H. Rosenfeld, H. Segal, W. Bion 등에 의해 정교화되었다.²¹⁾

보라.

19) 지그문트 프로이트/김명희 옮김, 『누대인간: 프로이트 전집 9』(서울: 열린책들, 2003), 110-193. 프로이트는 이 논문에서 여성/거룩한 창녀가 되고 신과 인간 모두를 완성시키는 존재로 승화한다는 Schreber의 망상을 억압되고 투사된 동성애적 소망으로 분석하였다.

20) 윌리엄 마이쓰너/이재훈 옮김, 『편집증과 심리치료』(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9), 123-124

21) Joseph Aguayo, “On Understanding Projective identification in the Treatment of Psychotic

로젠펠드는 투사적 동일시가 유아와 성인 모두가 방어적으로 사용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타자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의사소통으로 사용된다고 봄으로써 투사적 동일시를 대인관계적 과정으로 확장했다. 또 정신증 내담자는 말이 아니라 투사적 동일시를 통해서 자기의 원치 않는 부분을 타자에게 강력하게 투사할 뿐 아니라, 그 만큼 강력하게 타자들을 자기 안으로 내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두 과정들은 자기-대상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는 비온처럼 투사적 동일시를 담아주지 못하는 모성의 실패에 주목했는데, 담기의 실패가 과도한 시기심과 공격성을 초래해서 이를 방어해야 할 필요 때문에 정신증적 방어를 낳는다고 보았다.²²⁾ 치료자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내담자가 투사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을 통해서 내담자의 비언어적인 소통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주장하였다.²³⁾

비온에게 투사적 동일시는 유아가 어머니와 갖는 초기 상호작용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유아는 고통을 어머니에게 투사함으로써 그것을 제거하고자 하고, 이때 어머니의 일차적인 역할은 유아가 감당하지 못하는 좌절과 고통을 대신 담아주는 것이다. 비온은 특별히 정신증 내담자들의 마음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보여주었다. 그는 정신증 내담자들이 자신의 투사를 담아줄 엄마를 갖지 못했고, 좌절에 대한 인내력이 낮아서, 자신의 정서적 경험과 그것을 경험하는 자신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관찰하였다. 즉 ‘대상 없음’의 경험을 견디지 못하는 유아가 자신의 정서와 마음을 제거해버리는데, 이는 충분히 좋은 ‘외적’ 담는 것의 경험이 없고 그로 인해 자신의 정서와 마음을 조절하고 중재할 충분히 좋은 ‘내적’ 담는 것(알파기능, 꿈꾸기, 환상)을 발달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²⁴⁾ 결과적으로 유아는 성장을 위한 변형적 매체를 갖지 못하게 되고 엄마는 ‘방해하는 대상’이나 ‘연결을 파괴하는’ 대상, 즉 모든 좋은 것들을 벗겨내 버리는 ‘초’자아로 변형된다. 결국 정신증적 마음이란 담아주는 대상으로부터 내재화하지 못한 알파기능의 결핍으로, 처리(소화)되지 못한 경험의 잠재적 요소(베타)들을 비워내 버린 헐벗음(denudation)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클라인의 영향을 받았지만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환경의 역할을 누구보다도 강조했던 D. W. Winnicott은 정신증이 절대적 의존기의 모성의 실패와 관련된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초기 자기는 창조적이고 풍부한, 그러나 양가적인 전능성을 경험한다. 대상을 창조하고 또 발견하는, 이 자기와 타자 사이의 모호성이 중요하다. 창조와 발견이 하나인(즉 발견이 곧 창조가 되는) 차원에서 자기는 살고 번성하는데, 그 모호성이 너무 이른 현실의 침범으로 인해 손상을 입으면 자기의 존재감은 말살된다. 이때 자기는 창조하는 주체로서가 아니라 피동적 존재로서 경험에 대한 현실성을 붙잡지 못하는, 즉 경험하는 순간의 생생한 느낌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정신증적 특징이 고착된다. 자기-느낌은 사라지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응집성을 발달시키지 못하게 된다.²⁵⁾ 따라서 정신증에서의 붕괴의 두려움은 생애 초기에 이미 발생했던, 감추어져 있는 사건 때문이라고 제안하였다. 신경증이 정신증을 덮고 있는 것에 관해서도 중

state of mind: The Publishing Cohort of H. Rosenfeld, H. Segal, and W. Bion(1946-1957),"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90 (2009), 69-92.

22) 프랭크 써머즈/이재훈 옮김, 『대상관계 이론과 정신병리학』(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4), 183-186.

23) Herbert Rosenfeld, *Impasse and Interpretation: Therapeutic and Anti-therapeutic Factors in the Psychoanalytic Treatment of Psychotic, Borderline, and Neurotic Patients*. (London: Tavistock 1987), 191-222.

24) 윌프레드 비온/윤순임 옮김, 『경험에서 배우기』(서울: 눈출판사, 1970/2011), 25-47.

25) Michael Eigen, "The Area of Faith in Winnicott, Lacan, and B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62(1981), 413-418.

중 언급하였으며, 그것이 존재 안에 있는 거짓된 자기의 느낌과 연관된다고 보았다.²⁶⁾ 따라서 그는 현실에 대한 생생한 느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신증적 불안을 직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는데, 특히 회기 안에서 광증이 표면으로 떠오를 수 있고 작업될 수 있다고 본 거의 최초의 분석가였다. 또한 그는 정신분석 이론을 정신증과 같은 심각한 정서장애 치료에 적용할 때 정신분석 상황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와 치료자의 역할과 역전이가 담당하는 역할이 무엇 인지를 밝힘으로써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²⁷⁾

위니캇과 비온의 영향을 받은 M. Eigen은 비온의 사상 중 신비의 측면을 잘 묘사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정신증에서 외상으로 인하여 멸절된 자기로 고통당하는 마음과, 자기의 삶에 닥친 절박한 재앙의 느낌을 처리할 수 없다는 느낌을 주시한다. 좌절을 너무도 견딜 수 없어서 마음이 그것을 담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없고 표상조차도 간직할 수 없는 ‘생각 없음’의 상태에 주목한다. 또한 정신적 양분을 대체하는 공허하고 폭력적인 양분이 마음 자체를 무화(無化)시킴으로써, 모든 것이 인격의 핵심 안에 접촉되거나 들어가지도 전에 비워지고, 정서가 진공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블랙홀을 기술한다.²⁸⁾

비온의 피분석자였던 J. Grotstein은 비온을 가장 충실하게 해석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특히 비온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사고들이 일관되게 가리키는 것은 우리의 정신 안에 ‘진실 욕동’이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본능적 욕동으로서 진실의 추구는 비인격적인 궁극적 실재에 관한 절대적 진실을 실재에 관한 인격적이고 주관적인 진실로 변형시킨다. 그로트슈타인은 이를 ‘진실 원리’라고 부르고, 그것이 현실과 쾌락, 불확실성의 원리들을 수반하지만 그것들과의 관계에서 더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고 본다. 그는 비온의 사고에서 ‘진실’이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서, 우리가 자신 및 대상들과 갖는 모든 관계에 관한 정서적 진실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비온의 신앙(F)의 개념은 진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진실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²⁹⁾

이와 같이 정신증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면서, 치료적 관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왔다. 정신증 내담자가 담는 것(container)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치료는 내담자가 치료자의 담기를 내사하여 스스로의 정서를 담아내고 경험해내며 사고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³⁰⁾ 또 자신의 내적 경험을 소통하지 못하는 정신증 내담자가 투사적 동일시를 통해 전달하는 무의식적 내용을, 치료자가 역전이를 통해 공감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해석의 정확성 못지않게 치료적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러려면 치료자는 내담자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전달하는 정서적 경험을 소화하고 동화하도록 자신을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치료자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찰자요 해석의 제공자로서가 아니라, 내담자가 ‘되는데’ 소극적 능력(negative capability) 안에서 내담자와 접촉을 유지하는 역량을 요구한다.³¹⁾

26) Donald Winnicott, "Fear of Breakdown," *International Review of Psycho-Analysis*, 1(1974), 103-107;

도널드 위니캇/이재훈 옮김, 『놀이와 현실』(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7), 141-142.

27) 도널드 위니캇/이재훈 옮김, 『성숙과정과 촉진적 환경』(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0), 352-355 ; Donald Winnicott, "Hate in the Counter-Transfer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0(1949), 69-74.

28) 마이클 아이건/이재훈 옮김, 『감정이 중요해』(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11), 239-261; 마이클 아이건/이재훈 옮김, 『무의식으로부터의 불꽃』(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9), 71-107; 마이클 아이건/이재훈 옮김, 『정신증의 핵』(서울: 한국 심리치료연구소, 2013), 151-190; 마이클 아이건/이재훈 옮김, 『독이 든 양분』(서울: 한국 심리치료연구소, 2009), 201-253.

29) 제임스 그로트슈타인/이재훈 옮김, 『흑암의 빛줄기: 윌프레드 비온의 정신분석학』(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12), 207-224, 299-322.

30) 조안 시밍턴, 네빌 시밍턴/임말희 옮김, 『윌프레드 비온 입문』(서울: 눈출판사, 2008), 49-67.

3. 인간 본성에의 탐구: 정신증적 역동의 일차성

정신증적 역동은 정신증 내담자 안에서만 일어나는 과정일까? 정신증에 대한 연구가 우리 자신의 본성과 내적 삶을 이해하는데 빛을 비춰줄 수 있을까? 정신증으로 진단되지 않은 내담자들도 정신증적 특성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현실검증에 취약하고 자기와 타자 사이의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흔하다. 처음에는 경미해보이던 증상들이 치료가 진행되면서 점점 더 심각하고 완강한 증후들로 드러나기도 한다. 위니콧은 신경증의 배후에 정신증이 숨어 있다고 지적했는데, 치료를 통해 더 나은 방어를 획득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등 겉보기에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지만, 밑바닥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집요하게 사라지지 않을 수 있으며, 여전히 삶이 가짜 같다는 느낌이 있는 경우가 있다.³²⁾ 경계선적 내담자들은 정신증적 핵을 갖고 있으면서 병적 불안이 표출되려 할 때는 다양한 신경증적 증상을 만들어내서 치료가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는 신경증으로 다루어지고자 하는 내담자의 필요와 치료자가 공모한 결과일 수 있으며, 그런 경우 내담자의 정신증적 내면에는 변화가 없이 그 상태로 지속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사람들도 광증에 대한 공포나 인격의 통합이 깨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부인하려고 한다. 탈인격화(depersionalization)는 흔히 발견되며, 가장 원시적인 자기와 접촉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예술적 표현으로 표출되기도 한다.³³⁾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묘사하면서 시간을 초월하고 모순되는 것도 없고, 외적 현실이 아닌 내적 현실이라고 한 것과, 우리 마음의 한 부분은 외부 현실세계와 접촉되지 않은 채, 환각적이고 소망 충족적으로 작용한다고 했을 때, 이는 정신증의 현상학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는 꿈 생활이 ‘매일 밤 모든 개인에게 발생하는 정신증’이라고 단언했다.³⁴⁾ 사랑에 빠지는 것도 경계의 상실과 대상의 이상화를 수반하는 일종의 정신증이며, 군대나 교회의 집단 지도자의 전능적인 과대주의를 따르면서 나타나는 자기 상실도 정신증적 역동이 작용한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프로이트는 정신증적 경험이 인간의 내적 삶에 일차적이라고 본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프로이트는 정신증적 격랑 가운데서도 자아가 명료함의 영역을 유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내담자가 외부세계의 현실에서 벗어나 환각상태에 있을 때조차도, 그의 마음 한 구석에 초연한 관객처럼 정상적인 인격이 숨어있고, 그것이 환영(幻影)의 소용돌이가 자신을 통과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회복되었을 때 알게 된다.³⁵⁾ 실제 임상장면에서 환각과 망상에 사로잡힌 내담자조차도 자신을 담아줄 대상을 갈망하고, 존재의 심연의 광증에 접촉해주기를 추구하는 것을 간혹 목격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자아는 온전한 정신과 광증 모두를 가지고 있으며, 광증은 타고난 것인 동시에 적응의 한 형태, 즉 정서적인 고통과 삶의 긴장에 대한 절박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31) 이해리, “부적치료반응: 오래된 역설, 새로운 희망” 『목회와 상담』 22(2014), 205.

32) Donald Winnicott, “The Use of an Object and Relating through Identifi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50(1969), 711-716.

33) 도널드 위니콧/이재훈 옮김, 『소아의를 거쳐 정신분석학으로』(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11), 320.

34) “꿈이 정신증의 모든 기이함들, 망상들, 환각들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정신증이다. 짧은 순간 지속되는 이 정신증은 해(害)가 되지 않고 내담자의 동의와 함께 도입되고 종결된다. 꿈을 통해 정신적 삶에 깊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일종의 정신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학 개요』(서울: 열린책들, 2004), 172.

35) 마이클 아이건, 『정신증의 핵』 25p.에서 재인용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정신의 정상성 뿐 아니라 비통합된 상태 혹은 광증을 추구할 수도 있다. 광증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면 삶은 오히려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광증이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꿈, 환상, 예술을 통해 표출되면서 우리의 내적 세계를 생명력 있고 현실감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Matte-Blanco의 말처럼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과 동등시 되는 미분화된 무의식 안에서는 구조적이고 언어적인 차이들은 용해되고 관계의 새로운 패턴들이 출현한다. 환상적인 이미지들과 직관적인 시어(詩語)들은 통합과 생각 없는 비통합 사이의 여정에서 산출한 결과일 수 있다. 존재에 새로운 것을 들이도록 허용하는 생각 없음의 상태인 ‘잉태한 텅 빔(pregnant emptiness)’은 표면상으로는 해체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역설적으로 존재가 충실하게 살아있을 수 있는 풍부한 텅 빔일 수 있다. 그것은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기 이전의 아기-어머니의 하나 됨 혹은 날것 그대로 순수한 형태의 정신적 창조성에 대한 느낌을 나타낼 수도 있다. 또한 자신에게서 조직화된 기능들을 정지시키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정서적 경험의 전체 범위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도 있다.³⁶⁾

이러한 관찰은 위니콧의 독특한 관점을 상기시키는데, 그는 조직화된 방어가 없는 비통합의 상태를 창조적인 혼돈과 연결시켰다. 이는 개인의 방어성을 지나 참자기의 느낌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으로서, 자기를 조직하는 일상적인 방식을 내려놓고 ‘형태 없음(formlessness)’의 상태, 외관상 목적 없는 정신적인 빈둥거림의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다.³⁷⁾ 정신증 내담자에 대한 치료적 과제 중 하나는 이 비통합의 순간들이 출현하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결국 정신증적 역동과 경험은 우리의 일상에 그리고 내적 삶에 함께 스며들어 있으며, 인격을 구성하는 원 재료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분열시켜서 투사하거나 억압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직면하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4. 정신증적 자기: 숨겨진 진실에의 탐구

우리 내면의 무엇이 그토록 기이하고 두렵고 혐오스러운 증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깨어짐과 환각과 망상을 통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정신증적 붕괴가 도달하는 지점은 어디일까? 이러한 질문들은 용기 있고 끈기를 가진 정신분석학자들(과 내담자들)에 의해 탐구되어 왔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들이 어둠 속에 남겨져 있다. 정신증 내담자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접근, 즉 내담자의 ‘안으로’ 들어가 그가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와 그의 내적 삶의 경험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현대정신분석학의 통찰을 빌어, 임상장면에서 종종 경험하는 정신증적 자기의 역동과 과정의 몇 가지 측면들을 연구자의 사례와 함께 고찰해보고자 한다: 재앙으로서의 자기, 분열된 자기, 텅 빈 자기, 자기의 재탄생.³⁸⁾

1) 재앙으로서의 자기: 자기의 붕괴와 해체

정신증 내담자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경험은 아마도 자기가 무너지거나 해체되는 것일 것이다. 자기 멸절의 위험은 이해할 길 없는 막연한 불안으로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 생존이라는 관념과 연결되면서 재앙이 된다. 자기가 붕괴되는 위험은 매우 실제적이고 공포스러워서

36) 마이클 아이진, 앞의 책, 189-190.

37) 도널드 위니콧, 『놀이와 현실』 89-107.

38) 단순히 기능의 총합체로서 자아가 아니라 자아의 경험적 의미를 다룰 필요에서 ‘자기’를 탐색한다. 고전적 신경증과는 다른, 정신증과 경계선 및 자기애적 장애 등의 영역에서 이 자기의 경험이 관심을 받아왔다.

파국이 임박한 것처럼 경험된다. 그에게 이러한 재앙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진다. 정신증적 자기의 재앙과 파국의 느낌에 대하여 위니콧과 비온의 해석을 들어보기로 한다.

위니콧의 원초적 광증 X 그리고 사산된 비명

정신증적 파국의 경험은 어떤 느낌일까?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신호일까? 위니콧은 정신증적 파국을 자기의 해체, 멸절, 비현실감, 무한히 추락하는 느낌, 생각할 수 없는 고통 등으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이 정신증적 파국이 붕괴 자체라기보다는 원초적 고통과 관련된 방어라고 보았다. 내담자가 파국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에 정신의 붕괴가 발생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증상들은 과거에 발생한 붕괴에 대한 조직적인 방어체계라는 것이다. 그 붕괴는 겪었지만 기억할 수 없는 것이다. 붕괴가 인격이 형성되는 동안 일어났기 때문에 유아에게는 당시 일어나고 있던 일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즉 근원적인 광증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경험해낼 구조나 능력이 없다. 유아가 견딜 수 없는 붕괴의 그 순간에 거기에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견딜 수 없다는 근저의 느낌은 강력한 잠재적인 사실로만 남아 있다. 개인에게 절대적으로 사적(私的)인 이 광증 X는 결코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X는 항상 도달할 수 있는 영역 너머에 있으면서도 가장 생생하고 개인적인 것들을 규정하는 잠재적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 느끼는 붕괴에 대한 공포는 원래의 붕괴를 기억하려는 내담자의 무의식적인 욕구에 뿌리가 있다. 그러므로 기억을 되찾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조직화될 수 없었던 경험의 조각들을 지금 다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³⁹⁾

그리고 위니콧에게 자기의 붕괴와 멸절은 종착역이 아니며 정적인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계속되는 것이다. 멈추지 않는 큰 고통이나 공포에 대한 일차적인 반응은 비명이다. 그 비명은 내면의 정신적 비명이다. 비명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돌보는 사람을 데려올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러지 못하는 실패가 반복되면 비명 지르기는 공허가 되고 그것이 감정을 대신하게 된다. 내담자는 이런 저런 형태로 평생 동안 감정 대신에 비명을 질러 왔을 수 있다. 감정을 느끼는 능력은 비명과 함께 차츰 사라진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었던 비명은 사산된 비명, 사라지는 비명이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기 직전에 내지르는 비명’이다. 위니콧은 이것을 가리켜 ‘매 회기마다 일어나지 않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불렀다.⁴⁰⁾ 이 잃어버린, 소리 없는 비명은 치료 상황에서 수면 위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들어줄 수 있는 동반자가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내담자를 만나자마자, 알 수 없는 비명이 즉각적으로 전달되는 경우도 있다. 내담자가 오랫동안 언급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담자 내면에 있는 소리 없는 비명을 듣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내담자의 반복되는 비명은 그 집요함과 강박성 때문에 소통이라기보다 단지 자신이 재앙의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때가 많다. 그가 실제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 내면에 재앙이 진행 중이라는 것, 자신이 그것을 처리할 수 없다는 조난 신호일 수 있다.⁴¹⁾

S씨는 부모에게 신용카드와 통장들을 다 내어놓으라고 다그치고 곧 다 망할 것처럼 난리를 쳤다. 부

39) 그러므로 회복은 치료에서 붕괴의 순간들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이 붕괴를 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Donald Winnicott, “Fear of Breakdown,” 103-107.

40) 마이클 아이긴, 『무의식으로부터의 불꽃』 102.

41) 경계선 내담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손목을 긋는 강박적 충동들은 자기 안에 이미 발생했었고 또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재앙의 지점으로부터 절박하게 ‘사라지려는’, 혹은 고통스러운 재앙의 느낌으로부터 칼이 살을 가르고 피가 새어나오는 날카로운 통증 안으로 사라지려는 절박한 바람으로 이해될 수 있다.

모는 그럴 일이 없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었고, 격앙된 그가 폭력을 저지를까봐 두려웠다. 치료자에게 S씨는 경직된 표정과 긴장이 고조된 목소리로 부모가 신용카드를 소액대출 받은 것에 대해 고발했다. 신용불량자가 되고, 집이 담보로 넘어가고, 거리로 나가 있게 되며, 학비도 없게 되고, 물려받을 재산도 없어질 것이라며 격노한다. 반복적인 질문의 형태(“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잖아요?!”), “거지가 되는 거잖아요?!”로 강박적으로 전달되는 메시지들은 (역전에서) 자체의 의미와는 동떨어진, 폭력적인 흥분 자체를 전달하는 격한 모스 신호처럼 들린다. 동시에 그가 말이 안 되는 말들과 출구가 없는 질문들로 치료자를 공격할 때, 치료자는 그 모든 말과 아우성으로부터, 닫히는, 그리고 감히는 환상을 경험한다... 그는 자기 안에 진행되는 불안하고 파국적인 느낌, 끝장 날 것 같은 재앙의 느낌을 치료자 안에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고, 말로써 담아낼 수 없는, 그래서 기억의 저편에 있는 또 하나의 재앙의 지점을 신호하는 것이었다. 그가 강제 입원을 당했던 충격으로부터 꼭 일 년째 되는 날이 닥쳐왔던 것이다.

비온, 베타요소가 지배하는 세계와 꿈꾸기의 실패

파국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운명과는 무관한 것일까? 그것은 불행한 개인이 만난 불행한 외상에 의해 비롯되는 것일까? 비온은 우주의 본성이 빅뱅과 같은 격변에 의해 결정되었듯이, 우리의 자기는 파국의 느낌과 함께 태어나고 진화하고 죽는다고 본다. 그래서 비온에게 이 파국의 느낌은 우리 존재의 본질이자 인격의 요소이고 정서적 삶의 일차적 사실이다. 생명 자체의 이 파국적 본성은 정신이 다루어야 하는 최초의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도전이다. 즉 최초의 파국적인 경험의 덩어리를 정신적으로 처리 가능한 사건들로 바꾸어야 한다. 별이 폭발하면서 잔해를 남기듯이, 원초적인 파국과 함께 발생한 최초의 ‘생각 없는 사고’ 혹은 환각들인 베타요소들은 물(物) 자체와 결합되고 이미지-감각-지각이 융합된 원초적인 정동 상태들이다. 이 최초의, ‘생각 없는 사고’들은 우울-박해와 죄책감과 관련된 느낌들 그리고 파국에 대한 느낌들로 연결된 인격의 측면들이기도 하다. 그것들이 진정한 생각하기(thinking)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소화되고 처리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 알파기능에 의해서 베타요소들은 살아 있는 정동적 사고(꿈 작업, 신화적 체계, 상징화 등)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어머니 혹은 치료자의 담아주는 기능에 의해 그의 알파기능을 자기 안으로 내재화시키지 못한다면, 베타요소들은 생각하기를 위한 재료로 변형될 수 없다.⁴²⁾ 이 변형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격은 베타요소가 지배하는 수준으로 붕괴될 수 있다.

비온은 ‘이름 없는 불안(nameless dread)’이 꿈-작업의 기능과 그 치유하는 역량이 파괴됨으로써 초래된다고 보았다.⁴³⁾ 이는 내, 외부로부터 오는 정서적 감각자극과 외상적 충격들을 처리하고 의미 있게 변형시키는 작업이 꿈꾸기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꿈이 경험을 받아들이고 소화시키는 필수적인 방법으로서, 꿈을 통해서 사물들은 개인에게 실재가 되고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바뀐다. 또한 꿈은 꿈을 가능하게 하는 알파-기능과 함께 의식과 무의식의 작동에 중심이 되고 그 둘을 구분하게 해준다(접촉장벽). 따라서 꿈을 꾸는 능력은 정신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준다.⁴⁴⁾ 정신증에서는 꿈을 통해 정서적 경험을 하고 이

42) 윌프레드 비온, 『경험에서 배우기』 35, 50; Michael Eigen, “Starting Point,”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66 (1985), 321-330.

43) Wilfred Bion, *Transformations* (London : Karnac Books 1965/1984), 75; 제임스 그로츠타인/이재훈 옮김, 『흑암의 빛줄기: 윌프레드 비온의 정신분석학』 406에서 재인용. 이런 점에서 비온의 생각은 꿈이 낮 동안의 잔재로부터 온 잠재된 정신내용으로 수면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하며 무의식적인 소망 충족이라는 목적을 가진다고 한 프로이트의 생각과 차이가 있다.

44) 윌프레드 비온, 『경험에서 배우기』(서울: 눈출판사, 1970/2011), 48-50.

것을 알파요소로 변환해서 꿈 사고를 정신적 요소로 변형시킬 수 없다. 그래서 비운은 우리가 악몽을 꿀 수 있을 때 정신이 시작된다고 한다. 내담자가 악몽을 꾸었다는 말을 하면 이제 치료가 시작되겠다는 기대를 갖게 된다는 뜻이다.⁴⁵⁾ 치료자는 정신적 실재의 충격에 대해 열린 태도(신앙, F)를 가지고 내담자의 비명을 만나주고 악몽을 담아줌으로써, 그가 소화하지 못한 정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S씨는 꿈을 전혀 꾸지 못하는 변비에 걸려 있다가 치료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꿈을 보고했다. 꿈에서 그는 죽은 듯이 침대에 누워있었고, 어떤 여자가 그의 침대 곁으로 유령처럼 다가왔다. 그는 비명을 지르고 허우적거렸지만 그의 비명은 들리지 않았고 몸은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평생 동안 그를 조종해온 어머니에 대해 처음으로 의식하기 시작한 회기 다음에 꾸는 꿈이었다.

2) 분열된 자기: 투사적 동일시, 담기의 실패

회기에서 우리가 민감하고 주의 깊게 임하고 있는데 왜 멍해지거나 혼란스럽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경험하게 될까? 느닷없는 짜증이나 두려움은 어디서 온 것일까? 자기의 전체성이 손상되어 있거나 한 부분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내담자들과 함께 할 때 그런 상태가 관찰될 수 있다. 인격 안의 깊은 분열은 자기 인식과 판단 능력을 제거할 뿐 아니라 대상에게 무의식적인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정신증적 과정 기저의 자기의 분열과 투사적 동일시에 대하여 후기 클라인학파의 성찰을 살펴보고자 한다.

투사적 동일시의 폭력성

클라인은 개인이 자기 내부를 공격하여 정체성이 깨어지며, 자기의 부분들과 기능들이 분열된다고 생각하였다. 즉 좋은 내적 대상이 내부로부터 오는 불안을 중화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을 때, 자아는 멸절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해 대상으로 자신의 공격성을 투사하고, 그 대상과의 동일시를 통해 자신의 공격성을 통제하려고 애쓰게 된다. 이 투사적 동일시는 나쁜 대상들과 함께 자기의 나쁜 부분들을 축출하는 수단이지만, 정체감과 현실감에 혼란을 줄 정도로 폭력적인 특징을 가진다. 결과적으로 자아 경계를 약화시키고 멸절불안을 박해불안으로 변형시켜서 박해와 통제당하고 있다는 망상을 초래한다.⁴⁶⁾ 투사적 동일시의 환상이 강력한 것은 투사된 자기의 부분들이 종종 실제로 외부 대상 안에 자리 잡음으로써 그 환상이 구체적인 현실로 간주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파괴적인 투사적 동일시가 사용되는 목적은 무엇일까? 힌셀우드는 개인이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경험을 방출하고, 원치 않는 현실을 인식하는 정신 기능을 제거하려고 한다고 본다. 또 타자의 정신을 통제하는 것을 통해서 전능 경험을 유지하고, 자기의 좋은 부분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대상 안으로 집어넣으려 한다고 지적한다.⁴⁷⁾ 특히 어떤 내담자는 분열된 자신의 일부를 대상 안으로 집어넣는 과정을 통해서 대상을 점유함으로써 그 대상의 정체성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은 위태롭게 되고 죽은 느낌이 들

45) 마이클 아이건, 『무의식으로부터의 불꽃』 115.

46) Melanie Klein, "Notes on Some Schizoid Mechanism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27 (1946), 102.

47) R. D. 힌셀우드/이재훈 옮김, 『임상적 클라인: 이론과 실제』(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6), 196.

수 있으며 대상은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 환상적 믿음들은 의식되지 않은 채 무의식적 환상으로 숨겨져서 남아 있다.

삼십대 초반의 N씨는 외출을 거의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의존하고 있다. 그는 운동과 병원 일정 등을 의논 없이 마음대로 변경했고, 그때마다 어머니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일정에 모두 맞추었지만 정작 그는 약속 시간이 다 되도록 나갈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서는 “엄마는 가기 싫으냐?”며 억박지르고 “엄마 때문에 늦어서 못 가게 되었다”고 화를 냈다(어머니는 실제로 가기가 싫어졌다고 치료자에게 보고했다). 또 어머니가 그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가 느끼는 대로 느끼지 않으면 “엄마가 이상하다”, “엄마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답답하다”며 비난했다.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에서도 그는 어머니에게 “8시까지 안 간다”고 아버지에게 말하라고 지시했다. 그가 어머니의 내면을 점유하고 통제하고 그 정체성을 차지해버림으로써, 어머니는 내면이 폭력적으로 점거/박탈되는 느낌과 함께,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워져서 어쩔 줄 몰라 하였다.

소통으로서의 투사적 동일시와 담기의 실패

투사적 동일시는 자기 안의 것을 축출하는 목적에만 사용되지는 않는다. 클라인에게 투사적 동일시가 폭력적인 환상이었다고 한다면, 그녀의 추종자들에게 그것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경험을 분열시켜 대상에게 보내는 대인관계적 과정으로 확대되었다. 비온은 투사적 동일시가 유아가 어머니와 갖는 상호작용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유아가 자신의 긴장과 고통을 어머니에게 투사함으로써 그것을 제거하고자 할 때, 어머니의 일차적인 역할은 유아의 긴장과 고통을 대신 ‘담아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담아줄 뿐 아니라 그것을 유아가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되돌려 줌으로써 유아의 긴장을 흡수하고 불안을 감당해주어서 유아가 담아주는 대상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비온은 이것이 유아의 무의식적 소통으로서 투사적 동일시를 수용해주는 어머니의 몽상(reverie)으로 인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⁴⁸⁾ 어머니의 담는 능력이 유아 안에 내재화될 수 있다면, 유아는 젖가슴을 발견할 수 없을 때라도 좌절을 견딜 수 있고 이 좌절을 견디는 능력은 생각하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가 담아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면, 유아는 생각하기를 발달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좌절을 견딜 수 없고, 대신 그것을 축출해야 하는 나쁜 것으로 취급하고 그 연결고리들을 공격함으로써 좌절을 피한다. 결국 담아주기의 실패는 유아로 하여금 불안에 압도되고 현실을 부인하도록 내몰 것이며, 축출을 위한 투사적 동일시와 분열 기제를 과도하게 사용하게 됨으로써 정신증적 인격이 발달된다.⁴⁹⁾

위니콧과 비온의 영향을 받은 P. Casement는 유아(내담자)가 투사한 감정을 어머니(치료자)가 실제로 느끼고 감당해줄 때, 그 투사적 동일시 안에 내포되어 있는 ‘무의식적인 희망’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 무의식적인 희망은 좌절 가운데 어머니(치료자)의 회복시키는 반응을 만나게 되리라는 것이다.⁵⁰⁾ 이 무의식적인 희망이 항상 실현되는 것은 아니어서, 투사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소통하려는 시도에 대해 마음을 닫고 있거나, 상호작용에서의 압력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치료적인 반응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때 투사하는 사람은 투사가 거절되었다고

48) 윌프레드 비온, 『경험에서 배우기』 81-82. 이런 맥락에서 그는 “어머니의 사랑은 reverie 안에서 표현된다”고 말한다. ; 같은 책, 79.

49) Wilfred Bion, “Attacks on Linking,”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40 (1959), 308-315.

50) 이는 비온의 신앙(F)의 개념과 유사하다.

경험하고, 감당할 수 없었던 감정은 계속해서 그의 안에 남는다. 마찬가지로, 투사를 받는 사람이 투사된 감정을 경험하지만 그러한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면, 투사를 하는 사람은 투사를 받는 사람이 무너져버렸다고 느낄 것이다.⁵¹⁾ 감정이 감당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에게 상처와 함께 희망 없음으로 경험되며,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능력을 공격하게 된다. 무의식적 환상에서 그것은 인격의 한 부분이 멸절되는 것이며, 이로써 그는 자신의 감정을 상실하게 될 뿐 아니라 대상과 정서적으로 접촉할 수 없게 된다.

정신증적 전이 안에서의 투사적 동일시

치료적 관계 안에서 정신증 내담자의 투사적 동일시는 어떻게 작용할까? 로젠펠트는 조현병 내담자의 정신증적 전이에서 관찰되는 투사적 동일시에 주목했다. 그는 내담자가 감정을 말로써 소통하기 어려울 때, 그것을 타자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의사소통으로서 투사적 동일시를 사용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래서 그는 투사적 동일시가 정신증을 이해하는 핵심적 수단이 된다고 믿었다. 그에 의하면 정신증적 전이 안에서 내담자는 자신의 위험스럽고 적대적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을 분열시켜서 치료자에게 투사할 수 있다. 혹은 자신의 손상된 부분이 투사를 통해 치료자 안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자신의 장애와 무력함이 치료자 안에 자리 잡게 되었기 때문에 내담자는 치료자가 손상을 입었다고 믿는다.⁵²⁾

자신이 우울증 환자라고 믿는 G씨는 다양한 신체증상과 무기력증을 호소하였는데, 치료자는 기저의 편집적 불안과 망상적 사고를 감지하였다. 치료적 관계가 진전되면서 그는 조금씩 자신의 은밀한 생각들과 환상들을 치료자에게 암시하기 시작했다. 한 회기에서 치료자가 매우 조심스럽게 그의 정신증적 불안에 접촉하자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공포에 질렸다. 그것은 자신의 내밀한 광증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자신의 광증과 무기력증이 (그가 의존을 형성한) 치료자에게로 들어가서 치료자가 미치고 무력해질 것이라고 겁에 질렸기 때문이었다. 이는 그가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면 그들이 다리를 절게 되고, 그가 설교 중인 목사님을 바라보면 목사님이 말을 더듬게 된다는 그의 믿음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3) 텅 빈 자기: 자기 공격과 외상(外傷)에 의한 자기의 무화(無化)

침묵이 상담실을 가득 채우고 있다. 내담자와 치료자는 이토록 가깝게 마주보고 있는데, 마치 광활한 우주처럼 멀리 느껴진다. 간간히 들리는 무감정하고 조각난 언어는 그 텅 빈 우주의 궤도 밖으로 무한히 떨어져 나가는 파편처럼 느껴진다. 이 사람은 과연 치료자에게, 아니 자기 자신에게 연결되어 있거나 한 것일까?

비운은 인간 정신의 발달이 두 가지 다른 통로를 따라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가졌다: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나 담아주는 ‘장치’를 발달시키는 정상적인 발달, 혹은 자신의 경험들을 비워버리는 것을 통해 정신내용을 대부분 잃어버려서 연속성 있는 정신활동이 불가능해지는 정신증적 발달.⁵³⁾ 그는 조현병 집단 치료경험을 통해 주체가 자신의 현실 지각 능력을 공격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제 자기를 비워내서 무화시키며 생각 없음의 상태로 철수하는 정신증적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51) P. 케이스먼트/김석도 옮김, 『환자에게서 배우기』(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3), 131-138.

52) Herbert Rosenfeld. 앞의 책, 157-159; 220-222.

53) R. D. 힌셀우드, 『임상적 클라인』, 182.

편집-분열 자리에서 무(無)의 자리로

유아의 최초의 심리내적 경험은 무엇일까? 유아는 과연 최초로 무엇을 투사하는 것일까? 정신증 내담자의 마음에 대한 탐구에서 비온은 편집-분열자리를 아무런 의미조차 발생하지 않는 좀 더 깊은 수준, 무(無, nullity)의 자리로 끌고 간다. 클라인은 유아의 최초의 경험을 편집-분열자리로 보고 ‘나쁜’ 대상에 의한 박해의 공포로부터 시작한다고 보았다. 반면에 비온은 그 자리 자체가 발달의 결과이고, 그 이전에 유아가 첫 분리됨의 경험과 관련하여 무작위성, 엔트로피(절대적 무의미성), 분출하는 허무 등을 겪는다고 보았다. 즉 유아가 정신적으로 탄생할 때 정신증 내담자만큼이나 무작위성 또는 엔트로피를 먼저 경험하지만, 엄마의 몽상(알파 기능)으로 인해 이 경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가 엄마의 담는 능력 안으로 투사하는 것은 나쁜 대상에 대한 박해공포가 아니라 자기의 무의미성, 무, 죽는 것에 대한 공포이며, 엄마의 몽상이 이 공포를 흡수하고 해독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보았다.⁵⁴⁾

정신증 내담자의 곤경은 정서적 사건 혹은 그 경험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통을 경험하지 못하고 단지 고통을 당하기만 하면서 정서적 사건에 대한 인식을 비워내는 것이다. 이는 엄마의 담아주기의 실패로 유아 안에 알파기능이 내재화되지 못하고 유아가 자기-대상 사이 그리고 대상-대상 사이의 연결들을 내적으로 공격하는 데에 기인한다. 또한 정신증 내담자는 경험의 아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경험의 잠재적 의미를 벗겨내 버릴 뿐 아니라, 그 경험을 알 수 있는 마음 자체를 파괴해 버림으로써 그것들을 무화시킨다. 이렇게 경험과 그 의미, 마음까지도 비워낸 정신증의 마음은 의미 없음, 허무, 생각 없음으로 텅 비게 된다. 또 투사적 동일시를 소통능력으로 발달시킬 수 없게 되어서 파편화된 사고에 의존하게 된다.⁵⁵⁾ 결국 그의 마음은 처음에는 고통스런 경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의미 없음에 도달하지만, 그 상태는 다시 고통을 경험할 수 없고 허무의 요소들만을 고통스럽게 견뎌야 하는, 살아 있는 감옥이 되고 만다.

두 자녀를 둔 주부 L씨는 그녀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남편의 폭력과 억압에 대해서 남의 얘기 하듯이 하였다. 때로 남편이 자녀를 무자비하게 때리면 자기가 맞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여겼으며, 남편이 그녀에게 흥기를 사용하거나 목을 조르는 등의 목숨을 위협하는 폭력 후에 성적 요구를 해와도 순순히 응하였다. 그녀가 보고하는 내용들 안에서 고통스런 정서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그녀는 (자신의 가정 폭력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녀를 ‘천진난만’하다거나 ‘쾌활’하다고 말한다며 키득거렸다. 그녀는 고통을 경험하지 못하고 고통을 끊임없이 비워냄으로써 살 수 있었다. 치료가 진행되면서 그녀는 점점 더 힘들어졌는데, 이는 자신이 텅 비어 있다는 것과, 자신의 몸과 마음이 타자에 의해 조종되고 질식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폭력과 위협을 예측할 수 있게 되면서 그것에 대한 공포와 증오가 더 커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자기 내면의 험벗음과 공포와 증오에 대한 감각이 증가하면서 그녀는 바로 이 ‘고통(의 경험)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자신이 ‘존재하는’ 느낌을 가졌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그녀는 계속되는 남편의 폭력적인 박해 가운데에서도 홀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하였고 신문과 책을 읽기 시작하였으며 자녀들의 고통에 접촉하기 시작하였다. 고통의 양과 깊이는 더욱 커졌으나, 그녀는 ‘머리가 멍하고 흐릿하던’ 것에서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좌절과 고통을 더 잘 견디게 되었다. 결국 그녀는 그녀와 친정 식구들을 모두 살해하겠다는 남편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을 떠날 수 있었다.⁵⁶⁾

54) 제임스 그로슈타인, 『흑암의 빛줄기: 윌프레드 비온의 정신분석학』, 487-488.

55) 앞의 책, 486.

56) 이 사례는 고통을 비워내기 vs 고통을 경험해내기가 사고능력과 담는 능력, 자기에 대한 감각에 어떻게 관여되는지 그 대조를 보여준다. 물론 이 경험하기와 그로부터 배우기는 치료자의 담기를 전제

연결을 끊기, 연결을 잇기

자신에 대한 고통스러운 진실을 발견하는 것을 반대하는 -K 태도는 경험에서 배우는 대신에, 정신적 삶을 공허한 진공상태로 즉 대상-없음으로 채워버린다.⁵⁷⁾ 비온은 이렇게 자기에 대한 공격을 클라인과는 달리 마음 안에서 생각을 연결하는 능력에 대한 공격으로 재개념화하였다. 하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또 생각과 현실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공격함으로써 내적 상태들 사이의 연결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소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기 혹은 연결에의 공격으로 정신의 손상과 함께 의사소통 수단이 심각하게 방해받을 때 내담자는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정신증적 내담자들은 전형적으로 비정상적이고 구체적인 형태의 상징화에 의존하는데 비온은 이를 ‘표의문자(表意文字)’라고 불렀다.⁵⁸⁾ 내담자가 되풀이해서 “아무 것도 아니에요.”라거나 “아무 생각 없어요.”라고 경직된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말 자체의 의미가 축소되었음과 그의 정신적 내용물이 제거되거나 멸절됨으로써, 자아기능에 비워짐, 부재가 발생했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의미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파괴된 결과이다.

한편, 로젠펠드의 연구와 비온의 후기 설명은 프로이트가 조현병 내담자들이 치료자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고 본 것과 다르게,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온은 내담자의 다른 부분들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의사소통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즉 내담자의 정신증적인 부분은 그의 의미세계를 파괴시키고 망상적으로 의미의 세계를 재구성하려고 시도하는 반면, 정신의 다른, 비정신증적인 부분은 파편화하고 단절시키고 방해하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치료자와의 연결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⁵⁹⁾

P씨는 자기 안에 담아주는 내적 대상을 발달시킬 수 없었고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능력도 발달시킬 수 없었다. 자연히 가족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어떤 말을 왜 했는지를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알 수 없었다. 치료초기에 그의 반응들은 오래 침묵하거나 “아무 것도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무 생각 없어요.”라는 말들이 대부분이었다. 치료 중반에 들어서서야 그는 자신의 파편화된 마음을 만나기 시작했고, 비로소 자발적인 발화(發話)가 생성되기 시작하였다. 어느 회기를 시작하면서 그는 자신의 마음에 대한 ‘의심’을 힘겹게 표현하였다. 자신이 ‘그럴 수 없는 것을 연결 지으려고’ 한다고 더듬거리며 말하였다. 예컨대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말을 건네면, 그는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반응할 수 없었는데, 이유는 아버지의 행동과 동기를 설명해줄 그 어떤 것도 찾아서 ‘연결 지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고의 단절, 의미가 박탈되었거나 변형된 단어들이 범람하는 이 회기에서 우리는, 그의 부단한(그리고 그의 표현대로 ‘아주 힘들었던’) ‘연결 짓기’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이었으며, ‘아무 상관도 없는/혹은 있을지도 모르는’ 내적대상(부/모)과 자기 사이를 가까스로 결합시키려는 시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해석 후에 그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천천히 떠올랐고 ‘아, 이제 마음이 놓여요’라고 말하였다.⁶⁰⁾

로 하는 것이다.

57) K-link는 대상을 아는 경험이며 동시에 대상에 의해서 알려지는 경험이다. 연결고리에의 공격은 이 K-link를 파괴하여 진실을 소통할 수 없게 한다. 비온은 이를 -K라고 불렀다. Wilfred Bion, *Transformations* (London : Karnac Books 1984), 115; 마이클 아이건/이재훈 옮김, 『정신증의 핵』 103p.에서 재인용.

58) R. D. 힌셀우드, 『임상적 클라인』, 176.

59) 앞의 책, 176-177.

60) “마음이 놓인다.”는 내담자의 반응은 그가 이제 이해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죽었거나 파편화된 채로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 누군가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의 마음(연결

외상(外傷)과 자기의 무화(無化)

삶에서 외상은 자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정신증은 종종 예기치 못한 외상이나 상처 입은 양분 공급자에게서 손상된 영양분을 먹고 자란다.⁶¹⁾ 학대 받은 사람은 잔혹한 악의 희생자이면서 동시에 내면 깊은 곳에서 자신이 악하다고 느낀다. 그의 삶과 성격의 핵심에서 이 악에 대한 느낌은 분명하고 일관된 것으로 자리 잡는다. 그것은 그가 악을 상상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았고, 악에 대한 이 직접적인 앎이 자기와 삶의 느낌을 해로운 것으로 오염시켰기 때문이다. 이들은 많은 시간을 자신의 나뭇잎을 응시하는데 사용한다. 그는 나쁜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고, 좋다고 느낄만한 일이 있을 때 오히려 놀라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들이 악에 대한 감각에 매달리는 것은 그것만이 이들에게 분명한 현실이기 때문이다.⁶²⁾ 자신에게 가해진 끔찍한 것은 바로 자기 존재 자체의 끔찍함으로 변형되고, 그리하여 자신이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확신은 떨쳐버리기 어려운 것이 된다. 이렇게 손상된 자기 느낌과 악의 감각에 끈질기게 붙들려서 자기를 비하하고 무화시킨다.

W양은 편집증상이 있는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녀는 유아기 때부터 오랜 동안 성적 학대를 겪었고 그것은 그녀로 하여금 자신에게 행해진 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무의식적 믿음을 갖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믿음의 토대 위에서 자신의 몸과 정신, 그리고 관계를 지각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언제나 참담한 자기 비난과 자기 무화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어느 회기에서 그녀는 “공중에서 까맣게 타버린 숲의 재가 날리며 내려온다. 그것은 나 자신이다”라고 꿈을 보고했다. 그녀의 정신은 종종 백지처럼 아무 생각이 없이 텅 비어서, 자신이 목격하고 있는 것들을 무시하고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 치료의 전환점이 된 한 회기에, 그녀는 “‘아무 생각도 느낌도 없는 상태에서, 덮치는 남자에게 몸을 내준 채 반듯이 누워 있는 어린 여아’를 내려다보는 자기”를 큰 두려움과 슬픔을 가지고 회상할 수 있었다.

만일 부모가 폭력적인 격노나 무시, 조종이 정신적으로 최상의 양분을 주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자녀는 이 정신증적인 부모의 심리적 배설물을 먹어야 하고, 살아남기 위해 거기에서 양분을 얻어야 한다. 양분과 배설물의 혼합은 그의 정서적 삶을 오염시킨다. 외상에 의해 과도하게 손상된 삶에서는 양분과 배설물의 의미는 항구적으로 역전될 수 있다.⁶³⁾ 배설물이 그의 양분을 조직하는 구조가 되고 양분이 배설물에 흡수되어버림으로써 그가 건설하려고 하는 자기의 모든 것을 위협하고 무화시킨다. 또한 그는 확장된 고통의 느낌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은 자기의 측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그것을 무의미하게 여긴다.⁶⁴⁾ 그래서 삶은 고통의 순간들로만 축소되고, 자기 존재 자체가 바로 외상이라는 스스로의 비난에 대해 방어할 수가 없게 된다.

이 끊긴/연결을 지으려는)을 접촉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61) 마이클 아이건, 『무의식으로부터의 불꽃』, 148.

62) 마이클 아이건, 『독이 든 양분』, 209.

63) 앞의 책, 217.

64) 앞의 책, 48.

4) 자기의 재탄생: 멸절하는 자기의 구원

많은 내담자들에서 정신증적 자기는 붕괴되고 파편화되고 사라지는 것으로 머물지 않는다. 황폐하면서도 풍요로운 환상 안에서, 자기는 비밀스러운 지식과 능력을 가진 자기로 재탄생하거나 조적(躁的)으로 재건설된다. 혹은 악마화된 내적 대상과의 끊임없는 적대적 투쟁의 드라마에 참여하기도 한다. 분열된 자기와 텅 빈 자기가 주로 투사와 비워내기의 과정을 사용한다면, 정신증적 자기의 재탄생은 투사와 함께 강력한 전능방어와 내사 과정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환각과 망상을 통해 재탄생하는 자기의 세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능환상과 조적 방어 그리고 전지(全知)

환경에 대한 욕구가 적절히 충족되지 못하고 모성적 공감에 결여되면 현실로부터 오는 것들은 침범과 박해로 경험된다. 유아의 전능환상이 충족되지 못한 채 조속하게 자기와 타자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면, 이러한 침범은 존재의 연속성을 방해해서 닥쳐오는 멸절의 위협에 대한 방어적 반응을 초래한다. 이렇게 되면 유아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로서 전능환상을 점진적으로 포기하지 못하고 현실의 침입을 전능환상으로 처리하려고 매달리게 된다. 전능 방위에 고착된 자아는 그것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는데 몰입하기 때문에 발달이 방해를 받는다. 또 긴장상태들이 모두 멸절불안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좌절과 실망을 부인하고 대신 마술적 사고로 위안을 얻고자 하면서 현실과 더 멀어지고 정신증에 다가가게 된다.⁶⁵⁾

‘조적 방어’는 대상에 대한 염려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상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대상이 입은 손상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즉 자신의 위협받는 내적 상황을 통제하려는 시도에서 환상 속에서 중요한 사람을 보잘 것 없는 사람으로 환원시키거나 통제 가능한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다. 대상을 통제하는 전능한 느낌과 조적 우월감은 대상의 본래의 성질을 부정하고 대상 위에 군림하는 승리감에 의해 강화된다.

전능과 결합하기 쉬운 다른 요소로서 전지(全知)는 보다 미묘한 형태이지만 양육이나 임상 장면에서 드물지 않게 관찰된다. 도덕적인 엄마는 생명력을 발산하는 아이를 가르치려하거나 비난하는 반응을 한다. 이 엄마는 자신이 삶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믿고, 아이에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아이는 움츠러들고 억제되며 자신의 생명력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러나 결국 이 엄마가 아이에게 좋다고 생각한 것은 아이에게 해로운 것으로 드러난다. 정신증적인 사람들은 진정한 자기의심을 할 능력이 없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주체의 경계가 무한히 확장되는 망상적인 전능성을 숨기고 있다. 이 경계 없이 확장하는, 보이지 않는 자기의 느낌은 또한 보이지 않는 영(靈)의 세계나 이질적인 마음들까지 투과하고 조종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⁶⁶⁾

막내인 A양은 예측하기 어려운 폭력적 행동화를 보이는 아버지와, 그 행동화를 부추기며 동시에 딸들을 조종하는 편집적인 어머니, 그리고 고립된 채 알코올에 의존하는 언니 등 각자가 끔찍한 광기를 가지고 있는 가족 모두에 의해서 압도되었다. 특히 어머니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그리고 오직 자신만이 자신과 가족들을 구원한다고 의심 없이 믿었다. 그녀의 전지는 남편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몰았으며, A양에게도 ‘아버지처럼 되지 않기 위해’ 해야 할 혹은 피해야 할 규칙들을 따르게 했다. 대학에 진학한 이

65) 프랭크 셔머즈, 『대상관계 이론과 정신병리학』, 228.

66) 마이클 아이건, 『무의식으로부터의 불꽃』, 216. ; 마이클 아이건, 『정신증의 핵』, 303, 482-483. 치료에서 내담자의 암묵적인 전지에 대한 집착은 치료자로 하여금 자신이 아는 것 이상으로 주장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인지기능을 둔화시키는 역전이 행동화를 하게 만들 수 있다.

후로도 자주 전화를 해서 자신의 기분이나 꿈에 따라 이러저러한 행동들을 지시하였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어머니의 ‘해석’이 A양이 세상과 삶을 이해하는 창(窓)이었다. A양은 어머니의 전지를 숭배하고 그 사랑을 갈구하면서 살아왔지만, 대인관계를 전혀 할 수 없었고 알 수 없는 공포로 질식되는 느낌에 시달렸다. 치료를 통해 그녀는 편집적인 피해의식과 어머니와의 융합으로부터 벗어났지만, 경제적으로 독립되지 않았던 그녀는 가족에 속해 있는 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결코 그들의 광기로부터 달아날 수 없다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힘들었다. 한 회기에서 그녀는 스스로 이해하기 어려운 환상을 보고 하었는데,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언니가 ‘귀엽다’는 환상이었다. 그들이 만화 캐릭터처럼 단순하고 귀엽다는 환상은 가족들의 무자비하고 통제할 수 없고 혼란스러운 측면들을 완전히 부정한 것이었는데, 그녀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 환상 안에서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들의 광기는 부정되고 그녀가 감당할 만하고 다룰 만한 존재들로 축소되어야 했던 것이다.

손상된 자기에의 회복과 통합을 위한 자기의 재탄생

우리의 자기는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규정되며, 또 그 대상과의 관계에서 흡수한 양분으로 자기감을 구축한다.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 경험에서 자기가 확립되고 소속감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 대상관계 안에 해결되지 않은 강력한 양가감정과 파괴적 충동이 스며들면 자기의 소속감과 의미 있는 관계는 손상을 입는다. 정신증에서는 손상된 자기감과 결손된 관계망을 새롭게 구축하려는 과정에서 환각과 망상이라는 편집적 방어가 개입된다.

W. Meissner는 조현병과 편집증에서의 편집적 과정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이 영역에서 탁월한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그는 프로이트와 달리, 판사 쉬레버의 투사 체계가 그가 아버지와 가졌던 관계 경험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프로이트가 간과했던 바, 쉬레버가 아버지와 가졌던 유일한 관계경험은 ‘영혼살해’라고 불릴 만큼 잔혹했던 박해자로서의 아버지와 무력한 피해자로서의 자신의 관계였다. 그에게는 굴종과 향복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자 지불해야 할 대가였다. 그것은 마치 그가 비천한 여성으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을 것이며, 망상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목적을 위해 신(아버지)의 도구로 선택받은 데 대해 지불한 대가였을 것이다. 따라서 그가 신의 신성한 목적을 대행하는 대리자로서 거둬낸 것은 자신의 손상된 자기에를 회복하고 견져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⁶⁷⁾

이런 점에서 환각과 망상의 동기는 자기감이 멸절되고 해체되는 위협으로부터 상처받은 자기에를 회복하고 통합된 자기감을 보존하는 동시에, 위협에 처한 현실세계와의 관계를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으로 재구축하려는 것이다. 분열, 투사 및 내사적 동일시, 이상화, 현실 부정, 조적 방어, 나쁜 상태들을 좋은 상태들로 바꾸는 전능적이고 환각적인 방어들이 이 과정에 함께 기여한다.

다른 내담자들은 그러한 전능적인 방어를 통해 새로운 자기로 재탄생하지 못한다. 그들은 거의 예외 없이 어디에서나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적대하고 박해하는 적들을 발견하고 투쟁한다. 무엇 때문일까? 초기 삶에서 개인은 자기감을 구축하도록 돕는 좋은 내적 대상을 충분히 내재화하지 못할 수 있다. 분노하는 상태에서 내사된 나쁜 내적 대상을 증오하면 그 내적 대상과 동일시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증오와 죄책감의 대상이 자기 안의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가 되면서, 취약한 자기는 내면에 있는 이 증오의 대상에 의해 지배당하게 된다.⁶⁸⁾ 이 자기와 내적 박해자 간의 관계, 다시 말하면 박해적 결속은 편집적 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능하면서, 자기의 ‘피해자 됨’이라는 핵심적 자기감을 공고히 하는데 사용된다. 궁극적으로

67) 윌리엄 마이쓰너, 『편집증과 심리치료』, 156-160.

68) R. D. 힌첼우드, 『임상적 클라인』, 114.

이 ‘피해자’ 내사 또한 성격의 핵을 형성하여 (전능한 자기처럼) 자기의 응집감을 성취하려는 것이다.⁶⁹⁾ 이런 점에서 편집적 과정은 통합을 지향하는 긍정적 측면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근저의 분노와 죄책감, 취약성으로 인해 재구축된 세계와 재탄생된 자기의 모습은 왜곡되고 기이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환각과 망상들은 상실했거나 파괴된 대상들의 세계를 복구하려는 보상적인 의미가 있다. 그가 끊임없이 참여하는 투쟁의 드라마에서 우리는 그의 깨어진 역사의 흔적들을 볼 수 있다. 과거의 가장 심각한 아픔과 상처들, 소망들 혹은 부분적으로나마 성취했던 가장 깊은 갈망을 이해할 수 있다.

20대의 청년 C군은 잠을 자지 않는 동안에는 제대로 깨어 있을 수 없었고 깨어 있지 않는 동안에는 거의 잠을 잘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마치 흰 곰팡이가 퍼진 것처럼 보였으며 눈은 초점이 없었다. 전혀 꿈을 꿀 수 없었고 명료하게 사고할 수도 없었으며 지속적으로 ‘죽여라’는 환청에 시달렸다. 치료가 진행됨에 따라 그의 수면의 질이 나아졌고 자신의 혼란스러운 것들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몸을 심하게 떨다가도 특정한 해석의 순간들에는 멈추었고 편안해진다고 보고하였다. 시간이 좀 더 지나서 그는 자신의 편집적 망상들을 치료자와 공유하기 시작하였다. 어느 회기에 그는 살상용 칼을 종류별로 그 모양새와 기능들을 열정적으로 설명하다가 사무라이 환각에 몰입했다. 그가 온 몸에 기(氣)가 충전하여 지극히 냉철하게 순간을 판단하면서, 길고 멋들어진 쌍 칼 카타나(일본도)로 목표물(敵)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쓰러뜨리고 있다. ‘퍼펙트 사무라이’다. 치료자는 그의 환각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작은 소리로 추임새를 넣는다. “카타나가 머리 위에서 번쩍! 한다!”, “챙! 칼들이 공중에서 부딪친다!”, “좌-삭! 소리내며 쓰옥-벤다!”, “구경꾼들이 겁에 질려서 감탄한다!” 한바탕의 살상이 끝나고 흥분이 가라앉으면서 정적이 찾아왔고, 그는 치료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이러면 안되겠지요?”라고 말했다. 치료자가 원초적인 차원에서 그의 새로운 자기, 사무라이 환상에 참여해줌으로써, 즉 잠시 동안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그래서 그가 경험해야 할 것을 경험하도록 현존해줌으로써 그는 현실 감각을 회복하였다.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한 번도 그를 인간적으로 대해준 적이 없었던 목회자인 아버지께 대한 분노와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그는 숨겨두었던 칼들과 야구방망이를 스스로 치웠다.

5. 나가는 말: 파국과 정상성(正常性)을 넘어서

정신분석학이 신경증을 지나서 정신증적 과정을 추적하게 되기까지는 저항과 함께 많은 시간이 걸렸다. ‘모든 신경증 뒤에는 숨겨진 정신증이 있다’던 이 말은 뒤늦게 정신분석학 안에서 힘을 얻었다. 이 흐름은 해체와 파괴, 무의미와 공허, 일그러짐 등의 특징을 지닌 오늘의 삶의 흐름과도 나란히 한다. 오늘의 세계는 개인의 인격만이 아니라 사회의 기본 바탕이 손상되는 재앙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사회비평가 한병철은 ‘성과주의’의 명령이 지상 규율이 된 체제 안에서, ‘노동하는 동물’로서 사람들이 스스로를 착취하면서 과잉활동이라는 히스테리에 빠진 것은, 극도로 허무해지고 별거벗겨진 삶에 대한 반응이며, 존재의 결핍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 생동성은 생산성으로 환원되고 과도한 성과는 영혼의 경색으로 귀결된다. 성과사회의 피로는 정신에 양분을 주는 공동체와, 삶 그리고 친밀함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고립시키는 분열적인 피로이

69) 내담자들이 치료자를 돕는 이에서 적으로 보게 되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 됨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일 것이다.

다.⁷⁰⁾ 경쟁적인 사회일수록 자기실현을 위한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개인들을 통합되고 진정한 자기로부터 떨어져 나와 자기소외로 내몰리도록 만든다.⁷¹⁾ 주의 기도를 실존적 충격과 존재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한 Leonardo Boff는 상 파울로 교회의 ‘짚타 마르 가리다 바닥 교회공동체의 보고서’에서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실존적 충격들을 뼈아프게 고발한다.⁷²⁾ 다시 말하면 정신증은 본문에서 살펴본 개인내적/가족적 갈등을 넘어서서, 사회와 경제체제 전반의 외상적 구조와도 깊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마음의 고통에 접촉하는 치료자로서, 실존적 충격 속의 영혼을 돌보는 자로서, 우리는 양안(兩眼)적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의 자기가 언제나 충만하고 상실과 소외, 붕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것만이 중요할까? C. Bollas는 정상이 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욕구 때문에 자기를 대상 세계 안에 있는 다른 사물들 중의 하나, 다시 말해 상품 대상이 되려고 추구하는 것을 경고한다. 그는 주관적인 삶에 관심이 없고, 대상의 사물성과 그것의 물질적 현실에 지나친 관심이 있는 이들을 ‘정상증후군 환자’라고 부른다. 이들은 건실하고, 안정적이며, 사회적으로 외향적이며, 주관적인 의미들을 물질적 대상과 외부현실 안으로 옮기는데 성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스스로 대상이 됨으로써, 자기의 주관적인 삶의 뿌리가 제거된 채 상처 입지 않고 의미도 없는 풍요로움의 세계를 살아가는 비정상적인 정상 상태를 성취하는 것이다.⁷³⁾ 유사한 맥락에서, 아이건은 광증으로부터 온전한 정신을 구별해주는 본질적인 기능이 현실검증이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현실이 얼마나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부패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며 위험한 중독 대상일 수 있는지를 잔인하게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⁷⁴⁾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충격을 느끼지 않으려고 무감각해지는 방어에 익숙해 있지만, 때로 기꺼이 비정상과 광증을 선택할 수도 있다. 세월호 침몰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은 상실과 충격의 순간을 자기 안에 영원히 동결시킨다. 깨어진 자기 역시 그대로 동결되며, 사랑으로 기꺼이 비정상을 선택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정상에의 유혹을 뿌리치고 멸절과 파국의 공포 안으로 걸어 들어가 자신을 나무에 매달도록 내어준 이를 알고 있다.

정신증은 우리에게 아직 미지(未知)의 세계이다. 우리 모두의 깊이에 있는 정신증적 중심은 우리가 탐험하고 개척하고 친밀해져야 할 또 다른 우주이다. 그곳은 파국, 분열, 멸절의 흔적과 함께 재탄생의 역사와 참자기가 태동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우주 생성기의 섬광이 지금도 희미한 형태로 남아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 도달한 빛이 수억 년 전 떠난 별의 잔해이듯이, 한 사람의 정신증의 편린은 암흑 속에 묻힌 초기 외상의 폭발이 보내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이 말은 우주가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모든 은하수들이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팽창하면서 끊임없이 변하고 있듯이, 회기 안의 두 사람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이며 나아간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따라서 우리는 내담자를 화석화(化石化)된 지식, 혹은 기억과 욕망만으로 만날 수 없는 것이다. 해석은 ‘알고자 하는’ 의도를 넘어서서 두 사람 모두에게 ‘경험하기’가 되어야 한다.⁷⁵⁾ 정신증이 진정한 자기의 여정에 의미 있는 차원을 열어줄 수 있음을 신앙하면서, 자

70) 한병철/김태환 옮김, 『피로사회』(서울: 문학과지성사, 2012), 23-29; 66-67.

71) 신현욱. “A Brief Essay on the Alienated Self in the Degenerative Inner Space.” 『목회와 상담』24(2015), 272.

72) 레오나르도 보프/이정희 옮김, 『주의 기도: 총체적 해방의 기도/개정판』(서울: 다산글방, 2000), 21-22.

73) 크리스토퍼 볼라스/이재훈, 이효숙 옮김, 『대상의 그림자: 사고되지 않은 삶의 정신분석』(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10), 182-209.

74) 마이클 아이건, 『정신증의 핵』, 494.

75) 제임스 그로츨타인, 『흑암의 빛줄기: 윌프레드 비온의 정신분석학』, 473; 윌프레드 비온/허자영, 『주의와 해석』(서울: 눈출판사, 2011), 66-68.

신과 내담자의 정서를 꿈꿀 수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내담자 안의 고통을 자신에게로 옮겨 놓는 이동을 완성하기 위해, 스스로 ‘희생양’이 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이것은 수난극으로서 치료이다. 76)

참고문헌

- 그릇슈타인, 제임스/이재훈 옮김. 『흑암의 빛줄기: 윌프레드 비온의 정신분석학』.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12.
- 마이쓰너, 윌리엄/이재훈 옮김. 『편집증과 심리치료』.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9.
- 보프, 레오나르도/이정희 옮김. 『주의 기도: 총체적 해방의 기도/개정판』. 서울: 다산글방, 2000.
- 비온, 윌프레드/허자영. 『주의와 해석』. 서울: 눈 출판사, 2008.
- 비온, 윌프레드/윤순임 옮김. 『경험에서 배우기』. 서울: 눈 출판사, 2012.
- 블라스, 크리스토퍼/이재훈, 이효숙 옮김. 『대상의 그림자: 사고되지 않은 앞의 정신분석』.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10.
- 시밍턴, 네빌 & 시밍턴, 조안 / 임말희 옮김. 『윌프레드비온 입문』. 서울: 눈 출판사, 2008.
- 신현옥. “A Brief Essay on the Alienated Self in the Degenerative Inner Space.”
「목회와 상담」 24(2015), 268-292.
- 써머즈, 프랭크/이재훈 옮김. 『대상관계 이론과 정신병리학』.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4.
- 아이건, 마이클/이준호 옮김. 『무의식으로부터의 불꽃』.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9.
- 아이건, 마이클/이재훈 옮김. 『독이 든 양분』. 서울: 한국 심리치료연구소, 2009.
- /이재훈 옮김. 『감정이 중요해』.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11.
- /이재훈 옮김. 『정신증의 핵』. 서울: 한국 심리치료연구소, 2013.
- 이해리. “부적치료반응: 오래된 역설, 새로운 희망.” 「목회와 상담」 22(2014), 179-213.
- 위니컷, 도널드/이재훈 옮김. 『놀이와 현실』.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7.
- 『성숙과정과 촉진적 환경』.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0.
- 『소아의를 거쳐 정신분석학으로』.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11.
-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성수, 한승환 옮김. 『정신분석학 개요』. 서울: 열린책들, 2004.
- 지그문트, 프로이트/김명희 옮김. 『늑대인간: 프로이트 전집9』. 서울: 열린책들, 2003.
- 케이스먼트, 패트릭/김석도 옮김. 『환자에게서 배우기』.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3.
- 페로, 안토니노 & 바질, 로베르토/이재훈 옮김. 『분석적 장: 임상적 개념』.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14.
- 한병철/김태환 옮김. 『피로사회』.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2.
- 힌켈우드/이재훈 옮김. 『임상적 클라인: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6.
- Aguayo, J. “On Understanding Projective Identification in the Treatment of Psychotic State of Mind: The Publishing Cohort of H. Rosenfeld, H.Segal, and W. Bion(1946-1957).”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90 (2009), 69-92. Bion, W. *Elements of Psycho-Analysis*. London: Karnac, 1963/984.
- *Transformations*. London : Karnac Books, 1984.
- “Attacks on Linking.”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40 (1959), 308-315.
- Eigen, M. “The Area of Faith in Winnicott, Lacan, and Bion.” *Psycho-Analysis* 62 (1981), 413-418.
- “Starting Point,” *IJPA* 66 (1985), 321-330.
- Klein, M. “Notes on Some Schizoid Mechanism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27 (1946), 102.

76) 안토니노 페로, 로베르토 바질/이재훈 옮김, 『분석적 장: 임상적 개념』(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14), 277-278.

Rosenfeld, H. *Impasse and Interpretation: Therapeutic and Anti-therapeutic Factors in the Psychoanalytic Treatment of Psychotic, Borderline, and Neurotic Patients*. London : Tavistock, 1987.

Winnicott, D. "Hate in the Counter-Transfer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0(1949), 69-74.

----- "The Use of an Object and Relating through Identifi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 50(1969), 711-716.

----- "Fear of Breakdown." *International Review of Psycho-Analysis* 1(1974),103-107.

정신증: 또 다른 진실을 위한 현대정신분석학적 탐구⁷⁷⁾에 대한 토론문

김영일 (레브린 정신분석클리닉)

본 논문에서 이해리 박사는 임상장면에서 흔히 치료가 가장 어렵다고 알려진 정신증에 대하여 심도있는 정신분석적 논의를 개진하고 있다. 프로이트의 고전적 시각으로부터 클라인, 로젠펠트, 시겔, 비온, 위니컷, 그루슈타인, 그리고 아이겐 등 현대적 관점에 이르기까지 분석가들이 정신증이 제기하는 난제와 어떻게 씨름하면서 정신역동적인 기원을 이해하려 했고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을 위해 분투해왔는지의 역사적 궤적을 잘 보여준다. 그와 함께 자신의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정신증 이론과 개념들을 임상현장과 연결시켜주고 있다.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프로이트 자신이 치료에 대한 관심을 넘어 인간이해를 추구했듯이 후대의 분석가들 또한 정신증을 임상적으로 이해하고 치료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의 인간이해의 주요 전제들을 재고하고 그 영역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정신증은 인간의 원초적인 삶의 경험과 그에 따른 가장 깊은 두려움과 접촉하게 해준다. 여전히 의식이 닿지 못하는, 아직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더 깊은 층을 탐색하도록 도전한다.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가 더 높이 성장하는 것처럼, 정신증은 우리에게 인간됨의 어두운 한계를 인식하게 해주면서 동시에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하겠다. 비온이 정신증 내담자들과의 분석과정을 통해 인간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욕동으로서 진실에의 추구를 발견한 점은 우리가 정신증 내담자들로부터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두려움과 갈망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준다.

정신증 내담자들과의 분석작업을 통해 정신분석이론과 기법들은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지게 되었다. 프로이트와 클라인이 간파한 정신증의 개인내적인 파괴성과 방어과정은 치료자와의 관계적 맥락에서 의사소통의 시도로 읽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투사적 동일시를 다루는 접근도 달라지게 되었다. 정신증에 접근하는 개입은 정신증으로 진단되는 내담자들에 국한되지 않고 신경증, 경계선 내담자들과의 분석과정에서도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치료자의 담아주기과 몽상은 신경증을 중심으로한 분석과정에서 발견한 기법을 수정, 보완한 것이며, 역으로 덜 병리적인 내담자들의 분석을 한층 깊게 할 수 있게 해주었다.

토론자는 정신증에 대한 현대정신분석적 이해를 토대로 신경증, 경계선과 구분되는 하나의 진단적 실체로서 정신증을 간주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얼마나 유용한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신증이 인간의 일차적 역동이며 정상과 비정상을 아우르는 보편적, 경험적 특성이라면, 정신증을 하나의 병리적 실체로 구체화하는 것이 임상적 실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정신증의 분석은 전외디푸스기, 비언어적, 암묵적 영역에 있는 무의식적 자료를 주로 다룬다고 할 수 있다. 언어적 해석 이전에 치료자의 시선이나 태도 등 비언어적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신증을 구체화, 실체화하는 것이 내담자를 병리화해서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경험의 연속선에서 정신증적 현상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과정보다 정신증이란 병리의 내용을 찾아내어 치료하려는 접근을 취하도록 할 수 있다.

둘째, 제시된 임상사례들을 볼 때 발표자는 해석적 접근을 치료에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

77) 본고는 2015년 학술지 '목회와 상담'에 게재한 논문을 토대로 한 것임.

다. 해석이 정신분석의 전통적이며 주요한 기법이지만, 현대에 와서는 발달/병리의 수준에 따라 혹은 시기와 방식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신증 내담자의 치료과정에서 발표자가 해석을 어떻게 시도하고 그것이 치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예시해준다면 실제 분석과정을 이해하는데 유익이 되리라 생각한다.

셋째, 프로이트는 기억을 재구성하는 것에 분석의 초점을 두었다가 점차 전이(역전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나 그것을 임상에서 실현하는 것은 후대의 분석가들의 몫이었다. 정신증의 분석에서도 전이-역전이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투사적 동일시 기제를 통해서 치료자에게 전달, 소통되는 무의식적 자료는 매우 강렬한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몸의 감각적 수준에서 경험될 수 있고 전이-역전이의 재연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전이-역전이 반응을 어떻게 인식하고 다루는가에 따라 분석과정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더 깊은 수준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토론자는 발표자의 풍부한 임상경험으로부터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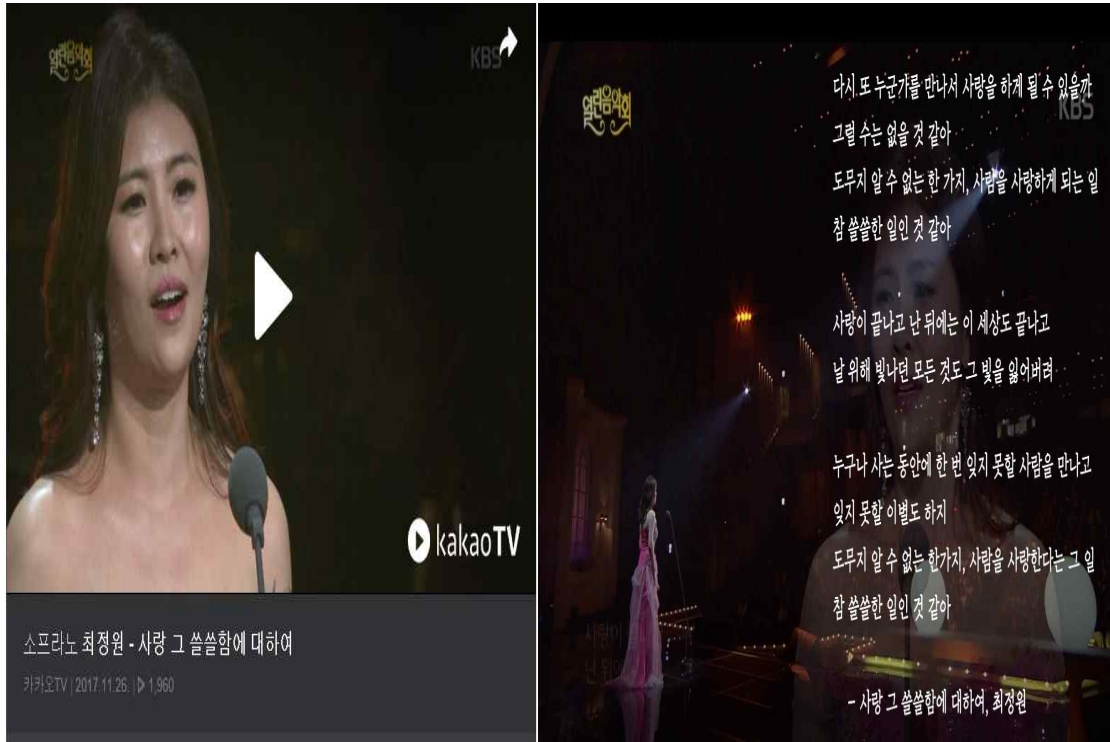
참고문헌

- Atwood, George E., Brandchaft, Bernard., Stolorow, Robert D. *Psychoanalytic Treatment: An Intersubjective Approach*. Hove and London: The Analytic Press, 1987.
- Ellman, Steven J. *Freud's Technique Papers: A Contemporary Perspective*. London: Jason Aronson Inc., 1991.
- Lachmann, Frank M. *Transforming Aggression: Psychotherapy with the Difficult-to-Treat Patient*. New York: A Jason Aronson Book, 2000.
- McWilliams, Nancy. *Psychoanalytic Diagnosis: Understanding Personality Structure in the Clinical Process*. New York: The Guildford Press, 1994.
- Wallin, David J. *Attachment in Psychotherapy*. New York: The Guildford Press, 2007.

발표 6

정신증 내담자의 사례연구 : 공격성을 중심으로

차타순(헤세드 정신분석상담센터)



< H의 사례 >

이 사례는 2010년 4월부터 2019년 11월 현재까지 738회를 진행 중에 있는 사례로 조현병과 조우울증이 공존해 있는 조현정동장애 환자이다. 사례를 서술함에 있어서 파괴적 공격성과 그에 따른 환각과 망상, 와해된 사고와 언어 등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와 그 치료과정을 살펴보는데 주목적을 두고 약 절반에 해당하는 4년까지의 상담내용에 초점화 하여 내담자와 그의 부모님의 동의를 얻고 간단히 기술해 보고자 한다.

(상담 배경)

30대 초반 H는 태어난 후 20일 동안 할머니가 키운 후 계속 부모(어린 부모도 포함됨)가 자주 바뀌는 상황에서 자랐다. 둘째 외삼촌이 H와 같은 증세이고 둘 때 쯤 어머니의 부주의로 펄펄 끓은 뜨거운 목욕물이 쏟아져 팔에 화상을 크게 입어 몇 번이나 수술을 받았고 축농

증 수술을 초등 3학년부터 고3때까지 여러 차례 행해졌다. 부모의 직업상(전문직) 전학을 많이 다니게 되어 친구가 없었으며, 중학교 때는 집단 폭력을 지속적으로 받았으나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대학1년 마친 후 공익근무 때 병이 발병하여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는데 당시 H의 어머니는 고부갈등과 남편과의 갈등으로 H에게 하소연했다고 했다. 병원에서 조현병과 조울증 공존으로 진단 내려졌고 대학시절 리포트나 시험공부 시 인지나 이해가 잘 안되는 상황이었지만 무사히 졸업을 한 후 명문대학 대학원에도 진학한 상태였다. 두 번의 여자 친구와 헤어질 때마다 병이 매우 악화되었고, 점점 폭력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어머니 머리채를 잡아채고 아버지 가슴을 멍들게 찌) 이때 카드빚을 많이 지게 되었다. 부모가 카드빚을 갚아주는 대신 병원 상담과 약을 복용하기로 했으나 병원 의사들을 매우 불신했고 모든 병원상담원들과의 상담도 3~5개월을 못 넘기고 그만 두었는데 치료자와의 상담도 카드빚을 갚아 주기로 하고 시작한 상담이었다. 내방 당시 H는 망상 증상(자기가 절대권자이고 우주, 별, 세계, 전쟁사는 모두 자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함)이 심한 상태였고, 약을 복용 안 하면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고(너, 니가 엄마야? 왜 내 돈인데 안주나!, 문을 쾅! 닫고, 음악 소리 크게 틀고 밖을 나갔다 들어왔다 하고, 친구에게 시간 관계 없이 전화함) 가족과의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2010년>

첫 면담에서 H는 깔끔한 인상이나 약 복용 때문인지 사고와 정서가 둔하고 어눌한 편이었고 매우 긴장되어 있으며 상담자를 보는 시선에선 의심이 많고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았다. 이야기 스타일은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 같았으나 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 많았고(유사상징들) 방어적으로 기능하면서도 진실함에는 예민하다는 느낌이 들었으나 인상이 좋아 보였다. H는 영화 “큐브” “매트릭스” “스타워즈” 등에서 인간과 신, 우주, 기계, 생태 등이 상호조화로운 관계와 몸과 뇌를 나타내니 완전한 세계라고 말하면서 안전성을 보장 받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했다. H에게는 “완전한 세계”를 꿈꾸고 추구하는 것이 “안정성을 보장” 받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이것은 나중에 양자물리학과 천문학을 중심으로 자기 세계를 끈질기게 구축해가고 있는 이유였다. 천안함 사건은 북한이 할 이유가 없고 외계인이 했으며 인류의 한 도약이라고 했는데, 이는 파괴적인 욕망 속에 자신의 생명력이 다시 타오르기를 갈망하는 염원을 담고 있는 듯 했다. 죽음으로써 새로운 삶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역설의 진리가 분명 존재하나 당시로선 이 진리의 온전한 도래가 H에게 너무나 머나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다. 이 역설의 진리로의 진입은 현실을 수용하고 고통과 대면할 용기와 죽을 수 있는 자아와 강도를 가진 자에게 가능한 법, 현실을 대면할 수 없어 자신의 자아를 파괴하고 환상 속 은신처에서 마술적으로 기능하려고 하는 H에게 너무나 요원한 일이다. H는 언론에 집착하면서 앵커 개인의 공용성과 쇼맨십, 감정 등이 구분이 안되니 메일로 앵커에게 영혼을 불어넣어준다고 하면서 현재 필요한 것은 안정감인데 아버지와 한나라당 때문에 강박적으로 된다고 했다. 언론 매체에서 나오는 뉴스거리들과 멘트들은 자기와 관계된 내용이고 자기를 비난하는 소리로 들렸던 것이다(관계사고ideas reference와 관계 망상delusion reference).

H는 대인관계 시 대화에 끼어들기가 힘들었고 의견을 제시했을 때 제압당하거나 제압하는 2가지 논리의 관계 방식이 존재했고, 꿈에서도 물고기를 사러 갔는데 고기가 없고 사람들이 모른척하거나 계산이 안 되는 꿈과 거대한 벌레들과 인간이 전쟁하는 꿈을 말했다. 이것은 접촉과 소통이 안 되는 H의 현실과 H의 인격 편린들이 투사된 기괴한 대상들에 둘러싸여 위협당하고 있는 정신적 실재를 반영한 것이었다. 여자 친구는 6명 정도 사귀었는데 사귄 때 신비

로움, 교감과 교집합, 외모의 아름다움과 성적 매력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첫 번째 여자 친구는 5살 연상의 간호사로서 자신을 많이 보살펴주었지만 자신을 제압하려 해서 매몰차게 차버렸다고 했다. 그러나 상담 시작과 동시에 줄곧 이 여자 친구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 후회를 많이 술회 했고 나는 이 여자 친구를 많이 닮은 존재로서 상담 중 어떤 때는 환각 상태에서 이 여자 이름으로 나를 부르는 정신증적 전이가 나타나곤 했다. 부모님은 자신을 애취급하고 가둬 두려 하며 돈도 안주고 음식도 나빠서 음식 먹고 나면 소화불량이 되고 병 걸릴 확률 많아 염려되며 자신의 이야기를 받아주지도 않고 끝도 없이 거부하며 발등을 찌는다고 했다. 꿈속에서 7-8세 된 아이가 열차 타려고 하는데 엄마가 없어서 우는 장면과 여자랑 키스하려할 때 아줌마가 방해하는 장면을 말했는데, H에게 어머니는 필요한 대상이면서 나쁜 대상, 방해꾼, 독이 든 양분을 주는 대상이었다.

H는 초기에 상담에 매우 협조적이었고 물건들을 계속 사들이는 것과 언어가 난폭해지는 것은 여전하나 화가 났을 때 행동화 하는 것은 조절하려 했다. 대학원 논문에 대한 압박감, 혼자라는 기분과 외로움, 타인과의 거리감속에 자신이 고갈되는 느낌을 호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H는 서서히 나에 대한 부정적 전이 감정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 “‘네’라는 말이 남을 깎아 내리거나 이용하는 차원에서 남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 자신’이란 말이 퇴색했다는 느낌이 들고 내가 도구로 이용되는 느낌이 들어요. 남용되면 위험하죠. ‘안녕히 가세요’ 유행을 많이 하는데 혹시 굳어지거나 않을까, 부정적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지 않을까, 손님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상담을 오지 않고 문자로 “자꾸 화가 나려고 해요”라고 했는데 이것을 탐색한 결과 존경받지 못했을 때, 마음의 안정감이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될 때 화가 난다고 했다. 이것은 지난 회기 때 상담을 마친 직후 내가 급히 불일이 있어 먼저 나왔는데 그 때 H의 인상이 별로 좋지 않게 느껴졌던 것이 생각났다. 내가 황급히 상담실을 나간 것은 어머니가 자신을 떼어놓고 직장에 가버렸던 그때의 감정을 건드렸다는 것을 직감해서 더 탐색했으나 화난 대상에 대하여 말하지 못했으며 다음 회기 때 “지난 상담 끝나고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사라져버렸으니까요!! 어릴 때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했어요.” 라고 말했다.

H가 환상을 즐기는 부분에 대해 탐색한 결과 굳이 현실에서 실현시키지 않아도 되고 또 다른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며 많은 돈, 대저택, 기업소유, 지성을 가진 미모의 부인, 아이들을 원한다고 했다. 환상 속에선 마술적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고 이 전지전능함으로 만족을 얻는 것 자체가 또한 우월성과 탁월함의 향유를 누리게 하는 곳이라. 화가 났을 때 해결방법은 버스를 타지 않고 소형 경차를 사서 타고 다니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버스 기사 아저씨에 대한 망상과 환청 때문에 버스 타기가 힘들었던 것을 나중에 알았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뒤통수 맞았다는 생각과 친구들도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 사랑이란 것도 현실로 다가오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서 상처이고, 인간들 속에 인본주의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방울뱀이 고개를 쳐드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하면서 치료자가 자신에게 화가 많이 난 것 같다고 말했다. 치료자는 H의 투자를 받은 대상으로서 어느새 방울뱀이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나는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을 수용해 주면서 화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함으로 그의 감정을 담아주었다.

어머니에 의하면 H는 약을 안 먹으면 불안해서 왔다 갔다 하고 소리 지르고 TV를 보면서 욕을 하고 모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요구한다고 했다. H는 부모님은 약으로 자신의 정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약을 먹으면 책을 읽는 속도가 느려진다고 하면서 약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또 여자를 만나는 일에 집착하면서 나와 같은 스타일이 좋다는 말로 자신의 감정을 전하기 시작했고 선을 보았으나 잘 되지 않았다. 이것은 H에게 큰 좌절로 다가왔고 분노하는 감정은 여자에게 성적인 원초적 발언을 노골적으로 말했다는 것으로 대변하고 있었다. 점점 H는 나에게 감정적으로 강한 액션을 취하기 시작했으며, 자신은 울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웃고 있는 게 아이러니하고 어머니는 자식을 통제하고 성적인 조절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이루려 한다고 했다. 정맥동맥이 제대로 돌아가야 하는데 부모님이 자꾸 방해를 하고 안정을 깨고 자신을 계속 건드린다고 하면서 부모들에게 노골적으로 빨리 죽으라고 말했다. H는 상담에서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각하기 시작했으며, 모든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 같다고 했다. TV에서 구미호 시청 후 갑자기 전화기를 빼서 바닥에 내동댕이치면서 안방에 누워 있는 아버지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력이 본격적으로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말은 더 산만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으로 파편화되어 갔다. 약을 계속 먹지 않게 됨에 따라 지각이 더 늦어져서 상담이 취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H는 나를 신용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고 자기와 나는 사탕 먹고 싶어 안달난 사람이라 말하면서 지금까지 늦은 것은 기억의 문제도 있고 떼쓰는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치료자를 우주, 별로 여기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아량으로 봐 달라하면서 “선생님도 마음 지키는 것이 쉽지 않죠? 나도 깡통이지만 선생님도 깡통이에요. 우리는 화장실 지키는 지킴이이고 방광에서 페니스가 나오는 것이니까(자기애적 전이)” 라고 했다. 치료자는 가슴이 저려움과 동시에 성적유혹을 강하게 느꼈다. 상담 직전에 시간을 1시간 늦게 미루는 바람에 치료자는 4번 연달아 상담을 취소했는데 다음 시간 H는 옷을 아주 멋지게 정장을 하고 와서 진지한 분위기에서 말을 툭툭 던졌는데 뭔가 애절함이 베여 있었다(이것이 이별 의식이었음을 나중에 알았다!). 이후 H는 거의 집에만 있으면서 칼을 아버지 등 뒤에서 휘두르거나 야동으로 성적 탐닉에 몰두하면서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심하게 무너져갔다. 결국 집에서 나오지 못했고 상담도 더 이상 오지 못했다. 핸드폰 문자로 숫자와 기호가 섞인 알 수 없는 한 문치의 덩어리만 내게 보내올 뿐, 내가 전화를 걸었을 때 뭔가 말을 하려 했지만 이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고 장치가 파괴된 듯 단어 사용이 안 되는 상태였다. H는 완전히 정신이 해리되고 붕괴되고 파편화된 것처럼 느껴졌다.

치료자는 많이 당황했고 죄책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으며 웬지 치료자가 H를 더 망가뜨려놓은 것처럼 느껴졌고 능력도 안 되면서 치료를 맡아 이 지경이 된 것 같았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다시 상담기록과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음미하기 시작했고 특히 치료자와의 관계 양상들을 살피기 시작했다. H가 원했던 것은 기능적인 탐색과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에 젖어들어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주고 호흡해 주는 대상이 필요했던 것이다. 치료자는 충분히 젖어 호흡해 주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H의 지각으로 인하여 상담 틀을 유지하고 공고히 한다는 명목 하에 4번 연속 상담을 취소시켰던 것이다. 약을 먹지 않은 상태가 지속된 상태에서 선본 여자와의 좌절, 망상, 논문구상에 대한 스트레스와 통합적 사고의 두려움이 공존해 있는 위기의 상황 아래, 이미 전 여자 친구와의 경계가 허물어진 대상이 되어 버린 치료자의 이와 같은 행동들은 H에게 대재앙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치료자 사이에서 일어난 감정의 모양과 색깔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란 말인가? 이것을 느끼고 찾기 위해 치료자 속에 있는 H의 잔재들에 의거하여 수많은 음악을 미친 듯이 들으면서 H를 느껴 보려했

데, 마지막으로 잡히는 최종적인 음악은 바비킴의 음악들이었다. 이런 측면들은 H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느끼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아프지만 앓았다면 세상에서 역동적으로 남성적 매력을 물씬 풍기면서 일하는 멋진 남자상도 그려졌다. 이것은 H가 자신에게 상정해 놓은 가장 찬란한 자기상이었고 훗날 스크랩 사진첩을 들고 와서 보여 주었을 때 그 속엔 이와 똑같은 사진들이 있었다. 그리고 치료자와의 관계에서 찾은 음악은 주영훈의 ‘Time to say good bye(나는 이제 이별을 고하려 하네)’와 김동규의 ‘그대 향한 사랑’이었다. 물론 이것은 전 여자 친구와의 관계된 감정을 치료사에게 전이시킨 감정과 관련된 음악이었다. 치료자는 이 과정에서 참 많이 울었고, H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있는 그대로의 한 인간으로서 바라보며 그 마음을 받아줄 마음 상태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은 당시 몽상(reverie)의 개념도 아직 모르고 있던 치료사가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 투사적 동일시에 의한 몽상을 한 것이었다. 정신분석 공부를 하지 않은 엄마일지라도 아기에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부모님과 상의 후 12월 한 달 동안 내방 상담을 하기로 했다. 부모님들도 어찌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치료자의 이 방안을 고맙게 생각하고 2시간 상담하기 위해 하루는 바치는 치료자를 위해 따로 수고비를 줄려고 했지만 거절했다. 나중에 H가 “선생님이 날 찾아온 것은 다 돈 때문이잖아요.” 라는 말은 듣고 싶지 않았고 또 책임지지 못한 것을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 한 달이 H와의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고 치료자의 유일한 염원은 파괴된 대상의 끝자락이라도 살려내는 것이었다.

H의 방안에 들어서자마자 온 방안에는 전류가 흐르면서 치료자의 몸이 감전되는 기분이었다. 뻥뻥이 꽃혀 있는 책들을 소개시켜주면서 치료자의 옆에 다가올 때는 이성의 남자가 다가올 때의 긴장과 떨림이었지만 치료자는 그 분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처음엔 쪼개진 낱말들의 조합으로 이야기를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기에 그냥 흐르는 정감적인 분위기로 호흡했고 또 치료자의 언어로는 담아낼 수도 없는 것이기도 했다. 치료자는 H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며 무엇이든지 진정으로 존중해 주었다. 상담 마치면 역까지 부모님 대신 치료자를 데려다 주기도 했고 도서관을 구경시켜 주며 자기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가기를 원할 때는 그렇게 했으며 12월 마지막 날 추가로 한 번 더 와 달라할 때도 그렇게 했다. 어느 날 문득 “어쩌면 선생님의 사랑으로 제가 모성을 회복할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했다. 상담에서는 택배 아저씨가 자꾸 욕을 한다는 것, 재정문제가 심각한데 백지수표가 제대로 발행이 안 된다는 것, 어머니가 주는 약은 상처를 내고 약하게 한다는 것, 초초한 마음과 침범당할 때 화나는 것 등에 대해 말했다. 그러나 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H의 폭언과 거친 행동, 망상은 여전하였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심리치료도 소용없다고 판단하고 병원 입원시키는 것을 의논해 왔다. 치료자 또한 내적 대상의 불씨는 살아난 것 같아 이에 동의하고 있었는데 상담 마지막 날 H가 갑자기 약을 먹겠다고 했다. 약을 안 먹으면 웬지 치료자와 상담을 못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광화문 상담실에 가면 머리가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어요. 붕괴될 것 같았어요. 상담하고 난 뒤 너무 외로웠고 세상에 나 혼자 내동댕이친 것 같았어요.” 다시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상담이 재계되었다.

<2011년>

H는 약을 먹으면서 비교적 조리 있게 말을 하기도 하고 의사소통이 조금 가능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내면의 감정과 생각들을 많이 표현했는데 주로 치료자와 닮았다고 한 첫 번째 여자 친구에 대해서 말했다. “S와의 사랑은 불같은 사랑을 하고 아프게 헤어졌어요. 작년 10월 쯤

흥피 들어갔는데 결혼해서 아이도 있더군요. 결혼을 못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애도 있는 것을 본 순간 견딜 수 없이 슬펐고 철퇴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작년 10월은 계속되는 지각으로 치료자를 애를 먹일 때였는데 이때 치료자에 대한 전이 감정이 이것과 연관되어 있었던 것이다. H는 어느 날 육감적인 몸매를 담은 만화 표지를 내 앞에 놓으면서 육체적 결합이란 가장 빨리 상대 여자와 가까워지는 방법이라고 했다. 프로이트(1940)는 성애적 욕동의 목적은 유아의 마음 안에 대상을 들여오도록 작동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망상체계는 뿌리 깊게 박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자신과 반대로 행동한다고 화를 냈으며 특히 상담 올 때마다 버스 아저씨와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욕하는 것에 시달렸다. 실체는 없는데 살기를 느낀다고 했다. 치료자는 H의 망상과 환각을 말할 때 기꺼이 따라가 주면서 무엇을 담고 있는지 알려고 애썼다. 이것을 듣는 것 자체와 따라간다는 자체가 너무 힘들었고 어떨 땐 치료자의 머리가 쪼개지는 느낌 속에 견뎌야 했다. 그러나 차츰 망상과 환각에 길들여지고 젖어들다 보니 내용의 연결은 없었으나 치료자 속에 하나씩 잡히는 것이 있었고 쪼개지고 파편화된 덩어리 속에서도 핵심적으로 붙어 있는 정감들이 있었다. 치료자는 그것을 포인트로 해서 H를 이해하려고 했고 때로는 몇몇 단어들 속에 연상되는 부분을 취합해서 해석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런 해석에 아직 이해되지는 않지만 H는 음미하기 시작했고 때로는 “그렇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라는 반응을 하기도 했다. 망상과 환각을 거부하지 않고 현실의 원리로 논박하거나 깨려고 하지 않은 자체만으로도 H는 존중받는 느낌이었고 그 감정들과 생각들을 공감해 주고 담아줄 때는 확연히 존재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

H는 대학원 졸업논문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간신히 졸업을 하게 되어 감개무량했지만 기쁨도 잠시뿐 H에게 희망과 새로운 삶을 보장해 주지는 못했으므로 다시 좌절하기 시작했다. 우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여자를 찾아 나섰으나 번번이 거절만 당했다. 이런 좌절이 올 때마다 분노감에 요동쳤으며 치료자에게 모든 탓을 뒤집어 쉬우면서 화풀이를 했다. 좌절스러운 정도에 따라 분노의 강도는 비례했는데 어떨 때는 오자마자 쪼개진 단어들을 마구잡이로 퍼부어 치료자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태, 뻗 하는 느낌의 상태가 되게 했고, 어떤 때는 노골적으로 시비를 걸어 화를 조장하면서 치료자가 지금까지 치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자라 하면서 의사도 치료사도 적어도 자기를 치료하려면 SKY 출신이라야 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부산 사투리 이제 지겹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와 동등시된 인물로서 자기를 대신해서 일을 잘 해 나가도록 컨트롤하고 있는데 이 기대와는 다르게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는 것 또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분개했다. 어쩌다 약을 복용했을 때는 약이 강하여 부대끼고 성적흥분이 안되는 문제 때문에 무척이나 고통스러워했고 특히 여자를 만나기로 한 경우는 미리 약을 끊은 상태라서 거친 공격성이 내뿜어졌다. 이런 나날들을 감내하는 것이 녹록치 않았으며 때로는 H의 투사적 동일시를 소화해 내지 못한 역전이 속에 치료자도 같이 화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기본적인 H의 마음 상태와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기에 좌절스러운 마음을 짊어주면서 여자로부터의 거절이 H의 존재 전체가 부인된 것이 아님을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했다.

<2012년~2013년>

과거 신적인 능력을 갖고 싶었던 것은 말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으며 모두가 자신의 말을 제어하면서 말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말을 하더라도 못 알아듣게 하고 싶었고, 대인관계에서

단절되고 자폐공간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을 말하면서 등쪽에 깊이 패인 상처(환각 증세)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또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가 악화되어 괴롭고 항상 이런 갈등 속에서 살아온 것, 어릴 때부터 엄마는 직장 때문에 마음의 공간이 없었으며 자신을 상품으로 여겼고 여자 사귀에 항상 방해자로서 자신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했다. 어떤 때 혼자 붕 떠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세상과 떨어져 자기만의 공간으로 내면을 쌓는다고 했다. 이는 현실에서 오는 불안과 고통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병리적 자기구조가 직조되는 정신적 은신처를 말하고 있었다.

H는 교회 한 자매에 관심을 가졌다가 거절당하면서 모든 면에서 예민해지고 생활리듬을 찾지 못하면서 약 먹는 것을 멈추어버렸다. 공유자가 없고 마음이 힘들고 공허하여 여자를 사귀으로써 이를 또 해결하려 했다. 약을 안 먹으니까 자신이 거대하게 활성화 되고 자신이 모든 것을 잘 하니까 사람들이 한편으로 자신을 무서워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도 친구를 만나면 상처를 받고 지뢰밭 같다는 느낌을 호소했다. 이는 현실의 아픔과 좌절에 대한 분노가 투사되어 박해불안으로 다가오고 이에 대한 방어로서 전능성에 의존하나 악순환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편집 분열자리에서의 양상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H는 약을 먹어야 한다는 치료자의 말에 발끈하여 상담을 그만 두어버렸다. 그런데 M 병원에서 지능검사 결과가 예전(IQ=104)보다 많이 향상된 수치(IQ=114)로 나오에 따라 주치의가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고 하면서(M원장은 H의 상태는 절대 호전될 수 없음을 처음부터 말했고 타 기관의 치료자와 상담하는 것을 이전까진 달가워하지 않았다.) 치료자에게 상담을 꼭 계속 받으라고 하는 바람에 4개월 만에 다시 약을 복용하면서 상담이 재개되었다. 그때 H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옛날 여기 상담 받으러 올 때 내가 세상의 벼랑 끝에 선 독불장군이었다면 지금의 나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어린 왕자인 것 같아요. 빛이 비칠 때 A가 B,C,D 등 불확실성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대상일 때는 A가 B,C,D로 정확히 알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원자와 양자 역학, 우주와 영성에 관심을 가지고 인류, 인간 세계의 생성과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물음으로 연결되어요. 영적으로는 사후 세계에 대해 걱정이 없을 수 있으나 생존 본능적 차원에서는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요. TV에서 나의 이야기할 때 장난이 아니었고 부모님은 계속 나와 무슨 상관이나 하고 전혀 관심을 안 해 주시니까 TV에서 나의 이야기하는 것에 통제가 안 되고 무방비로 당하기만 했어요.” 또 여자와의 미팅에서 상처를 받으면 유리가 되려고 하는 것과 그 유리 앞엔 커튼이 쳐져 있어서 벽에 갇히고 그것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표현도 했다. 치료자는 TV 내용의 어떤 측면들이 H를 위협하고 분노하게 하는지, 그와 관련한 H의 내면의 두려움과 공포는 무엇인지 탐색해 나갔다. 또 심적 안전성 차원에서 유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H의 역동을 공감해 주면서 그것이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현상도 음미해 나갔다. 이때 H는 깨어나는 표정과 함께 평안함을 가졌다. H는 자신의 현실에서 겪게 되는 무기력과 수치심, 슬픔을 조금씩 접촉하기도 하고 수용적인 안목과 통합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부모님이 모두 자기 활동에 몰입해 있다 보니 H는 집에서 거의 혼자였고 외로움과 공허감을 달래기 위해 또 약을 끊고 성적 쾌락에 집착했다. 약을 끊으니까 살만하고 섹스도 했는데 많은 사람들과 부딪친다고 했다. 이쯤 10월에 H는 치료자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선생님에 대한 꿈을 꾸었는데요, 대구 지역 산이 둘러싸인 곳에서 오붓하게 있는데 선생님이 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줄려고 했어요. 저는 택시 기사 아저씨가 시내 구경을 시켜주었

고요. 언제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신뢰를 지켜줄지 모르겠네요.” 약을 끊은 지 2주까지는 그래도 다양한 측면에서 자기감정과 생각들, 끔찍한 외상들을 표현하면서 통찰도 일어났다. 그러나 서서히 조증상태로의 진행과 더불어 환청과 망상으로 인한 타인과의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또 치료자에 대한 성애화도 다시 시작되어 치료자를 옛날 여자 친구와 동등시하고 반말을 하기 시작했으며 난해한 말들과 이해하기가 힘든 말들을 쏟아내면서 치료자를 자기 마음대로 제압하려 했다. 그러던 중 H는 채팅으로 여자를 사귀려고 시도했으나 쉽지 않았고 무(無)로 돌아가는 것,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몇 칠 후 H가 성매매 보이스 피싱으로 90만원을 날리는 일이 벌어졌고 H는 분노와 우울감에 휩싸였다. 치료자와 부모님은 최대한 안정을 시키며 위로해 주었으나 자동차를 시속 140킬로로 달리다가 나무에 부딪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약을 먹지 않으면 상담을 그만 두어라는 아버지 말에 집에 있던 검도를 빼어들어 아버지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부모님과 치료자는 H의 병원입원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 다음 회기 때 온 H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치료자의 능력이 여기까지인 것 같고 H가 더 이상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없으니 입원할 것을 말했다. 순간 H는 당황하며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상담실을 나가버렸다. H는 이날 오자마자 치료자에게 포지션 음악의 “그날까지”를 연달아 두 번이나 틀어졌고 치료자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지난 10월에 꿈과 이 음악 내용은 병원입원으로 인한 헤어짐을 무의식적으로 이미 암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H는 집에서 강제로 제압당하여 주사를 맞고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졌다. 그때 치료사도 패닉 상태가 된 기분이었다. H의 요청에 의해 2번 병원 방문이 이루어졌고 자신이 개설한 블로그를 통해 소통하면서 치료사는 병원치료와 H에게 적합한 약을 찾는 것을 강조했다. H는 자신의 마음과 정신세계를 글로 쏟아 냈는데 글에는 풍미와 재주가 있었다. 2개월 후 병원에서는 H의 망상체계가 이미 너무 깊은 상태라서 어떤 치료에도 더 이상의 진전을 기대할 수 없으니 그냥 퇴원하라고 했다. 부모님은 충격을 받았고 이 상태로 퇴원하라고 하면 자신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고 항의하면서 계속 입원을 고집했다. H는 처음엔 운동도 하면서 의욕을 보였으나 주위 환자들이 차츰 하나씩 퇴원해 나가고 자기만 혼자 계속 남는 상황이 되면서 절망하고 의욕을 잃어버렸다. 치료자가 2차 방문을 했을 때 H는 우울한 눈망울에 폭발되기 직전의 감정을 꺾꺾 누르면서 한 환자가 acting out 하여 강제 감금되는 사건을 말하면서 자기도 끝장을 내겠다는 뉘앙스로 말했다. 순간 H가 자살도 생각하고 있음을 느꼈고 부모님도 H를 더 이상 병원에 있게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그 달 말에는 퇴원을 시키기로 했다.

그날 돌아오는 발걸음은 참으로 무거웠고 찻찻했다. 퇴원하면 H를 맡을 사람은 치료사밖에 없는 상황임을 어머니께서 알려왔을 때 곧바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4시간을 배회했다. 그동안 어머니는 H의 소견서를 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모두가 하는 말이 H의 상태는 갈수록 더 나빠질 수 있고 좋아지길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H가 대학원을 나온 것이 오히려 불행이라고 말했다. 모두가 포기하고 꺼려했던 것이다. 치료사도 H를 다시 맡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고 망설여졌다. 그런데 모두가 꺼려하고 포기하는 모습에 웬지 화가 났다. “그냥 그렇게 살 수 밖에 없어요” 라는 반응 속에 분노와 울음을 삼킨 H의 눈망울이 떠오르면서 치료자의 가슴 저 밑바닥에서 오기가 올라왔다.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치료자는 새벽 1시에 H에게 메일을 쓰면서 H의 우울한 마음과 절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

음과, 치료자가 H의 삶을 생각할 때 떠올렸던 글쓰기와 북 카페를 결합시킨 삶의 모형(단순한 생존을 위한 북 카페가 아니라 H의 정신세계와 향기를 글로 느낄 수 있는 공간과 교류)을 제시하면서 H가 그토록 열망하는 우주의 탄생, 삶의 혁명에 치료자가 함께 해 주겠노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H는 치료자의 말이 폐부에 꽂히고 말 한마디가 정중통을 관통하고 뇌리에 박힌다고 했다. 그리고 H는 블로그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 차선생님, 장마가 계속되는 날들 가운데 어느덧 장마는 지고 8월의 끝자락에서 머물게 되었나 봅니다. 내게 있어 삶의 시간이란 연속된 시간의 파편을 한곳으로 모아 꽃 피우게 하는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난후 지금은 정신건강을 위해 시간의 조각들을 가지런히 물 흐르게 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시간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형식으로서 기본적인 가치와 희망 그리고 굴레를 벗어나는 일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돌아가는 그 길에 빛이 되어 희망이 되기를 원하고 그 길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서적 안정감과 깊이를 더해가는 일이 내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가는 길 온유하며 역동적이길 갓 레볼루션 프리도이라는 성격적 논리가 새롭게 싹트기를 나와 그 대는 빌어봅니다. 유유히 흐르는 저 강물 따라 우리의 수도도 한껏 빛을 바라기를 기원합니다.”

이에 대해 치료자는 다음과 같이 댓글을 달아 주었다.

“시간의 파편을 한곳으로 모아 꽃 피우게 하는 일, 시간의 조각들을 가지런히 물 흐르게 하는 일은 너의 새로운 삶의 형식을 만들어냄에 있어서 중요한 여정인 것 같아.. 정서적 안정감과 깊이는 이 여정들 속에서 획득되어지는 것이고.. 희망을 품은 자에게는 갓, 레볼루션, 프리도의 성격적 논리가 분명 새롭게 탄생되어진다고 본다.. 삶의 코너에 몰렸을 때, 삶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온 느낌이 들 때, 거기에는 '처절한 고통'이라는 대가와 마주해야하지만, 그러나 그곳엔 밑바닥을 치고 올라올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지..밑바닥을 치고 올라가게 하는 반전의 힘은 그 지점에서만 가장 절실하게 깨달아지는 삶의 근원적 진리와 만나는 것이라 생각해.. 갓은 우리에게 진정한 프리도를 이미 상정해 놓았었고, 근원적 진리에 의한 레볼루션의 삶을 항상 기대하고 열망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온유하며 역동적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매력적인 모습인 것 같아..” H는 답 글을 이렇게 달았다. “이렇게 완전하고 멋진 글을 쓰는 차선생님 이미 반전에 성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퇴원 후 H는 정신증 장애인 재활 사회복지관에 나가면서 다시 상담을 재개했고 H는 상담 중에 항상 책들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기를 원했다. 복지관의 글쓰기 강좌를 들으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것을 치료자에게 가져와서 함께 나누었다. H의 글들은 크게 시와 수필, 관념적인 글로 나눌 수 있다. 시와 수필들은 다소 현학적이면서도 자기애적, 구태적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정감들이 담겨 있었고 관념적인 글들은 내적 외적 자극에 의한 사적으로 초점화 된 주제에 대한 글과 완전히 자기 언어로 쓴 세상과 통용될 수 없는 자기 세계의 글로 나뉜다. H는 세상과 통용되고 호흡할 수 있는 글들을 써 나갈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자기만의 언어로 자기세계를 구축하려는 열망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로는 자신의 정신세계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고 느끼고 완전성과 절대성을 부여해 줄 자기논리를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단어조합(신조어)인 ‘자기언어’를 만들고자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쓰는 향유를 일시적으로 누릴 수 있으나 파편의 덩어리를 연결할 고리를 찾이란 더더욱 불가능한 것이고 이에 대한 스트레스와 무력감에 봉착하는 것 같았다. 사실 정신증적 언어는 현실적 사고의 연결과 정서적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일차적으로 숨어 있다. 정신증적 경험들은 주관적으로 심리 내용을 조작함으로써 세상을 통제하려 한다. 이때 언어는 견딜 수 없는 현실을 철회하고 역전시키고, 제거하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신조어는

망상적 전능성의 언어에 해당된다. 치료자는 H의 글을 좋아하고 음미하는 것을 즐거워했다. 점점 더 문장구조가 변해가고 다듬어질 뿐만 아니라 현실에 의거한 통합적 시각과 의미를 구축해 나갈 때는 전율과 희열을 느꼈기 때문이다.

H는 중성자가 부딪치면 양자가 붕괴될 수도 있고 플랑크 상수 k 가 너무 크면 양성자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강자와 약자가 서로 부딪치면 핵분열이 일어나고 또 약자와 강자끼리 거리가 너무 길어 상호작용 많아도 E가 크고 상수 k 가 너무 커진다고 하였다. 이것은 H가 보다 더 현실적으로 상호작용하려 할 때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자아 강도가 따라 주지 않은 현실 인식의 상호작용은 정신증 내담자에게 곧 바로 과부하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야만적이고 가혹한 초자아의 활개 아래 정신적으로 더 쪼개어지거나 붕괴되어 다시 병리적 자기 조직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할 것이다. 비현실적인 자기의 것이 충분히 담기는 경험 속에서만 자기의 것을 담을 수 있는 담는 것(정신 장치)이 만들어져 현실로의 접촉과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치료자는 H가 말한 내용을 그의 정신과정과 현상을 담아주면서 이런 해석을 시도하였다. (너의 생각과 다른 현실의 생각들이 부딪치면 너의 정신이 붕괴될 것 같은 느낌, 소화시킬 수 없는 과도한 정보들에 압도당할 때 정신이 파괴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 “아,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끊임없이 우주의 만들어짐과 근원의 탄생, 진화에 관심을 가지는 열망도 너의 정신을 새롭고 강하게 구축하고자 하는 발로 아닐까..) “그렇죠..” (그런데 너의 내면을 방금 내가 말한 것과 같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너의 방식대로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거야?)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럴 때 마음에 상처가 되었겠다) “그렇죠” (그래서 은유적, 비유적으로 말하고..) “못 알아들어도 아, 그런 갑다 하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는 여지가 마음의 상처를 보호해 주었구나) “그것도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우월성의 추구죠..” H는 자기 의사를 전달하되 난해한 비유체계로 상대방이 이를 못 알아들었을 때라도 자기보호와 자신의 특별함에 의한 우월성으로 느꼈다. 그래서 자신만의 언어체계와 사고체계를 끊임없이 형성하고 더 단단히 하고자 하는 것은 소통의 Blocking에서 오는 상처의 방어성과 함께, 자신만이 아는 정신세계 속의 환희를 즐기려는 마음이었다. 결과적으로는 더 갇혀 버리지만.

H는 투사와 망상에 대해서 차츰 인식해 나갔다. “내가 길러온 내 분신들 중 나이 많은 노인도 있는데 그 노인의 등에 폐인 상처.. 내 속에 괴물 자아가 있는데.. 내가 그 노인을 딱 떼어내 버리니까 사라져 버리더라구요. 아직 어린 애들은 그래도 버릴 수 없으니 고만고만 달래고 또 타협해서 다루어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더 나아가 치료사는 이런 탐색으로 투사에 의한 망상을 다루었다. “옛날에 베란다에서 담배피우면 버스 아저씨가 욕을 하는 것처럼, 베란다에 있으면 어떤 아저씨가 쓰레기봉투를 아파트에 던지고 갔어요. 그래서 아파트 아래로 가보니 쓰레기봉투는 없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 같아?) “내가 컨트롤 못해서.. 전날 술을 많이 먹어서..아버지는 해 뜨는 샘(복지관)에 내가 가는 것에 불편해 해요. 세브란스면 되었지 또 왜 해 뜨는 샘이냐고.. 나를 해 뜨는 샘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하는 것에 대해 불편해 해요.” (아버지가 불평 없이 따뜻하게 너를 데려다 줬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렇지 않을 때 화가 나기도 했을 것 같아. 어떤 아저씨가 쓰레기봉투를 던지는 것은 아버지 에 대한 너의 화남이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이 쓰레기봉투는 아버지가 H를 쓰레기 취급하는 것처럼 느낀 것이 투사되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 베타

덩어리였을 것이다. 투사와 망상에 대한 해석에서 H는 얼굴이 좀 시무룩해졌다. 이 해석은 H의 정신체계에 도전하는 것이 되고 이 환각의 감정 주체가 자기 자신임을 상정시키는 것이었는데, 스팟니츠는 조현병 환자가 해석에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대상 전이를 발달시키는 것이 치료의 필수적인 문제라고 했다. H는 다음 회기 때 와서 이렇게 말했고 더 이상 이런 종류의 환시는 보고하지 않았다. “아버지 무엇이 불편하신가요? 라고 말했더니 통했어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속달해야겠어요”

H는 어느 날부터 글뿐만 아니라 영화들을 계속해서 USB에 담아 와서 주었으며 우리는 1주일에 1개씩 보면서 나누었다. H의 글과 영화를 보고 그것에 대해 음미하면서 H의 정신적 실재를 함께 나누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해와 공감, 반영에 의한 존재감, 통찰에 의한 통합적 시각, 자아 강도 증진 등)에서 치료적 함의를 충분히 지니고 있는 것 같아 계속하였다. 그러던 중 H는 나에게 이런 메일을 보내 왔었다. “차선생님, 우리의 상담내용이 조금은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적으로 정신과 삶 그리고 꿈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영화와 기록들의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하여 그 상황에 맞는 질문들을 골라 하나씩 풀어나가고 토론해 갔으면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 어떤 게 이슈가 되고 있는가,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과정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풀어가갈 때 우리의 상담은 더욱 더 빛을 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힘내세요.” 이후 H는 고통스러운 감정에 부딪칠 때 이전과는 다르게 좀 더 그 감정에 머물러보려는 시도를 하였고 본디의 자기와 판타지의 자기가 분열되어 있다고 하면서 통합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 둘에 대해서도 탐색하려고 했다. 2013년 병원 퇴원 후 부터 2016년 중반까지 상태가 비교적 호전되어 갔으며 MBC 아카데미 글쓰기와 방통대 국문학과에 진학하여 글쓰기 창작 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해 나갔다.

그러나 여자를 사귀는 문제로 결국 잦은 좌절들이 일어났고 그때마다 약을 복용하지 않아 어머니가 몰래 약을 주스에 타서 먹여 버티곤 했는데 2016년 하반기부터는 본인이 직접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 받지 않으면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치료자는 H와의 상담을 그만두고 싶은 위기에 봉착했다. 더 이상 가망 없음의 느낌 속에 자신이 없었고 앞으로 닥칠 일을 생각하니 불을 보듯 뻔했다. 치료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자기애적 역전이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때 당시 수퍼바이저는 역전이 속에서 치료사의 불안이 정확히 무엇인지 꿰뚫어 보고 이렇게 답아 주었다. “선생님 H가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해 오신 상담 잘하신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순발력 있고 절묘한 이 두 멘트는 치료사 안에 무의식적으로 도사리고 있던 H의 자살에 대한 두려움을 정확히 조이닝하여 의식화시킴과 동시에 치료가 잘 되어야 한다는 치료자의 야망을 인식하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했다. 수퍼바이저와의 관계 속에서의 담기는 경험은 치료자로 하여금 H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다시 만들도록 했다.

H는 새로운 여자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몇 개월 동안 엄청난 카드빔을 지면서 공들여 사귀게 되었는데 결국 여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여자가 H와 연락을 끊고 결별을 선언한 것에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로 H를 속여 왔던 것들을 알게 됨에 따라 H는 견잡을 수 없는 분노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약 1년 동안이나 약을 전혀 먹지 않은 상태에서 H는 점점

악마처럼 변해갔고 스스로를 싸이코패스와 동일시했다(이런 잔혹한 정신세계 속에서도 다행히 자신이나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자진하여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나의 권고에도 전혀 말을 듣지 않았고 완전 해리되고 난폭함속에서 결국 부모님이 강제로 입원 수속을 밟았다. 그때 H는 병원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에 손을 절대로 대지 말라하면서 깨끗한 정장 차림으로 자진하여 병원차를 타고 입원했다. 병원에서는 H에게 맞는 약만 찾은 후 또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함을 밝히고 퇴원하라고 해서 4개월 만에 퇴원한 후 2018년 5월부터 다시 상담이 재개되었으나 격주로 하였다. 부모님이 더 이상 상담에 돈을 쓰지 않겠다고 하고 치료자 스스로도 이것이 현실임을 H가 느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격주로 하는 것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H가 내면의 소통을 이룰 수 없게 되자 망상의 집을 야금야금 또 지어가는 것을 감지하고 어머니가 매주 해 줄 것을 의뢰해 왔는데 이때 치료자는 좀 더 현실적으로 상담 구조(상담시간, 상담과정, 비용 등)를 세팅했다. 2019년 시작과 더불어 H가 상담시간에 성경을 읽고 요약해 와서 함께 나누자고 하여 그렇게 하고 있으며 1년이 다 가도록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고 제 시간에 상담을 마칠 뿐 아니라 12월부터는 종합병원에서 하루 4시간씩 환자를 안내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글쓰기와 방통대 국문학과 졸업에 매진하고 있다. 그리고 대칭성이 깨지는 질량이 주어지면 시공간의 비틀림이 있기 때문에 그때 $x=0$, $y=0$ 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했다. 이 원점으로의 회귀는 분명 자기조절을 위한 사고를 하는 사고자(thinker)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듯 했다. 상담시간에 성경을 왜 나누고자 하는지 물었을 때 하나님의 치유가 자기에게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과 좀 덜 파괴적인 랑데부가 되어야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작년 12월 초 치료자는 하와이 여행에서 태고적 젓가슴과 싱싱한 생명력으로 타오르는 자연 경관을 품으며 지오바니 새우 트럭 요리를 먹으려고 하던 찰나 핸드폰에 나온 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한 어미 개가 도살장에서 몽둥이로 맞아 한쪽 눈알이 튀어나오고 머리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도망쳐 곧바로 도살장 안에 있는 잠자는 새끼를 깨워 젖을 물리면서 죽어가는 장면이었다. 죽음과 생명이 동시에 발생하는 그 처절한 뉴스를 접하면서 주체할 수 없는 목매임으로 그냥 그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지만, 치료자는 그때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최선을 다해 자기 생명의 본분을 다하고 꽃피우는 것이라는 것을. 상담 초기에 H는 절규하면서 말했다. “차선생님!! 이렇게 사는 것이 삶이 아니잖아요! 네?!” 자신의 상태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로 견딜 수 없어 하는 H에게 대답해 줄 말이 치료사에게는 있지 않았다. 성경에 태어날 때부터 귀머거리, 앓은뱅이로 태어난 그들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께 물었다. 이들이 이렇게 태어난 의미를. 만약 이 해답이 H의 마음속에 언젠가 도래되어진다면 자기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목 매여 울 수도 있지 않을까!

< H사례 분석 >

H의 조현정동장애의 원인은 집안 내력의 유전적 요인과 발달상의 심리적 환경의 결핍 모두를 갖고 있다. 유전적으로는 외삼촌뿐만 아니라 H의 여동생의 남자 조카도 자폐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발달상으로는 처음 태어나자마자 할머니와 어린 보모(약15세-16세)에게 돌봄을 받았고 이후 돌봄에서도 사람들이 자주 바뀌는 상황들과 부모와의 공감적, 정서적 교류의 부재로 인한 심각한 좌절이 발생했고, 또 돌 때 쯤 펄펄 끓은 물이 쏟아져 팔에 화상을 크게 입

고 몇 번의 큰 수술을 한 것도 엄청난 파괴적 외상일 수 있다. 따라서 H는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하기 이전 삶의 미분화된 초기 자아 상태(Mahler, Pine, & Bergman, 1975)와 자아의 구조적 결핍을 안고 있다. 이런 자아의 결함으로 분노와 공격성을 밖으로 적절히 방출시키는 정신 과정들을 수립하지 못했고, 정신 기제들 역시 조직화될 수 없었기 때문에 파괴적 공격성을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심리적 방어체계가 없다. H는 현실의 고통과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을 방어하기 위해 끝없는 근원처럼 느껴지는 자신의 사고, 감정, 지각들을 무의식적으로 파괴했다(Ogden, 1982). 즉 고통스러운 현실적 자극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거나 지각들을 조직화하거나 감정과 의미의 부여를 하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무의식적으로 공격했다. 그 결과 현실 세계에 대한 부적응 및 좌절이 재순환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Hill(1955)은 조현병 환자는 엄마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전언어적인 엄마-아이 관계로 되돌아가고픈 끊임없는 갈망이 있음을 관찰했다. H는 어머니와의 강한 융합성에 고착되어 있고 여기에는 근친상간적 욕망도 결부되어져 있다. 성적 대상으로서 어머니뿐 아니라 여동생을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이것은 경계가 허물어진 투사적 동일시에 의한 자기애적 대상관계의 측면이라 할 수 있다. 투사적 동일시에 의한 자기애적 대상관계는 H의 모든 대상과의 관계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즉 치료자를 비롯한 현실적 대상과의 상호작용에서 뿐 아니라 H의 내적대상들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자기와 대상의 파편화의 베타 덩어리인 파괴한 대상들과의 관계 양상이기도 하다. 특히 어머니와의 원초적인 융합성은 치료자를 비롯한 모든 여성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원형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H는 여성들과의 사귄에 매우 집착했고 성적인 관계로 곧바로 나아가려는 경향성은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이라 했다. 융합은 하나 됨이고 여기에는 안전성이라는 측면과 맞물려 있기에 H의 자기애적 리비도가 투여된 여성들과의 접촉 상실이나 거부, 이별에 의한 분리는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파괴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H는 이때마다 가장 극렬하게 요동쳤고 파괴적 공격성이 가장 짙었다. 치료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상처에서는 파괴적 공격성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렸고 그 결과 자신의 사고와 언어를 완전히 부수어버려 말을 할 수도 없는 와해의 상태가 돼 버렸다. 치료자에 대한 자신의 이상화와 애뜻한 전이 감정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음에서 발생한 부정적 전이가 점점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료 틀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4번의 연속된 치료자의 상담 취소는 아픔의 정도를 넘어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대재앙이었다. 이런 고통에 대한 방어로 공격성은 자기 내면으로 향하고 치료자와 동일시된 자기 정신의 부분을 파괴했다(Steiner, 1982). 늦게나마 다행히 고통스런 H의 절규를 투사적 동일시에 의한 흔적들과 치료자의 몽상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고 한 달 동안의 집 방문 상담을 통해 그 마음을 풀어줄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여자들에 의한 좌절과 상처에서 발생한 파괴적 공격성은 치료사와 부모들에게 적나라하게 행해졌다. 이때의 광기에 젖어 있는 폭력성은 H의 파괴적인 자아가 이상화되어 잔인한 내적 대상들과의 결합으로 싱싱한 힘을 가지고 세상 어느 것도 두렵지 않은 전지전능한 모습이었다. 치료사에 대한 공격성은 H의 전능적 마술적 사고에 의해 자신의 전능성을 치료사에게 투사하여 치료사가 자기의 소원을 순조롭게 진행시켜 줘야 하는 대상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음에 대한 분풀이가 있는가 하면, 쪼개진 단어로 무차별하게 퍼 부어 치료사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행 하는 느낌이 들도록 할 때는 치료사 정신을 쪼개고 자 하는 의도적인 폭력성과 전능성일 때도 있었다. 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생각을 담을 장치가 없는 H 자신의 파편화된 정신적 실재를 그냥 비워내면서 치료사로 하여금 그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것 같기도 했다. 가장 폭압스러울 때는 악마를 손수 불러내고 그와 결탁한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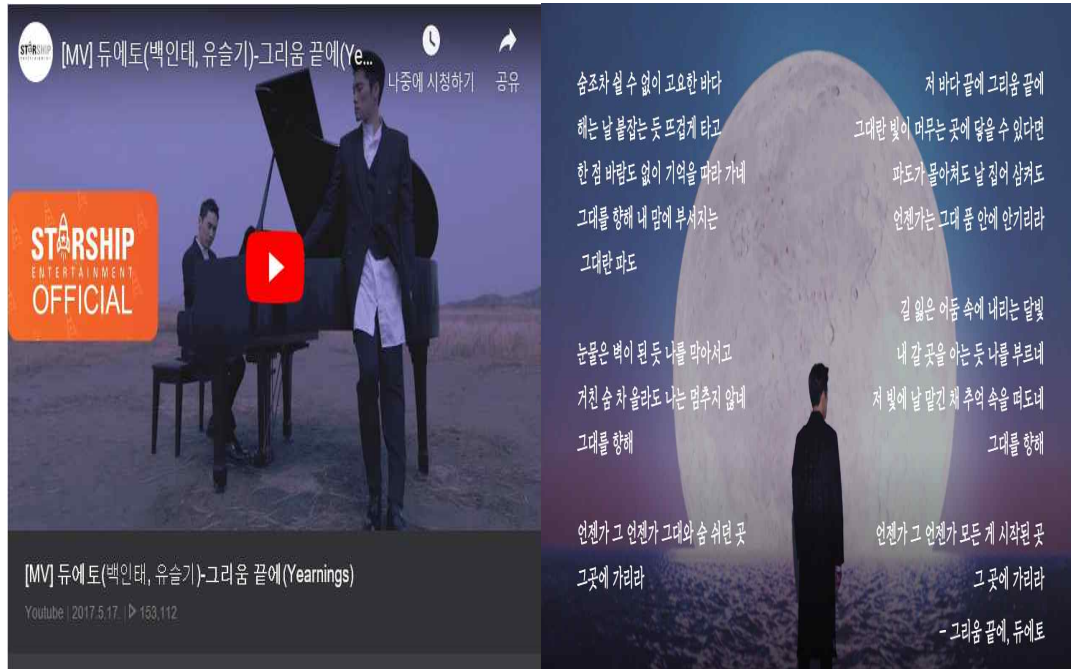
인격조직이 치료사가 알던 H와는 전혀 다른 인물로 변하면서 얼굴 모습과 분위기가 지옥에서 막 일어난 신성을 경비한 지옥의 전사처럼 느껴졌을 때였다. 이때 H는 치료사에게 싸이코패스임을 자처하면서 가장 극악무도하고 혐오스럽게 여성의 성기를 난도질 하는 것을 언어적으로 묘사했었다. 이와 같은 자기의 나쁜 부분과 나쁜 대상과의 동일시 및 이상화와 도착적인 성질들은 모두 투사적동일시와 자기애적 대상관계로 맺어진 H의 특징들이다.

H의 정신증에서 환각과 망상은 만성화되어 있었다. 상담 중 치료사에게 옛날 여자 친구의 이름을 종종 부르며 그 여자 친구로 여기는 일들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일종의 히스테리적 환각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H에게 가장 크게 각인되어 있고 두려운 공포감을 일으키는 환각은 “등에 깊이 패인 상처”이다. 근래 몇 년 전부터는 이런 환각을 더 이상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꽤 오랫동안 문득 문득 이 환각에 대해 말했다. 이것은 일종의 정신증적 환각으로서 멸절 공포와 연결된 소화되지 않은 외상적 경험들의 파편들에 대한 환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외상적 경험들로는 둘 때 끓는 뜨거운 물이 쏟아져 갑자기 화상을 입어 죽음에 대한 공포의 파편들일 수도 있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생애 초기 접촉 상실에 바탕을 둔 현실에서 대인간 상호작용 시 소통되지 않거나 거부될 때 또는 자기 정체성의 혼란에 의해 자기 존재감이 해체되는 경험을 할 때의 파편들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파편들은 오랫동안 H에게 소화될 수 없었고 수용되어지기에는 너무 끔찍한 베타 요소들로서 시각적인 감각기관을 통하여 축출되었을 것이다.

망상은 H가 소화할 수 없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생각들과 감정들을 자신의 밖으로 투사하여 일어나는 경우, 이것들에 대한 탐색과정과 이해의 과정을 통하여 비교적 자신의 망상적 측면들을 인식할 수 있음에 따라 많이 없어진 편이다. 그러나 자기의 존재감을 온전히 느끼고 안전감을 느끼기 위한 은신처로서의 망상적 세계는 그것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고 자신만의 환상적 세계라는 측면을 일정 부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H는 이 세계를 놓지 못하고 계속 발전시켜 왔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자기애적 방법에 의한 자아 유지와 자아 회복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H는 정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의주시 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관찰하며 세계 정상들과 자신을 동등시하며 세계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기관들을 자신의 통제 안에 위치시킨다. 특히 우주와 천문학, 물리학에 관심이 대단하며, 광활한 우주와 은하계 속으로 끊임없는 유영을 하면서 양자물리학으로 삶을 이해하고 자기 세계를 온전하게 구축해 나가려는 열망이 크다. 양자 물리학의 에너지 개념과 한 해석적 관점에 비추어 본다면, H의 이런 상징적 동등시 또는 망상의 구상이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다. H의 논리 속엔 생각과 염력이 에너지이고 변수와 상수의 가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와 생각이 작용된 선택된 사실은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치료자는 H에게서 경험한 투사적 동일시의 작동도 클라인 관점과 비온의 관점 모두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H의 직접적인 반응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유 없이 감정들이 올라올 때가 있었고 그것은 주중의 H의 상태와 관련이 있었음을 상담 시 확인할 때가 있었다. 또 직접적인 반응에 의한 투사적 동일시를 경험했을 때 이것에 대해 H와 나누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감당 안 되는 것은 선생님에게 불러일으켜서 선생님이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가 보려고요..” 치료자가 그것을 담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것을 담으려고 했던 것인데 이런 측면도 다분히 양자 물리학과 관련된 그의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H는 오랫동안 현실의 외상적 좌절과 극심한 공포 속에서 자신의 자아와 내적 대상들을 분열시키고 투사하는 재순환적 과정을 거치면서 자아와 초자아의 인격 편린들로 채색된

기괴한 대상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 대상들은 H의 심적 상태에 따라 전경과 배경의 역할을 달리 하는 것 같고 가장 이상적이고 수호적인 대상에서부터 잔인하고 폭악한 악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물론 이런 대상들은 병리적 분열과 투사적 동일시, 자기에적 조직 및 자기에적 대상관계에 기반 한 병리적 인격조직을 형성하고 있다.



참고문헌

- Freud, S. (1940). *An outline of psychoanalysis*. S. E., 23.
- Hill, L. B. (1955). *Psychotherapeutic intervention in schizophreni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hler, M. S., Pine, F., & Bergman, A. (1975).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 New York: Basic Books.
- Ogden, T. H. (1982). *Projective identification and Psychotherapeutic technique*. New York: Jason Aronson.
- Spotnitz, H. (2004), 『정신분열증 치료와 모던 정신분석』. 이준호 옮김. 2016.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Steiner, J. (1982). Perverse relationships between parts of the self: A clinical illustr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63: 241-251.
- Symington, J. & N. (1996). *The Clinical Thinking of Wilfred Bion*. 임말희 역. 2008. 『일프레드 비온 입문』. 눈.

정신증 내담자의 사례연구 : 공격성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이준호 (현대정신분석연구소)

우리의 현실에서 중증의 조현병 사례에 대한 치료적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은 생각보다 그 숫자가 적다. H의 경우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호전이 될 수 없으며, 그저 악화되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기능만이라도 수행할 수 있다면 다행으로 여겨지는 사례이다. 그런 점에서 곧 11년 차에 접어드는 차타순 선생님의 치료적 노력은 혹자들이 보기에 미련하기 짝이 없는 행동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차타순 선생님의 인내와 헌신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발표문을 통해 그 긴 시간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토론문을 통해 사례에 대한 분석이나 이해보다는 조현병을 대하는 ‘치료적 태도’에 대해 논의를 하겠다. 왜 많은 사람들은 조현병을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하는 것일까? 아마도 치료적 좌절이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일 것이다. 차타순 선생님의 사례에서처럼 모든 치료적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한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험들이 축적된다면 치료사가 포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다. 프로이트는 이런 현상을 ‘부정적 치료적 반응’이라 불렀으며, 무의식적 죄책감과 죽음 욕동이 그 근저에 있다고 분석했다(Freud 1937). 클라인 학파는 이 세력 뒤에 죽음 욕동의 일차적 파생물인 시기심이 있다고 보았다. 비온은 이 생각을 더욱 발전시켜 정신증에서 일어나는 연결에 대한 공격으로 이해했다(Bion 1959). 즉 많은 현대의 정신분석가들은 정신증에서 치료를 가로막는 세력들에 대해 탐구하고, 어쩌면 치료를 무화하려는 시도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병리의 주요 특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치료에 임한다면 치료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때에 치료사는 이를 포기의 근거로 삼기보다는 사례의 역동으로써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반면에 하이만 스팟닛츠는 이 문제에 대해 역전이의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그는 조현병 환자들이 유도하는 특정 역전이 반응 중에서 ‘가망 없음’과 ‘무력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Spotnitz 2004). 그러므로 치료자들은 이런 역전이 감정을 객관적 사실로 잘못 인식하고 사례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포기에 이른다는 것이다. 만약에 치료사가 이를 역전이 감정으로 다룰 수 있다면 내담자의 좌절스러운 모습들이 주는 정서적 충격에도 더욱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차타순 선생님의 사례에서도 위의 두 가지에 대한 인식 및 활용을 찾을 수 있었다. 정신증 사례에서 나타날 수 있는 파괴성과 폭력성에 대해 보복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치료사는 그 고통을 함께 감내하였다. 또한 필요할 때에는 자신의 경험의 총합을 몽상이라는 형태로 사용하여 H의 고통의 본질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함께 음악을 듣고, 영화와 성경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모습들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위에서 이야기한 두 가지는 분명 치료자의 부정적인 태도와 감정들을 치료적으로 담아내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것만으로는 10년 동안 이 어려운 사례를 지속시킬 수 있었던 놀라운 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그러기에 특정 역전이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조현병 환자들은 대개는 유아기에 외상적 경험들이 있으며, 전이 안에서의 퇴행을 통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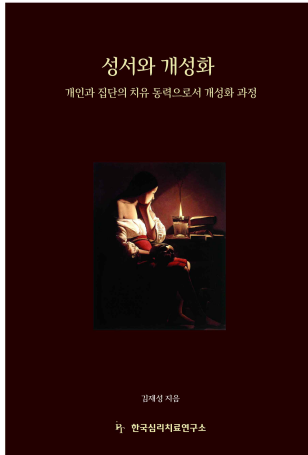
그것들을 재작업할 필요가 있다. 이때 발생하는 역전이 중 하나는 엄마처럼 환자(아기)를 돌보고 양육하고 싶은 충동들이며, 이를 양육적 혹은 의존적 역전이라 부르기도 한다(Spotnitz 2004). 차타순 선생님의 사례 전반에 걸쳐 이 역전이가 강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치료사의 역할과 기능을 넘어서 ‘희생적’이라고 밖에 부를 수 없는 모습들을 관찰 할 수 있다. 예컨대 H가 붕괴하여 더는 상담실로 올 수 없을 때, 치료사는 H의 집까지 가서 치료를 지속하는 헌신을 보인다. 물론 이는 정통적인 정신분석의 틀을 무너뜨리는 행위이지만, 도널드 위니콧이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하며(Little 1985), 크리스토퍼 볼라스도 붕괴된 환자들을 위해 유사한 개입을 사용한다(Bollas 2013).

이런 양육적 역전이야 말로 사례를 지속시킨 원동력이라 생각하며 일종의 분석적 사랑이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역전이 감정의 사용에는 항상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치료자와 내담자를 묶어주며 풍랑을 견딜 수 있는 닛의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역전이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령 지나치게 허용적인 방식으로 치료자가 행동하거나, 적절하게 공격성을 다루는 것에 대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치료자의 지나친 희생으로 인해 소진상태에 이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프로이트는 정신증의 정신분석적 치료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면 이후의 학자들은 이론과 기법을 정교화하면서 정신증을 점차 정신분석의 치료 영역 안으로 들여왔다. 이와 더불어 조현병의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특정한 치료적 태도(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훌륭한 본보기를 제공해준 차타순 선생님에게 감사를 표한다.

참고문헌

- Bion, W. R. (1959). Attacks on linking.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40, 308-315.
- Bollas, C. (2013). *Catch Them Before They Fall: The Psychoanalysis of Breakdow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Freud, S. (1937). Analysis Terminable and Interminable.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ume XXIII (1937-1939)*, 209-254.
- Little, M.I. (1985). Winnicott working in areas where Psychotic Anxieties predominate: A personal record. *Free Associations*, 1(3):9-42.
- Spotnitz, H. (2004). *Modern psychoanalysis of the schizophrenic patient: Theory of the technique, Second Edition*, New York: Human Sciences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69)



성서와 개성화

저자: 김재성

한신대와 한신대대학원, 영국 버밍엄대학교 셸리오크칼리지에서 공부하고 한신대대학원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신대학교 신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사회적 결핍과 예수의 기적』(2015)

『바울신학』(2014)

『예수의 기적』(2010)

『기적과 성령』(2003)

『민들레 성서이야기』(2002)

『그 목수』(1999) 외 다수

책소개

크리스찬이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설령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해도, 그리고 임상가가 아니라고 해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꼭 읽어볼 만한 책으로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 책은 성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인간의 내면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성서를,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 있는 방식이 아니라, 현대 정신분석학이라는 정말로 새로운 관점에서 읽어내고 있다. 정신분석학 분야의 문헌에나 등장했음직한 인물들이 자주 등장해서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다. 융, 프랑스와즈 돌토, 마이클 아이건, 윌프레트 비온 같은 이름들이 웬지 이 책에서는 전혀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저자의 열정과 창조성 덕택에, 우리는 이제 정신분석에 대한 해묵은 오해와 편견을 버리고 영혼의 깊은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첫 걸음을 좀 더 즐겁게 내디딜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은 그 문을 열어주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가면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값진 보화들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풍경들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마당 개성화의 관점에서 성서 읽기

제1부: 구약성서에 나타난 개성화 과정

둘째 마당 창조 이야기

셋째 마당 에덴의 동쪽

넷째 마당 바벨탑 사건과 자기의 탄생

다섯째 마당 야곱의 씨름과 이스라엘의 탄생

여섯째 마당 출애굽과 개성화 과정

일곱째 마당 삼손과 무의식의 힘

여덟째 마당 지혜문학에 나타난 개성화 과정

제2부: 신약성서에 나타난 개성화 과정

아홉째 마당 예수의 기적과 무의식의 힘

열째 마당 예수의 비유에 나타난 개성화의 동기

열한째 마당 예수의 비유에 나타난 무의식의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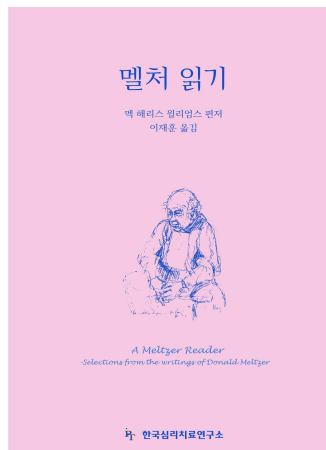
열두째 마당 가라지 비유와 그림자의 통합

열셋째 마당 잃은 자를 찾는 비유와 개성화 과정

열넷째 마당 불의한 청지기와 주체의 탄생

열다섯째 마당 요한복음의 상징과 대극의 통합

열여섯째 마당 바울과 개성화



멜처읽기

저자: 맥 해리스 윌리엄스

영국의 예술가이자 문학가. 도널드 멜처와 함께 『The Apprehension of Beauty』와 『The Claustrium』을 공동 저술. 『The Vale of Soulmaking』, 『The Aesthetic Development』, 『Bion's Dream』을 저술. The Harris Meltzer Trust의 편집자. Psychoanalytic Center of California의 명예회원.

책소개

이 책에 실린 글들은 멜처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독자들에게 그의 아이디어들과 가르침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그의 저술들 중에서 선택된 것이다. 각 장은 그의 저서나 논문으로부터 발췌된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의 동료들이나 제자들 중의 한 사람이 쓴 서론과 함께 제시되고 있다.

1장 인간의 활동으로서의 정신분석

2장 꿈 생활 : 의미를 생성하는 극장

3장 온도와 거리

4장 공동체 안의-가족 안의-아이에
대한 정신분석적 모델

5장 모니-컬의 오인 개념

6장 통찰의 명료성에 대한 망상

7장 쪽정

8장 차원성, 점착성 동일시, 분열

9장 비온의 아이디어가 끼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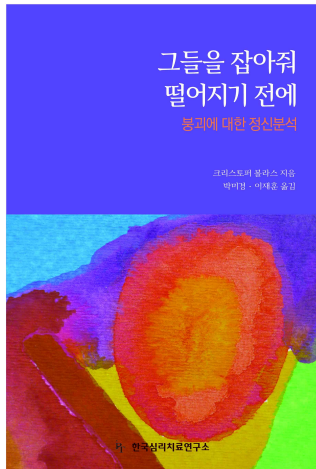
10장 미적 갈등

11장 비온의 좌표에 대하여-후기 사고

12장 기호, 상징 그리고 알레고리

13장 개인적 진술들

멜처의 저서들과 개념들



그들을 잡아줘 떨어지기 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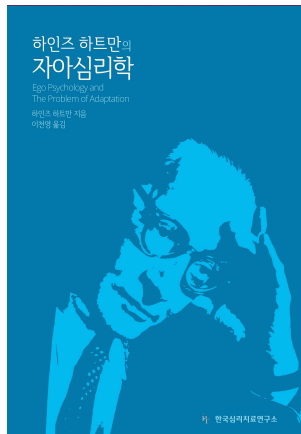
저자: 크리스토퍼 볼라스

뉴욕정신분석연구소 훈련 분석가 및 슈퍼바이저,
뉴욕대학교 메디컬센터 아동 및 청소년 정신분석 훈련
분석가 및 슈퍼바이저, 뉴욕대학교 메디컬센터 외래교
수.

책소개

정신의 붕괴 위기에 임박한 사람들을 정신분석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법을 탐구한 끝에 크리스토퍼 볼라스는 새롭고 용기 있는 임상적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그는 붕괴의 무의식적인 목적이 타자가 자기를 변형적으로 이해하도록 타자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제안한다. 자기의 핵심적인 고통을 타자가 직접 만나게 함으로써 이해받는 것이 붕괴의 무의식적인 목적이라는 것이다. 제때에 포착된다면 붕괴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붕괴는 가장 심오한 개인적 의미로 충만한 사건이지만, 그것을 변형적 잠재성이 풀려나오기 위해서는 그 의미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된다. 볼라스는 입원이나 집중적 약물치료, 그리고 행동인지치료/변증법적 행동치료 등은 모두 붕괴가 지닌 변형적 잠재성을 무효화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대신에 확장되고 집중적인 정신분석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이 책은 전통적인 정신분석적 작업으로는 붕괴 위기에 놓인 환자들을 만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임상가들에게 흥미로운 제안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볼라스의 이런 도전적인 제안은 많은 물음들을 갖게 할 것이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은 사샤 볼라스가 여러 의문점들을 제시하는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었다.

- | | |
|--------------|--------------------|
| 1. 깨진 자기 | 8. 시간 |
| 2. 붕괴의 신호들 | 9. 정서적 경험 |
| 3. 가이드라인 | 10. 반추, 설명, 그리고 혼습 |
| 4. 에밀리 | 11. 정신의 변화 |
| 5. 안나 | 12. 결론 |
| 6. 마크 | 13. 질문들 |
| 7. 역사와 사후 사건 | |



하인즈 하트만의 자아심리학

저자: 하인즈 하트만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정신분석학자로, 자아심리학 이론을 발전시켰다. 1945년에는 프로이트의 딸인 안나 프로이트와 함께 《아동 심리분석연구(Th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를 창간하였고, 뉴욕 정신분석 연구소의 치료센터 책임자로서 재직하였다. 1953년부터 1959년까지 국제 정신분석협회(IPA)의 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정신분석의 기초』(1929), 『자아심리학과 적응의 문제』(1939), 『정신분석과 도덕적 가치』(1960), 『자아심리학에 관한 에세이』(1964) 등이 있다.

책소개

하트만은 자아의 기능과 적응을 수동적인 방어로 보지 않고 적응이라는 보다 포괄적이고 능동적인 개념으로 보았다. 인간을 변화하는 환경과 상호 작용하며,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적응하는 존재로 본 것이다. 이렇게 그는 자아심리학과 자아 발달에 맞추어 적응을 설명하면서, 정신분석학 이론을 생물학과 일반 심리학 이론으로 확장하였고, 관련 분야의 학문과 융합이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분석학의 여러 개념들을 보다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제 1부 : 자아심리학과 적응 문제(1939)

제 1장 갈등 없는 자아 영역

제 2장 적응

제 3장 적응과 “상호 적응” - 현실원리

제 4장 자아 발달과 적응

제 5장 내면화, 사고, 그리고 합리적 행동

제 6장 자아의 통합 기능들

제 7장 건강과 교육의 개념에 대한 합의

제 8장 전(前)의식적 자동행동

제 9장 자아 기관, 자율적 자아 발달

제 2부 : 자아심리학 논문들(1939-1959)

제 1장 정신분석학과 건강의 개념(1939)

제 2장 본능적 욕동의 정신분석학 이론에 관한 주석(1948)

제 3장 자아의 정신분석학 이론에 관한 주석(1950)

제 4장 자아 발달과 Id의 상호 영향(19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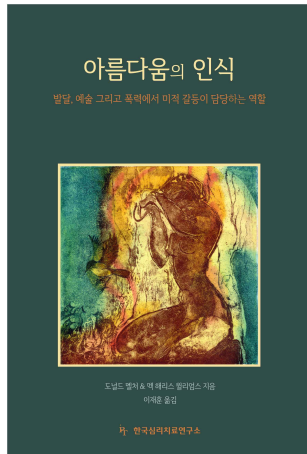
제 5장 승화 이론에 관한 주석(1955)

제 6장 현실원리에 관한 주석(1956)

제 7장 과학적 이론으로의 정신분석학(1959)

아름다움의 인식

저자: 도널드 멜처&멕 해리스



도널드 멜처는 클라인학과 정신분석가로서 자폐증 같은 어려운 소아 질환들의 임상적 진보를 개척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의 이론적 혁신과 발전도 알려지게 되었다. 정신건강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감정과 미학의 역할에 대한 그의 관심은 윌프레드 비온에 의해 창조된 정신분석적 사고 이론과 연관된 "포스트 클라인학과" 운동의 핵심 인물로 여겨지게 되었다.

멕 해리스 윌리엄스는 영국의 예술가이자 문학가. 도널드 멜처와 함께『The Apprehension of Beauty』와『The Claustrium』을 공동 저술.『The Vale of Soulmaking』,『The Aesthetic Development』,『Bion's Dream』을 저술. The Harris Meltzer Trust의 편집자. Psychoanalytic Center of California의 명예회원.

책소개

이 책에서 정신분석학은 분석 방법이 지닌 미적 특질로 인해 '상징 형성을 촉진시키는 집'으로 간주된다. 그것은 인격발달이 그 자체로서 미적 가치의 획득에 전적으로 의존해 있다는 느낌을 그리고 정신분석이 예술의 형태로 간주될 수 있다는 느낌을 최초로 명료화한다.

제 1장 아름다움의 인식

제 2장 미적 갈등

제 3장 첫 인상

제 4장 미적 상호성

제 5장 초기 발달에서 아버지가 담당하는 역할

제 6장 폭력의 문제

제 7장 미지의 나라: 「햄릿」에서 드러난 미적 갈등의 형태

제 8장 분석 과정에서의 미적 갈등

제 9장 미적 갈등으로부터의 후퇴: 냉소주의, 변태 그리고 취향의 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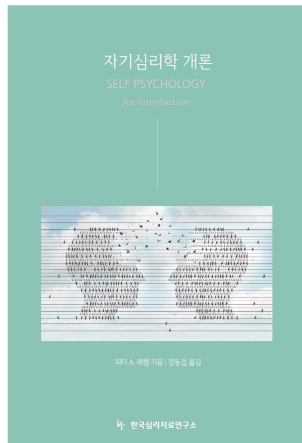
제10장 미적 대상의 회복

제11장 꿈 간직하기: 미적 감상의 본성

제12장 동굴 속 그림자와 벽 위에 글쓰기

부록1: 예술의 사회적 기초에 관하여

부록2: 생각 없음: 정신신체적 질병, 과잉행동 그리고 환각증을 연결시키기 위한 모델로서의 알파-기능의 실패와 역전



자기심리학 개론

저자: 피터 A 레쎌

뉴욕에서 활동하는 정신분석적 심리치료사이며, 25년 넘게 성인, 청소년, 커플의 심리치료를 해오고 있다. 또 정신분석 연구기관, 국립 심리치료기관, 그리고 전문 정신분석연구소 등 몇몇 정신분석 훈련기관의 교수진이다. 그는 결혼하였고 슬하에 딸과 양아들을 두고 있다.

책소개

나는 자기심리학이 정신분석의 진화에서 결정적이고 방대한 공헌을 했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 한명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영역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심리학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대부분은 코헛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다. 이런 이유 외에도 다른 이유들로 인해, 자기심리학의 많은 개념들은 잘못 이해되어 왔다. 나는 특별히 자기심리학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과 임상가들이 자기심리학에 좀 더 쉽게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론서나 입문서를 쓰고자 한다.

1장 서론

2장 자기에 개념의 재공식화

3장 자기와 자기대상 개념들

4장 공감

5장 자기심리학은 심리적인 성장과

치료적인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6장 정신병리: 자기-경험의 혼란과

장애들

7장 임상과정

8장 코헛에게 영향을 끼친 지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요인들

9장 상호주관성

10장 동기체계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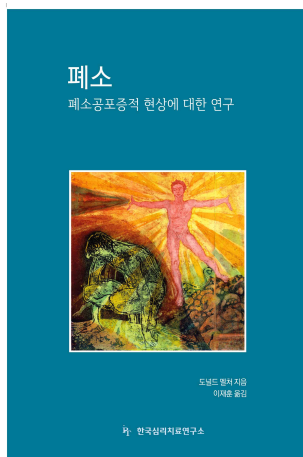
11장 공격성에 대한 자기심리학의 관점

12장 자기심리학의 비전

13장 정신분석적 이론과 실제의 혁명에 기여한
자기심리학의 공헌들

폐소: 폐소공포증적 현상에 대한 연구

저자: 도널드 멜처



도널드 멜처는 클라인학과 정신분석가로서 자폐증 같은 어려운 소아 질환들의 임상적 진보를 개척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의 이론적 혁신과 발전도 알려지게 되었다. 정신건강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감정과 미학의 역할에 대한 그의 관심은 윌프레드 비온에 의해 창조된 정신분석적 사고 이론과 연관된 "포스트 클라인학과" 운동의 핵심 인물로 여겨지게 되었다.

맥 해리스 윌리엄스는 영국의 예술가이자 문학가. 도널드 멜처와 함께『The Apprehension of Beauty』와『The Claustrium』을 공동 저술.『The Vale of Soulmaking』,『The Aesthetic Development』,『Bion's Dream』을 저술. The Harris Meltzer Trust의 편집자. Psychoanalytic Center of California의 명예회원.

책소개

멜처는 그의 마지막 저서인 이 책에서, 그의 아이디어들의 핵심적인 발달단계들을, 특별히 그가 '침범적 투사적 동일시'라고 부른 것의 역할과 관련해서 검토한다. 그는 항상 '페소'라는 용어를 심리적인 자기-감금(self-imprisonment)을 지칭하는 데 사용했지만, 그것이 '이론'의 지위를 획득한 것은 아니다. 그 점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 그 이유는 그가, 그것이 본질적으로 클라인학과 초심리학의 확장, 즉 마음에 대한 기존의 클라인학과 모델의 경계를 확장한 것임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오직 여러 해 동안의 임상적 경험이 축적된 이후에야, 임상적 사실들에서 오는 압력이 그로 하여금 그가 관찰해왔던 것이 내적대상의 내부를 향한 투사적 동일시였음을 인정할 수 있게 했다; 더욱이 이것은, 비록 견고성의 정도는 다양하지만 고립된 정신병리가 아닌 편재한 현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1장 투사적 동일시에 대한 멜라니

클라인의 비전

2장 이전에 출간된 논문들의 개요

3장 정신적 장치의 지형학적 차원

4장 내적 엄마의 분실들

5장 페소 안에서의 삶

6장 페소의 기법적 문제들

7장 페소에서 나오기 대 의식의 변동

8장 정신분열증의 발생에서 페소가 담당하는 역할

9장 투사적 동일시의 편재성에 관하여

10장 증상 대 성격 - 정신분석의 과정

11장 페소와 청소년

12장 페소와 변태/중독

13장 페소와 정신분석 안에서의 정치

도서 2

한국심리치료연구소 도서목록

학술대회 기간 15% 할인

4권이상 무료배송

	도 서 명	저 자	정 가	15%할인	분류
1	감정이 중요해	마이클 아이건	20,000	17,000	아이건 / 비온
2	교육 허무주의 생존	데이빗 홀브룩	12,000	10,200	정신분석 일반
3	그들을 잡아줘 떨어지기 전에	크리스토퍼 볼라스	18,000	15,300	볼라스
4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수준에서1	제임스 그릇슈타인	29,000	24,650	비온
5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수준에서2	제임스 그릇슈타인	25,000	21,250	비온
6	그리스도인의 원형	에드워드 F. 에던저	10,000	8,500	정신분석학과 기독교
7	그림놀이를 통한 어린이 심리치료	도널드 위니캣	25,000	21,250	위니캣
8	깊이와의 접촉	마이클 아이건	20,000	17,000	아이건 / 비온
9	꿈 상징 사전	에릭 에크로이드	20,000	17,000	정신분석 일반
10	끝없는 질문	크리스토퍼 볼라스	18,000	15,300	볼라스
11	나의 이성 나의 감정	호르게 드 그레고리오	12,000	10,200	정신분석 일반
12	난 멀쩡해 도움 따윈 필요 없어!	하비어 아마도르	15,000	12,750	심리학-정신의학
13	내면세계와 외부현실	오토 쾨버그	20,000	17,000	쾨버그
14	놀이와 현실	도널드 위니캣	20,000	17,000	위니캣
15	단기 대상관계 부부치료	제임스 도노반	20,000	17,000	대상관계이론
16	대상관계 가족치료1	질&데이빗 샤프	20,000	17,000	대상관계이론
17	대상관계 개인치료1:이론	질&데이빗 샤프	20,000	17,000	대상관계이론
18	대상관계 개인치료2:기법	질&데이빗 샤프	25,000	21,250	대상관계이론
19	대상관계 단기치료	마이클 스타터	20,000	17,000	대상관계이론
20	대상관계 부부치료	질&데이빗 샤프	20,000	17,000	대상관계이론
21	대상관계 집단치료	찰스 에슈바흐 & 빅터 셔머	20,000	17,000	대상관계이론
22	대상관계이론과 임상적 정신분석	오토 쾨버그	18,000	15,300	쾨버그
23	대상관계이론과 정신병리학	프랭크 서머즈	25,000	21,250	대상관계이론
24	대상의 그림자	크리스토퍼 볼라스	20,000	17,000	볼라스
25	독이 든 양분	마이클 아이건	23,000	19,550	아이건 / 비온
26	멜라니 클라인	한나 시겔	20,000	17,000	클라인
27	멜처읽기	멕 해리스 윌리엄스	20,000	18,000	멜처
28	모성의 재생산	낸시 초도로우	20,000	17,000	정신분석 일반 / 유아 심리치료
29	목회와 성	로이드 레디거	12,000	10,200	정신분석학과 기독교
30	무의식으로부터의 불꽃	마이클 아이건	15,000	12,750	아이건 / 비온

31	박탈과 비행	도널드 위니캇	23,000	19,550	위니캇
32	분석적 장	안토니노 페로 & 로베르토 바질	22,000	18,700	비온
33	비교정신분석학	오채근	12,000	10,200	정신분석 일반
34	사라짐의 의미	김명훈	7,500	5,000	위니캇
35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살아있는 정신	앤 벨포드 올라노프 & 엘빈 듀크	15,000	12,750	응/ 정신분석학과 기독교
36	살아있는 동반자	앤 알바레스	20,000	17,000	자폐 치료
37	살아있는 신의 탄생	애너-마리아 리주토	15,000	12,750	정신분석학과 기독교
38	살아있는 인간문서	찰스 거킨	15,000	12,750	정신분석학과 기독교
39	상상을 위한 틀	쥬디스 미트라니	28,000	23,800	자폐 치료
40	상호주관적 과정과 무의식	로렌스 J. 브라운	25000	21,250	브라운
41	성격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	로널드 페어베언	20,000	17,000	페어베언
42	성서와 개성화	김재성	25,000	21,250	정신분석학과 기독교
43	성서와 정신	에드워드 에던저	13,000	11,050	정신분석학과 기독교
44	성숙과정과 촉진적 환경	도널드 위니캇	20,000	17,000	위니캇
45	성애적 사랑에서 나타나는 자기애와 대상애	문현아	7,500	6,000	라캉
46	소아의를 거쳐 정신분석학으로	도널드 위니캇	28,000	23,800	위니캇
47	숙고	윌프레드 R. 비온	27,000	22,950	비온
48	신경증의 치료와 기독교 신앙	알프레드 레슬러	10,000	8,500	정신분석학과 기독교
49	신데렐라와 그 자매들	앤&베리 올라노프	20,000	17,000	정신분석학과 기독교
50	신앙과 변형	마이클 아이건	20,000	17,000	아이건 / 비온
51	신학과 목회상담	드보라 밴 두젠 현싱거	15,000	12,750	정신분석학과 기독교
52	심각한 외상과 대상관계	스테판 프라이어	15,000	12,750	대상관계
53	심연의 화염	마이클 아이건	20,000	17,000	아이건 / 비온
54	싸이코패스는 누구인가?	박문현	7,500	6,000	정신분석 일반
55	아기에게 말하기	미리암 슈제이	20,000	17,000	유아 심리치료
56	아동 자폐증과 정신분석	로제 페롱 외	15,000	12,750	자폐 치료 / 아동 심리치료
57	아름다움의 인식	멜처&해리스	25,000	21,250	자폐 치료 / 아동 심리치료
58	아스퍼거 아동으로 산다는 것은?	알렐카 클레멥 외	20,000	17,000	자폐 치료 / 아동 심리치료
59	아이, 가족, 그리고 외부세계	도널드 위니캇	20,000	17,000	위니캇
60	애도	수잔 캐벌러-애들러	25,000	21,250	클라인
61	영성과 심리치료	앤 올라노프	10,000	8,500	정신분석학과 기독교
62	영조, 사도제자, 정조, 그들은 왜?	서정미	7,500	6,000	대상관계이론
63	외상 심리치료 그리고 목회신학	김정선	12,000	10,200	정신분석학과 기독교
64	왜 정신분석인가?	로제페롱	15,000	12,750	정신분석 일반
65	울타리와 공간	도널드 위니캇	18,000	15,300	위니캇
66	유아의 심리적 탄생	마가렛 말러 외	25,000	21,250	유아 심리치료

67	융과 후기 융 학파	앤드류 새뮤얼스	25,000	21,250	융
68	융의 심리학과 기독교 영성	에르나 반 드 빙켈	13,000	11,050	융/ 정신분석학과 기독교
69	의례의 과정	빅토 터너	15,000	12,750	정신분석 일반
70	인간의 관계 경험과 하나님 경험	마이클 세인트 클레어	10,000	8,500	정신분석학과 기독교
71	인간의 욕망과 기독교 복음	프랑스와즈 돌토	15,000	12,750	정신분석학과 기독교
72	인격장애와 성도착에서의 공격성	오토 컨버그	20,000	17,000	컨버그
73	임상적 클라인	R.D.헌셸우드	20,000	17,000	클라인
74	자기심리학 개론	피터 A 레쎌	25,000	21,250	코헛
75	자기의 분석	하인즈 코헛	25,000	21,250	코헛
76	자기의 회복	하인즈 코헛	20,000	17,000	코헛
77	자폐아동의 부모를 위한 101개의 도움말	아놀드 밀러 & 테레사 스미스	20,000	17,000	자폐 치료/ 아동 심리치료
78	자폐아동을 위한 심리치료	프랜시스 터스틴	20,000	17,000	자폐 치료/ 아동 심리치료
79	자폐적 변형 - 비온의 이론과 자폐 현상	쥘리아 픽스 코르비셰르	20,000	17,000	자폐 치료 / 비온
80	전환기의 종교와 심리학	제임스 W. 존스	12,000	10,200	정신분석학과 기독교
81	정신분석과 기독교 신앙	프랑소와즈 돌토	15,000	12,750	정신분석학과 기독교
82	정신분석과 이야기하기	안토니노 페로	20,000	17,000	비온
83	정신분석에서의 종결	윤종민	7,500	6,000	정신분석 일반
84	정신분석 용어사전	미국정신분석학회 편	25,000	21,250	정신분석 일반
85	정신분석은 어떻게 치료하는가?	하인즈 코헛	20,000	17,000	코헛
86	정신분석학 주요개념 I : 기법	버네스 무어 & 버나드 파인	20,000	17,000	정신분석 일반
87	정신분석학 주요개념 II : 임상적 현상	버네스 무어 & 버나드 파인	20,000	17,000	정신분석 일반
88	정신분석학적 대상관계이론	제이 그린버그 & 스테판 밋첼	25,000	21,250	대상관계이론
89	정신분열증 치료와 모던정신분석	하이만 스팟닛츠	25,000	21,250	모던정신분석
90	정신증의 핵	마이클 아이건	30,000	25,500	아이건 / 비온
91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신분석적 고찰	박보린	7,500	5,000	위니캇
92	종교와 무의식	앤&베리 올라노프	15,000	12,750	정신분석학과 기독교
93	참자기	제임스 매스터슨	20,000	17,000	정신분석 일반
94	초보자를 위한 대상관계 심리치료	질&데이빗 샤프	15,000	12,750	대상관계이론
95	코헛의 프로이트 강의	하인즈 코헛	20,000	17,000	코헛
96	편집증과 심리치료	윌리엄 마이쓰너	25,000	21,250	정신분석 일반
97	폐소	도널드 맬처	25,000	21,250	맬처
98	프로이트 이후	스테판 밋첼 & 마가렛 올렉	20,000	17,000	정신분석 일반
99	하인즈 코헛과 자기심리학	앨런 시걸	20,000	17,000	코헛
100	하인즈 코헛의 자기심리학 이야기	홍이화	20,000	17,000	코헛
101	하인즈 하트만의 자아심리학	하인즈 하트만	20,000	17,000	하트만
102	현대 정신분석학과 종교	제임스 존스	10,000	8,500	정신분석학과

					기독교
103	환기적 대상세계	크리스토퍼 볼라스	15,000	12,750	볼라스
104	환자에게서 배우기	페트릭 케이스먼트	25,000	21,250	정신분석 일반
105	흑암의 빛줄기	제임스 그로슈타인	28,000	23,800	비온
106	희망의 목회상담	앤드류 레스터	12,000	10,200	정신분석학과 기독교
107	C.G. 융	엘리 임베르	23,000	19,550	융
108	100% 위니캣	안느 르페브르	20,000	17,000	위니캣
109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힌 아동을 도우려면 (2권 세트)	마곳 선더랜드	38,000	32,300	아동 심리치료
110	강박증에 시달리는 아동을 도우려면 (2권 세트)	마곳 선더랜드	35,000	29,750	아동 심리치료
111	마음이 굳어진 아동을 도우려면 (2권 세트)	마곳 선더랜드	35,000	29,750	아동 심리치료
112	꿈과 희망을 잃은 아동을 도우려면 (2권 세트)	마곳 선더랜드	29,000	24,650	아동 심리치료
112	두려움이 많은 아동을 도우려면 (2권 세트)	마곳 선더랜드	35,000	29,750	아동 심리치료
113	상실을 경험한 아동을 도우려면 (2권 세트)	마곳 선더랜드	35,000	29,750	아동 심리치료
114	감정을 억누르는 아동을 도우려면 (2권 세트)	마곳 선더랜드	29,000	24,650	아동 심리치료
115	자존감이 낮은 아동을 도우려면 (2권 세트)	마곳 선더랜드	35,000	29,750	아동 심리치료
116	그리움 속에 사는 아동을 도우려면(2권 세트)	마곳 선더랜드	29,000	24,650	아동 심리치료
117	(가이드북) 스토리텔링을 통한 어린이심리치료	마곳 선더랜드	20,000	17,000	아동 심리치료
*	스토리텔링을 통한 어린이심리치료 시리즈 전집 19권	마곳 선더랜드	300,000	255,000	아동 심리치료
*	동화책 (날권)	마곳 선더랜드	13,000		아동 심리치료
*	가이드북 (날권)	마곳 선더랜드	세트 - 동화책 =		아동 심리치료

도서 3

한동네 도서목록

학술대회 기간 15% 할인

4권이상 무료배송

1	오이디푸스.정신분석의 가장 근본적 개념	장 다비드 나지오	15,000	12,750	
2	히스테리. 불안을 욕망하는 사람	장 다비드 나지오	15,000	12,750	
3	정신분석의 근본 개념 7가지	장 다비드 나지오	16,500	14,020	
4	사랑은 왜 아플까? 사랑과 고통의 정신분석	장 다비드 나지오	15,000	12,750	
5	프로이트,페렌치,그로데크,클라인,워니코프,돌토,라캉 정신분석 작품과 사상	장 다비드 나지오	20,000	17,000	
6	절대 여자. 새로운 페미니즘	아드린느 플뢰리	14,500	12,325	
7	나는 누구인가?	안명수	13,000	11,050	
8	칼뱅. 자본주의의 고삐를 잡다, 그의 경제사상과 자본주의	이오갑	28,000	23,800	
9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이오갑	12,000	10,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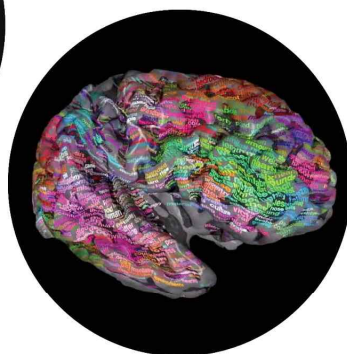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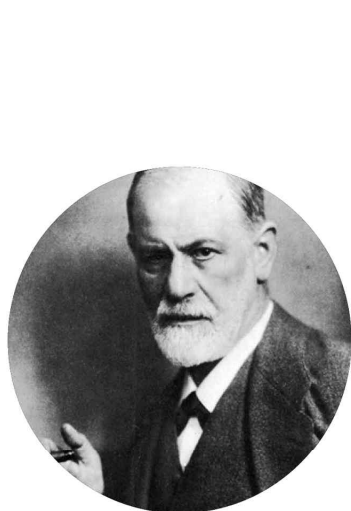
2020년 전기 아주대 일반대학원 디지털휴머니티융합학과

의료인문정신분석전공

석사과정 및 학·석사연계과정생 모집

| 입시설명회 |

10월 30일(수) 13:30-15:00 다산관 205A



입시일정

■ 정시모집 (외국인1차모집)

원서접수(온라인)	2019.10.28(월) 09:00 ~ 11.8(금) 17:00
서류제출	2019.11.11(월) 17:00까지
전형일	2019.11.18(월) ~ 22(금)
합격자 발표	2019.12.10(화)
등록	2020.1.15(수) ~ 1.17(금)

■ 수시1차 모집 (외국인2차모집)

원서접수(온라인)	2019.12.9(월) 09:00 ~ 12.19(목) 17:00
서류제출	2019.12.20(금) 17:00까지
전형일	2019.12.30(월) ~ 2020.1.8(수)
합격자 발표	2020.1.21(화)
등록	2020.1.29(수) ~ 31(금)

■ 수시2차 모집 (외국인 미선발)

원서접수(온라인)	2020.1.20(월) 09:00 ~ 29(수)
서류제출	2020.1.30(목) 17:00까지
전형일	2020.2.3(월) ~ 7(금)
합격자 발표	2020.2.20(목)
등록	2020.2.21(금), 24(월), 25(화)

장학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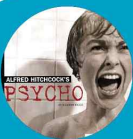
■ 석사과정 기본장학제도

장학종류	자격	금액
석사연구장학	전일제(풀타임학생)	수업료 40%(학비감면)
TA장학	교수추천	월30만원 가량

- 135 -

인문대학교학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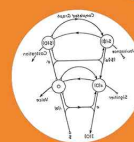
031. 219. 2802 / kseoyoung31@ajou.ac.kr



전공 교과목

정신분석학(필수)
프로이트의 기본 개념
멜라니클라인의 이론
라캉 정신분석이론
윌프레드 비온의 이론
모던 정신분석
비교 정신분석
신경정신분석
꿈 분석 이론
정신분석기법
정신병리와 진단
인간발달이론
정신분석과 윤리
수퍼비전
자기애와 공격성
자폐증
집단치료개론

문학, 영화, 그리고 정신분석
정신분석과 심층마음
인문예술치료 이론과 사례
정신병리와 인문학
의료인문학개론
행복생활철학
정신분석과 신경과학 세미나
의료인문과 텍스트마인딩
의료인문학과 머신러닝
의료인문콘텐츠
인턴십



전공 일반 소개

전공분야

• 정신분석학(프로이트-라캉/대상관계), 의료인문학

학위

• (현재) 의료인문학석사
• (차후) '의료인문학 / 정신분석학 석사'로 변경 고려중

외부 연계

• 정부 발행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시험 응시에 유리
• 한국정신분석협회의 현대정신분석연구소와 MOU

졸업후 진로

• 정신분석가
• (정부 / 지자체 / 산업계) 심리상담사
• 공공보건의료기관
• 복지센터
•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

